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발간사



급격한 산업화 바람을 타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의 서구는 옛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민중들이 거주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활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의 형성과 변천을 조사하고 그 안의 사람들과 생활문화를 조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인천 서구문화원은 사라져가는 서구의 향토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그 정신을 이어 인천 서구의 마을 형성과 변천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를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옛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석곶면(石串面)·모월곶면(毛月串面)과 1995년 인천광역시로 승격될 때 경기도 김포시 감단면(黔丹面)을 편입하여 지금의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곶면과 모월곶면은 승학현(乘鶴峴-싱아고개)을 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형적으로 모월곶면 지역을 ‘북서곶’, 석곶면 지역을 ‘남서곶’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역시 북서곶, 남서곶, 검단 세 지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로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북서곶』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을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근현대 도시화를 통해 변화된 생활문화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각 마을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소개하고, 남겨진 이야기들을 나누며 북서곶을 추억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북서곶의 연표를 통해 통시적으로 북서곶 역사문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를 통하여 사라져가는 인천 서구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인문·사회 환경을 고려한 지역재생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 서구문화원은 향토문화유산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기획하여 ‘울타리 없는 문화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

목 차

발간사.....	2
----------	---

I. 총설	7
-------	---

II.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7
---------------------	----

1. 서구의 자연과 지리	18
2.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23
1) 북서곶의 탄생과 변천	
2) 행정동의 연혁	
3) 법정동의 지명유래	

III. 북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49
-------------------------	----

1. 문화와 풍습	51
1) 연희동 셋말 풍경	
2) 검암동의 한 민가 안채	
3) 경서동 옹기전	
4) 경서동 공동우물	
5) 백석동 개랑 부엌	
6) 일도의 겨울	
7) 잠령공양탑	
2. 사회와 환경	70
1) 한들방죽	
2) 서곶골프장 준공식	
3) 백석동 그린벨트 감시초소	
4) 객토 작업	

5) 백석동·독정사거리 고갯길 낮춤 공사	
6) 청라도 위문 방문	
3. 교육과 행정	84
1) 서곶국민학교와 임갑선 선생님	
2) 고려중학교	
3) 인광중학교	
4) 1930년대 중반의 서곶면사무소	
5) 복구서곶출장소	

IV. 북서곶의 문화유산 95

1. 지정문화재	98
1) 사적	
2) 시 유형문화재	
3) 기념물	
2. 비지정문화재	105
1) 유물산포지	
2) 국방유적	
3) 묘지	
4) 사찰	
5) 기타	

V. 북서곶의 인물 143

1. 북서곶의 선주 성씨들	146
2. 전근대 인물	150
3. 근현대 인물	169

Ⅵ. 북서곶의 남겨진 이야기들

195

1. 남겨진 이야기 하나 197
 - 1) 계양산 이야기
 - 2) 검암동 보명학교와 선각자 정홍석
 - 3) 구한말 북서곶의 군사기지
 - 4) 북서곶의 갯벌
 - 5) 길과 교통, 통신 그리고 소방차
2. 남겨진 이야기 둘 231
 - 1) 북서곶의 교육기관
 - 2) 서무정, 소통과 사교의 장
 - 3) 절터에서 허암지로
 - 4) 문화보급의 창구-유선방송
3. 남겨진 이야기 셋 245
 - 1) 인천에는 인천교가 있다
 - 2) 북서곶의 부자들
 - 3) 시천동의 흥망성쇠
 - 4) 흑돈과 점령군, 중국 인민폐
 - 5) 인공치하 의용군 탈출기

Ⅶ. 북서곶 연표

267

Chapter

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총설

I. 총설

서구가 역사무대에 확실히 등장하는 것은 475년이다. 장수왕이 남하하여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매소홀현, 주부토군, 검포현을 설치한 것이 서구 고대사의 시작인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주부토군(主夫吐郡)과 검포현(黔浦縣)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757년(경덕왕 16)에 경덕왕의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주부토군은 장제군(長堤郡)으로 읍호가 변경되었으며, 검포현은 김포현(金浦縣)으로 읍호가 바뀌어 장제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그러나 서구는 한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여 왔다. 한강유역은 풍부하고 넓은 농토를 갖고 있었고, 한반도 남부지역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한 연유로 초기 백제와 조선시대의 도읍지로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서구는 서해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본격적인 해상교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해연안을 이용한 교역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더해서 한강 이남지역에서 한강을 건너 평양이나 송도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육로길로 통한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며 한때 여각촌이 500호에 이르는 큰 부락을 이뤘다. 우리의 고유 공놀이인 ‘격구’가 번창해 큰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한 검암동에는 쑥시장으로 알려진 ‘밭아장’에 전국의 보부상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조선 세종실록에는 서구에서 생산된 ‘사자쑥’이 약효가 좋아 중국과 일본에도 알려졌으며, ‘쑥당의 고장’으로 불리었다고 기술돼 있다. 과거로부터 바다로 향하고, 교통의 요지로 조세선의 길목이며 군사적 기능도 겸비하고 있던 중요한 곳



| 인천 녹청자 도요지

이었다.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주목되어졌던 것은 신라 말 고려 초부터로, 9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구 지역 사회의 독특한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이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지방의 호족세력이 발흥하던 때로, 서구와 부평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많은 지방 호족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농경을 중심으로 매우 안정되고 풍요한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는 옛 고잔리(‘곶의 안쪽’) 지역으로 가마의 위치가 해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뱃길을 따라 이동이 쉬운 광역의 판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용으로 제작된 녹청자의 대량생산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며, 상업과 해상세력을 갖춘 상당히 유력한 호족들도 출현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강화수로에 이르는 해상교통은 고려와 조선시대 서울로 수송되는 삼남지방 세곡(稅穀)의 중요 운송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강화도의 손돌목은 급물살로 인해 해난사고가 빈번한 지

속칭 징매이고개라 불리는 경명현(景明峴)은 고려시대 원(元) 간섭기 충렬왕(忠烈王)이 매사냥을 즐겨 국영 응방(鷹坊, 매방)을 이곳에 설치하고 재워 시 다섯 차례나 이곳에 들러 좋은 매를 징발한 것에 유래하여 ‘징매이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후에 변음되어 ‘징매이고개’가 되었고 한자로 표기하면서 다시 ‘경명이고개(景明峴)’로 변음되었다고 한다.

경명현을 소개하는 최초의 사례는 1750년 경에 제작된 『해동지도, 海東地圖』라 할 수 있겠는데, 경명현의 지리적 입지는 오히려 그 비중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 경명현은 삼남(三南)으로부터 강로(江路) 및 송도길(松都路)과 통한다. 서쪽으로 끝없이 넓은 바다와 접해 있고 삼남의 조운선은 모두 이곳을 거친다. 강화도는 서쪽에 있고, 영종도는 서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경상, 전라,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세국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국의 운송과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로 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고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후일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경과 부평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고려 왕의 사냥터가 되기 위해서는 개경과 부평과의 교통로가 확보되어야 했는데 경명현이 18세기 후반까지도 고려시대 이래 송도로 통하는 길목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지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숙종 36년(1710)에는 금위영제조(禁衛營提調)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의해 이곳 ‘석곶’에 방어진을 설치하였는데 유사시 강화 덕진진과 영종진 두 곳이 동시에 공격당하면 한양도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길목인 이곳에 군대를 주둔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후일 조선의 개항을 앞두고 1875년 영종진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자, 개항 교섭의 진행과 함께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를 강화하

기에 이르렀다. 1879년 화도진, 연희진(모월곶면)과 여러 곳의 포대가 축조되었던 것도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굴포 작업이 실패한 후 전조창(轉漕倉)을 서곶면 포리 설치하였는데 “삼남의 전세·대동미를 이곳에 납입토록 하였다가 서울 공기관의 하급 관리와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요미(料米)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있어 이곳까지 온 세곡을 서울까지 육로로 수송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고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천시 서구 원창동(석곶면) 한화 에너지 북쪽 해안에 전조창터로 보이는 유지가 남아 있고 배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수로도 확인된다. 더불어 이곳에서 세곡을 우마차에 실어 서울로 수송했던 고개가 안아지고개였다 하나, 설치나 폐지연대는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이후의 서구 출신 개국공신 조반(趙胖), 대제학 류사눌(柳思訥), 세종조 명신 양성지(梁誠之), 대곡동 신흠(申欽)과 신도비가 있는 반남박씨 박동선(朴東善), 공촌동에 신도비 3개가 있는 심증(沈諱)과 심씨 일문, 항일독립투사 류완무(柳完茂), 심혁성(沈懌誠)과 국가와 향리를 위하여 험격한 공을 세운 해아리기 어려운 수의 명현(名賢), 거사(居士)들은 서구지역이 비록 변방이지만 유독 집성촌들로만 구성된 친족과 향리의 유대감 속에서 선조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구지역을 빛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875년 영종도가 함락되자 강화도와 영종도를 거점으로 하는 연안 방비책이 무너지고 이어 1879년 인천과 부평지역에 화도진과 연희진이 설치되었으나 이마저도 1883년 인천이 개항되기 직전 일본의 압력에 의해 방어 진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도 한양 가까이에서 외적의 도발을 방어할 진지의 구축은 너무나 당연히 요구되어 지는 상황이었다.



| 연희포대터

1883년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축조한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는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여 국왕의 명령으로 만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계양산의 서쪽에 고개가 있는데 경명(景明)이라고 하니 곧 바다와 접한 관문(關門)이다. 내가 이 고을에 수령으로 와서 관방에 뜻을 두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 해 9월 그믐에 조칙(詔勅)이 있어 성보(城堡)를 쌓음에 부민(府民)이 편하게 하여 기꺼이 부역하도록 하였다. 서쪽에 장대를 쌓고 병사의 훈련하는 곳으로 삼고 이름은 지명을 따서 경명(景明)이라 하였으며, 고루(高樓)에 올라 이르기를 바다에 아뢰고 바라건데 중심(衆心)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인천 앞바다를 접한 관문으로서, 경명현의 지정학적 입장이 고려시대 이래 요처이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실례라 하겠다.

1930년대 후반부터 경인공업지대를 병참 기지화한 일제는 적절한 공업항을 물색하기 위해 인천항 북부에 대한 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월미도 서부에서 울도 북쪽에 이르는 수로는 대형 선

박의 정박이 항시 가능한 수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면한 북해안에는 광대한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간석지를 매립하여 광대한 공장 지대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경인공업지대와 연결하면 자유로운 공업항으로서 천연의 양항이 될 수 있음이 판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제는 1936년부터 1941년에 이르는 6개년 사업으로 인천 북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광복과 전후 복구사업으로 한국 사회 전반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인천은 9개의 출장소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66년 인천시의 인구가 50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1968년 구제(區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청을 설치하고 북구에는 서곶출장소를, 남구에는 남동출장소를 두었다. 이어 1988년 1월 1일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되었는데, 이 때 이 곳의 역사를 감안해서 ‘서곶’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구의 해안 지역은 평야의 발달은 미미하고 간석지나 갯골이 분포한 긴 해안선을 이루고 있었으나 계속된 간척 사업으로 밋밋한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 염업이나 어업 등 수산업의 중심지였던 북항과 인근 섬 지역은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 과거의 지형이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북항 건설 등이 이루어지면 인천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매우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경서, 원창, 연희동 일대와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인천 국제공항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개발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련자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 도로교통이나, 갑작스런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육시설 부족, 과거 농업 지대이다 보니 문화시설이나 행정시설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아직도 미개발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많다. 서구는 인천 육지 면적의 34%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자연공원을 개발하고 도시환경림 조성 등 도심속에 공원과 녹지를 균형배치하고 공촌천을 자연 하천으로 정비하며 대기오염방지 활동을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환경친화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서울과 인천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며, 각종 주거단지의 조성
과 철도교통 증설로 발전될 여지가 많은 지역이다. 구의 중부에 해당하는 심곡·연희동 일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아울러 서구청·서부소방서·서부경찰서 등 서구 행정의 중심기관들이 입지해 서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금융, 스포츠, 레저, 테마 파크, 주거, 화훼 단지 등을 갖춘 복합 신도시로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과거로부터 바다로 향하고, 교통의 요지로 조세선의 길목이며 군사적 기능도 겸비하고 있던 중요한 곳으로 새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강덕우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Chapter 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 서구의 자연과 지리
2. 북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Ⅱ. 북서곳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 서구의 자연과 지리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반도 서북부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북쪽은 김포시,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은 동구 및 남구 그리고 서쪽은 서해바다로서 옹진군과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의 중앙부와 수도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서부 해안에 위치해 관문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과는 한강과 경인아라



| 인천광역시 서구

벧길로 연결되며 서해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경제발전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서구의 산지는 북부의 가현산(215m)과 계양산(395m)에서 남향(南向)하여 천마산(226m), 원적산(165m), 만월산(187m), 금마산(201m), 거마산(209m), 소래산(299m)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인천의 북동부에 산지를 이루고 있고, 원적산-계양산 줄기는 인천도 호부와 부평도호부를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천마산은 경인교 육대학교를 에워싸고 있는 중구봉 뒤쪽의 산으로 가정동, 심곡동에 걸쳐있고, 안아지 고개(경인고속국도)를 넘어 원적산으로 이어진다. 원적산은 안아지고개, 원적산길을 지나서 장고개까지 이어지는 산으로 석남동, 가좌동 일대에 걸쳐있다.

대체로 서구지역은 산줄기가 남북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어, 서쪽 사면에는 강수량이 많으나 동쪽사면은 편현상으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서해안에 위치하여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랭하고, 여름에는 다습한 특성을 가진다.

산지의 경우에도 정상부는 경사가 급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경사가 완만해지고 남북방향의 산줄기는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 해안의 평야 발달이 매우 미약했다. 전근대에는 곳과 만이 발달한 복잡한 해안선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짧아졌으며, 대부분의 섬들이 육지화 되거나 사라졌다. 인근에는 구릉성산지가 발달하여 취락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서구면적의 절반은 간척사업으로 새로 조성되었다.

또한 국가하천인 아라천(경인아라벧길, 18.7km)과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11개소가 흐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촌천(公村川, 8.83km), 심곡천(深谷川, 7.75km), 검단천(黔丹川, 6.74km), 시천천

(始川川, 1.02km)이다. 지방하천 8개 가운데 3개의 하천이 해안 매립의 진행으로 유로 연장이 생겨났고, 기존의 매립지는 평탄하기 때문에 배수가 느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침수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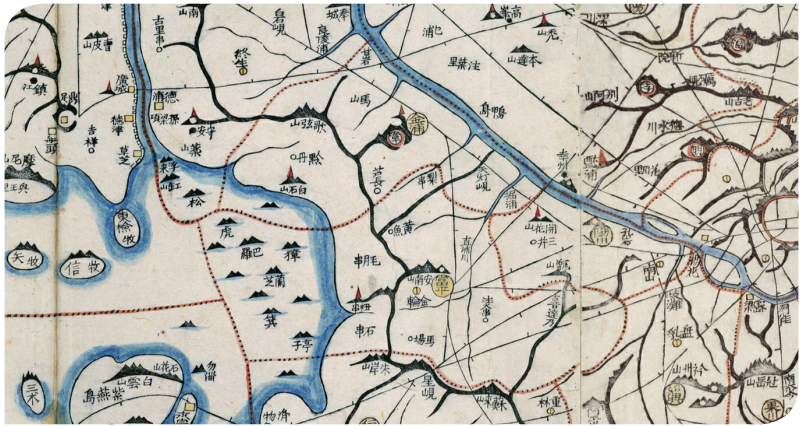
시천천은 계양산 북서쪽에서 발원하여 경인아라뱃길을 통과하여 서해에 이른다. 이 하천은 육지하천의 하상과 조간대에 나타나는 갯골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지금은 경인아라뱃길로 흘러들고 있다. 심곡천은 천마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청라국제도시 남쪽의 직선 인공배수로로 따라 서해로 흘러든다. 굴포천 다음으로 긴 하천인 공촌천도 경명현 서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청라국제도시 서북쪽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로 흘러든다. 이들 하천은 유역면적이 작고 길어도 매우 짧으며, 인위적으로 하천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상태의 하천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의 자연지리적 특징은 지역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고, 동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며, 서쪽에는 해안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는 점이다. 때문에 근대적 시가지가 발달할 수 있는 평지는 동쪽이 산줄기와 서쪽의 간석지 사이에서 남북 방향으로 매우 좁게 나타난다. 동쪽의 남북 방향으로 달리는 산줄기로부터 공촌천, 심곡천, 검단천 등의 하천이 발원하고, 이들 하천이 서쪽의 해안으로 유입하는 곳에 만입상의 하구가 형성되는데, 서구에서는 이 일대에 방조제를 축조하는 방식으로 해안 지역의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다. 방조제를 축조한 초기에는 방조제 안쪽의 토지를 염전이나 농경지로 이용하였다.

간척사업 이전의 해안마을 주민들은 바다와 갯벌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고 소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경지를 조성하고 소금을 굽거나 염전을 만들어 생업에 종사해왔다. 넓은 바다와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소금은 역사적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었으며, 그 연

안은 조운(漕運)과 육로를 통한 세곡 운반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해상에서 들어오는 외적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부산물인 오물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구에 속한 사도(蛇島), 청라도(靑羅島), 울도(栗島), 장도(獐島) 등의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간척사업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간척 사업으로 서구의 해안 지역에는 시가지나 공업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크게 확보될 수 있었다.



서구 지역을 관할했던 군현들(『대동여지도』, 1861년)

『대동여지도』(1861)에 나타난 서구 지역 일대이다. 이 지도에서 점선은 당시 각 군현들 간의 경계선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서구의 북부 지역은 1800년대 기준 김포군 관할 구역에 속해 있었으며, 서구의 남부 지역은 부평부 관할 구역에 속해 있었다. 이 지도의 김포군 관할 구역에서 보이는 지명들 중 가현산(歌弦山), 검단(黔丹), 백석산(白石山) 등은 현 서구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옛 지명들이고, 부평부 관할 구역에서 보이는 지명들 중 모월곶(毛月串), 축곶(楸串), 석곶(石串)과, 바다에서 보이는 호도(虎

島), 장도(獐島), 난지도(蘭芝島), 파라도(巴羅島), 기도(箕島), 정자도(亭子島) 등은 현 서구의 청라 지구 및 그 남부에 있었던 옛 지명들이다.

서구 지역에 발달해 있던 이러한 전통 촌락들은 근대 이후에도 그 원래의 지명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모월곶면에 있던 연희리는 연희동으로, 거장리는 가정동으로, 신현리는 신현동으로, 가좌리는 가좌동으로 각각 그 뒤의 형태만 새로운 행정 단위로 바뀌었을 뿐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검단면에 있던 마전리는 마전동으로, 금곡리는 금곡동으로, 왕길리는 왕길동으로 되었고, 노장면에 있던 당하리는 당하동으로, 원당리는 원당동으로, 마산면에 있던 불로리는 불로동으로, 대곡리는 대곡동으로 이들 역시 뒤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앞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서구 지역에는 국가 수준의 주요 도로가 통과하지 못했고, 이 지역에 발달한 소규모 마을들을 잇는 소로 중심의 교통로가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곳을 묘사한 몇몇 고지도들을 검토해 보면, 현재의 경명로를 통과해 내륙의 부평 구읍과 현 서구의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로는 부평의 중심부(현 계양구 계산동)와 서구의 해안 지역(현 서부산업단지 및 공항고속국도 북인천 IC 일대)을 잇는 도로였다. 현 서구 지역과 계양구를 잇는 경명로가 전통 시대에 서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던 유일한 간선도로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근대의 서구 지역은 옛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방리(坊里)는 정조 13년(1789)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최초로 나타나고 있는데 석곶면에는 봉현리(烽峴), 가정리(佳亭), 신현리(新峴), 포촌리(浦村里), 번작리(番作里), 가좌리(加佐里), 울도(栗島) 등이다. 그리고 모월곶면은 공촌리(公村), 연희리(連喜), 고잔리(古棧里), 검암리(黔巖), 시천리(始川), 백석리(白石), 청라도(靑蘿島), 난지도(蘭芝島)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의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石南), 원창동(元倉), 가좌동(佳佐)을 포함하는 남쪽이 석곶면이었고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景西),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深谷)을 포함하는 북쪽이 모월곶면(毛月串面)이다. 이 두 면(面)은 승학현(昇鶴峴. 싱아고개; 가정동과 심곡동 사이의 고개)을 경계로 구분 되었는데 지형적으로 모월곶면 지역을 ‘북서곶’, 석곶면 지역을 ‘남서곶’으로도 지칭하였다.

‘곶(串)’은 바다나 호수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도(半島)처럼 생긴 작은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는 ‘곶’이란 지명이 수 없이 등장하고 있다. 곶은 바다로 돌출한 부분으로 조망하기가 좋아 예전부터 방어와 관련된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용의머리라 불렸던 ‘용두(龍頭)’에 연희포대지가 위치해 있었던 것도 이에 연유한다.

모월곶(毛月串面)이라는 지명은 이곳의 지형이 마치 반달처럼 생겼는데 작은 메기 터럭(毛)같이 뻗어 내려서 ‘터럭이 많은 반달과 같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전설을 보면 물이 많은 고장이라 물곶이[水串]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석곶(石串)이라는 지명은 속칭 돌곶이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곳의 지형이 꼬챙이같이 길게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 돌곶이가 어디인가는 한 장소를 잡아 지칭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보아 가좌동, 원창동,

가정동의 해안이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구지역은 삼국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 부평의 고구려지명)의 일부와 검포현(黔浦縣; 김포의 고구려 지명)의 일부였다. 757년(경덕왕 16)에, 통일한 신라의 강역을 9주, 5소경, 121군, 290현으로 편제한 바, 주부토군은 장제군(長堤郡), 검포현은 김포현(金浦縣)으로 개편되었지만 방면리(坊面里; 면·리의 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군·현의 이름만 있으므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장제군을 수주(樹州)로 승격하여 수주지주사를 두었고, 1150년(의종 4)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1215년(고종 2)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1308년(충렬왕 34) 길주목(吉州牧), 1310년(충선왕 2) 부평부(富平府)로 개편되어 왔으나 방면리(坊面里)에 대한 기록은 없다. 모월곶면과 석곶면 서곶면으로 통합된 이후 1940년 4월 1일에 서곶지역은 일제의 인천부 고시 제32호 <인천출장소규정>에 따라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여 광복 이후까지 이어왔다.

1968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에 구(區)가 설치될 때 서곶출장소는 북구에 소속되었고, 동(洞)의 변동 없이 구획을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1981년부터는 승격된 인천직할시 소속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 제1236호에 의거 출장소가 폐지되고, 마침내 인천직할시 서구(西區)가 설치되어 검암(黔岩), 경서(景西), 연희(連喜), 가정(佳亭), 신현(新峴), 석남(石南)1·2, 원창(元倉), 가좌(佳佐洞)1·2·3동을 관할하였다. 1995년 2월 28일 구(區) 조례 제342호로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이 행해져 연희동 일부가 심곡동으로, 공촌동 일부가 연희동으로 편입되었다. 1998년 10월 29일 구(區) 조례 제489호로 행정동 간 통폐합에 의해 검암동과 경서동을 합하여 검암경서동, 신현동과 원창동을 합하여 신현원창동이 되어 14개 동이 되었다.

2010년 6월 10일 청라동이 신설되었고(서구 조례 제1039호), 2012년 7월 9일 청라동이 청라 1동(연희·원창동 일부)과 청라 2동

(경서·원창동 일부)으로 분동되었다(서구 조례 제1156호). 이어 2016년 청라대로 서쪽 지역을 청라 3동으로 분동하였다.

2) 행정동의 연혁

(1) 검암경서동(黔岩景西洞)

검암경서동은 행정동이며 검암동(黔岩洞), 경서동(景西洞), 시천동(始川洞), 백석동(白石洞) 등 4개 법정동을 안고 있다. 검암동은 일제강점기에 과생정(瓜生町)이라는 지명으로 있었다가 광복 후 1946년 검암동으로 개명하였다. 검암이라는 이름은 이 일대의 산들에 ‘검은색 바위’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한다. 경서동은 일제강점기에 이가정(李家町)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다가 광복 후 1946년 경서동으로 개칭되었다. 경서라는 지명은 동쪽에 위치한 ‘경명치’의 서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전한다. 1988년 서구가 북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서구 검암동·경서동으로 편제되었다가, 1998년 두 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검암경서동이 설치되었다.

(2) 연희동(連喜洞)

연희동(連喜洞)은 연희동, 심곡동(深谷洞), 공촌동(公村洞) 등 3개 법정동을 안고 있다. 『호구총수』에 지금과 한자 표기가 다른 연희리(延希里)로 되어 있다. 부평부 모월곶면(毛月串面) 소속으로 서곶의 중심지였으며, 연일과 셋말 등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반도처럼 뻗어나간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용의머리’라고 부른다. 거기에도 작은 취락이 있었는데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세 곳을 합해 연희리(連喜里)로 통합해 명명하였다.

1914년 부천군 서곶면 소속으로 면소재지가 되었고 1940년 서곶

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정상정(井上町)이라는 왜식 지명으로 바뀌었다. 8·15 광복 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애는 일에 나섰고, 1946년 1월 1일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연희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3) 청라동(靑羅洞)

청라동은 청라도(靑羅島)와 그 주변 매립지에 조성된 지역을 일컫는 행정동이다. 법정동은 대부분 경서동이다.

청라도는 해발 67.7m, 둘레 5km, 면적 0.79㎢에 달하는 서곶 앞바다의 섬들 중 가장 큰 섬이었다. 푸른 Ningul 관목들이 무수히 많아 가까운 육지인 경서동과 연희동 사람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렴’이라고도 불렀다. 사도(蛇島), 까투렴, 노렴[獐島], 범염[虎島] 등도 있었다. 이 섬들은 지난날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에 속해 있었다. 1980년 동아건설주식회사가 공유수면 매립에 착공하였고 1991년 1월 8일 준공하였다. 이후 동아매립지로 불리다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지정되었다. 2010년 6월 10일 서구 조례 제1039호로 청라동이 신설되었고, 2012년 7월 9일 서구 조례 제1156호로 청라동이 청라 1동(연희·원창동 일부)과 2동(경서·원창동 일부)으로 분동되었다. 그리고 2016년 청라대로 서쪽 지역을 청라 3동으로 분동하였다.

3) 법정동의 지명유래

(1) 백석동(白石洞)

검단 지역이 김포군에 속했을 때는 인천시와 김포군의 경계였다. 『호구총수』에 백석리(白石里)로 등재되어 있다. 지난날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한들, 독정이, 거월리, 넘말, 도마매, 소맹이, 종알마을 등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① 한들[白石] : 흰 돌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한돌, 한돌, 한들 등으로도 불린다. ‘흰돌’이라는 마을의 뒷산인 한뫼산에 흰 돌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재래지명 ‘한들’의 해석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이곳의 한들부락은 검단으로 가는 서곶로 국도를 타고 달리면 왼쪽에 보이는 마을인데 커다란 무논지대를 끼고 발달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마을의 원로들은 ‘한들’ 또는 ‘한돌’이라고는 하지만 ‘흰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넓은 벌판을 가로지르는 큰 독을 ‘한들방죽’이라고 일컫는다.

② 독정(독재이, 음달 마을) : 백석동의 중심이 되는 곳, 그러나 까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곶로가 왼쪽은 쓰레기 매립지로 가고 오른쪽은 천주교 묘지와 서울방향 매립지 도로로 가는 고가도로와 만나는 지역이다. 독정이라는 지명을 가진 한국의 많은 지역이 그런 것처럼 옹기 가마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원로들도 있다. 50~60년 전에 이곳에 옹기 가마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인천지명고』는 다른 해석을 하였다. 이곳에서 대를 이으며 살고 있는 광산 김씨(光山金氏) 선대에서 관찰사를 지낸 사람이 이주해 와서 자기의 아호 독정(篤亭)이라는 정자를 지은 뒤 붙여진 지명이라고 했다. 독정은 인근인 검단동에도 있는데, 백석동 독정을 윗독정, 검단동 독정을 아랫독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백석의 윗독정을 음달이라서 음달말, 검단동의 아랫독정을 양달말이라고 불렀다.

③ 거월리(巨月里) : 독정이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나타나는, 지난날 해안에 닿아 있던 부락이다. 한 쪽 면은 왕길동에도 닿아 있다. 물론 지금 바다는 매립되어 없고, 이 오솔길 옆으로는 매립지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거월은 큰 달이라는 뜻 그대로 이 마을에서 달이 유난히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원로들은 유래를 설명한다. 『인천의 지명유래』의 서구편을 집필한 조찬석 교수(인천교육대학교)는 ‘달’이 들어간 지명이므로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천신제를 지낸 마을의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④ 념말 : 너머말이라고도 부른다. 한들마을 서남쪽 너머 마을이다.

⑤ 도마매 : 념말의 서쪽 끝 한들 방죽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⑥ 소댕이 : 거월리와 인접해 있으며 지금 매립지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상고시대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특별구역 소도(蘇塗)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소도는 솟대, 솟터, 솔터, 등으로 불리웠는데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고유 신앙의 징표였다. 김포군 『지명유래집』은 인근 왕길동에 솟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골말〔谷洞〕은 마을회관 북쪽 골짜기에 들어앉은 마을이다.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앉아 그런 지명이 붙었다.

⑦ 한뢰산[白石山, 象山] : 마을을 안고 있는 야산이다. 형상이 코끼리를 닮았는데 기슭에 흰 돌이 유난히 많다. 이 산에는 봉수의 자취가 남아 있다. 『세종대왕실록』 제148권은 ‘김포 서쪽 20리에 있는 봉수로 남쪽 부평의 축곶산(楸串山)에서 연락을 받아 북서쪽 통진(通津) 약산(藥山) 봉수로 전달했다’고 나와 있다. 두 곳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등 다른 문헌에도 나와

있다. 백석산 봉수는 해발 표고가 73.6m로 낮은 편이지만 통진 약산의 봉수까지는 이보다 높은 지형이 없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⑧ 둥굴재산(둥구재산, 中丘峴) : 한들마을 뒷산으로 형태가 둥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⑨ 와우산(臥牛山) : 독정마을 뒷산이다. 형상이 누워 있는 소와 같아서 그렇게 지어졌다. 송장이 누워 있는 것과 비슷해서 송장혈이라고도 부른다.

⑩ 행자산(杏子山) : 둥굴재산 서쪽에 있다. 행주산, 도마매산, 골말산이라고도 부른다.

⑪ 맨대울골짜기 : 현재의 백석초등학교 뒤 목장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맨대울이라고도 부른다.

⑫ 각골〔角谷〕 : 오늘날의 백석초등학교 북쪽이며, 골짜기가 모가 져서 생긴 이름이다.

⑬ 우골〔牛谷〕 : 윗독정, 즉 음달말이 들어 있는 골짜기이며 와우산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보인다.

⑭ 안골 : 우골 동쪽 능선 너머에 있다.

⑮ 칭골[召容谷] : 오늘날 한진고등학교가 앉아 있다.

⑯ 오령대골(오랑대골, 오량대골) : 칭골 아래 큰길을 따라 길게 뻗은 곳으로, 백석고등학교가 앉아 있다.

⑰ 잣골고개 : 칭골 북쪽에 있다.

⑱ 도당재고개(당산고개) : 서곶로에서 한들마을로 넘어오는 도중에 있다. 옛날에 이곳에서 도당굿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당굿은 지금은 지내지 않으나 터는 남아 있다.

⑲ 종알고개 : 종알거리며 넘는다하여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고개이다. 칭골에서 거월리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다.

⑳ 행주고개 : 둥굴재산과 행자산 사이에 있다.

㉑ 한들방죽 : 이 마을에 부(富)를 가져다 준 보물이었다. 이 독으로 바닷물을 막고 간척사업을 하여 한들 벌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방죽은 구한말에 시작하여 1919년 송병준(宋秉峻)이 완성하였다고 전한다. 천일염을 생산하던 넓은 백석염전이 이 방죽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청라매립지에 들어갔다. 매립 이전에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백석 낚시터와 저수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메워지고 없다.

(2) 시천동(始川洞)

시천동은 부평부 황어현(黃魚縣)에 속하였다가 모월곶면 관할로 들어왔다. 그만큼 깊숙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호구총수』에 시천동을 모월곶면 관할 법정리로 기록했다. 시시내 마을과 점말[店村], 안골, 윗말 등 크고 작은 네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부평부가 관할 동리 명을 확정할 때 가장 큰 취락의 뜻을 살려 시천동으로 명명하였다.

1940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혁하면서 시천동을 춘일정(春日町)이라 명명하였다.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 와리야크 호를 격파한 하루히마루(春日丸)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① 시시내[始川] : 시내가 시작된다는 뜻을 가진 지명이다. 계양산 서쪽에서 시작되는 큰 계곡을 끼고 있어 그런 지명이 저절로 붙었다. 한강의 서쪽 방향에 우뚝 솟은 계양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앉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고려시대 전략상 요충지였다고 전한다.

② 점말 : 동이를 구워 파는 동이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에도 이 지명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가가 거의 없다.

③ 안골 : 갯골에서 동쪽 성황당 고개로 올라가는 곳에 있다. 갯골은 시천동의 끝부분, 지난날 방파제를 막기 전에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서 붙여졌던 이름이다.

④ 윗말 : 시천동의 본마을 북쪽 위에 있다.

⑤ 오룡산(五龍山) : 이 산의 큰 줄기가 마을을 품고 있다. 오룡산은 계양구 독실동 쪽에서 다섯 개의 활개를 뻗으며 퍼져 나갔는데 그 중 가장 큰 지맥이 시천동까지 뻗쳐오는 것이다.

⑥ 꽃뫼[花山] : 마을 앞산으로,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다. 꽃봉오리 형상이어서 붙여졌다. 구슬원(球瑟院)이라는 여각촌

이 꽃뒀 밑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에서는 왕도 개성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길목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공치기 놀이와 비파를 뜬었다고 전한다.

⑦ 장모루(長牟婁) : 화산 앞에서 검암동 바라뒀 마을까지를 장모루라고 부른다. 일설에 이곳이 고려 왕조 때 부평을 통치하던 수주(樹州)의 소재지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장모루 바로 옆에 삼국시대와 고려 때 역마를 관리하던 구슬역(球瑟驛)이 있었고, 주변에 나그네들을 위한 여각 구슬원과 함께 크게 번창했다고 한다. 원로들의 회고에 의하면 역사에 사용되었던 주춧돌 8개가 수십 년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⑧ 삼작골[挿紫谷] : 꽃뒀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나무를 꽃아 심었다는 뜻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변전소가 들어와 있다.

⑨ 꽃뒀골 :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⑩ 계동골 : 삽작골 북쪽 능선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⑪ 서낭당고개 : 계양구 독실동을 거쳐 장기동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지난날 성황당이 있었다.

⑫ 시천천(始川川) : 마을의 앞자락으로 흐른다. 계양산의 서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것으로 ‘시천들’이라는 들판을 비옥하게 적혀준다.

(3) 검암동(黔岩洞)

흔히 검바위로 불렸다. 바로뫼, 검바위, 간재울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호구총수』에 검암리(黔巖里)로 등재되어 있다. 오늘의 한자표기가 ‘암(岩)’이 아닌 ‘암(巖)’으로 기록됐는데 의미가 거의 같고 ‘검바위’라는 우리말 지명의 훈차(訓借)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1940년 검암리는 과생정(瓜生町)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 검암동이 되었다.

① 바로뫼촌 : 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위쪽(동쪽)이고 상동(上洞)이라 부른다. ‘바로 산 아래 있는 마을’의 의미였다고 원로들은 말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발아현(發阿峴)이라는 고개 이름도 있고 발아장(發阿場)이라는 저잣거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의 한자 표기 발아(發阿)는 위의 ‘바로’의 음차로 보인다. 오늘의 우리말 부사 ‘바로’는 중세어에서 ‘바르’였다.

발아현은 고려시대부터 지금의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국도 구실을 하는 길의 고개였다. 지금의 서곶로에서 오른쪽(동쪽)으로 올라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발아장은 그 길옆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 지금 상동이라고 부르는 마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이어온 이 저자에서는 우시장(牛市場)이 서고 농산물과 일용잡화가 팔렸다고 한다. 계양면에 황어장(黃魚場)이 개설되면서 폐지되었다 한다.

추측하기에 중세에는 이곳에 인접한 공촌동이 수주(樹州)의 소재지였고 여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면소재지였으므로 이 마을의 저자는 오랜 세월 흥성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황어장이 활기를 얻으면서 폐쇄되었던 것이다.

② 검바위 : 중동(中洞)에 있다. 검암동의 세 취락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지만 이 마을에 거대한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다. 지금 이 바위를 서인천고등학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한 채가 누워 있는 것만큼 큰데, 색깔이 완전한 검정색이어서 이 마을의 가장 저명한 지형지물이 됨을, 그래서 검바위란 지명이 붙여졌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검바위 위쪽에는 고인돌도 있다. 이 마을을 벅쩍말이라고도 하는데 까닭을 알 수 없다.

③ 간재울 : 하동(下洞)이다. 검바위의 아랫마을이다. 이훈익의 『인천 지명고』는 이 마을이 북동쪽을 등지고 앉았다는 뜻의 간방(艮方)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한다. 동양의 전통적인 방위개념으로 보면 간방은 북동을 중심으로 한 15도 범위 내의 방위를 말한다. 풍수 지리에서 이 간방을 등지고 앉음은 매우 안정된 것이다. 이 마을이 처음에는 간좌울이었다가 간재울로 음운이 변화한 것이라고 『인천 지명고』는 설명한다. 바로되라는 예스러운 명칭이나 검바위, 그리고 간재울과 관련하여 고인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마을의 유래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매우 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④ 허암산(虛庵山) : 검암동의 마을 남쪽 앞산이다. 일부 주민은 호암산이라고도 하나 허암산이 맞다. 호암산은 근처의 다른 야산인데 발음이 유사해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허암산은 조선 연산군대에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이 사화(士禍)를 피해 은둔한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허암산의 산정 좌우에 토성 흔적이 보인다. 조선 초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길이는 1.5킬로미터쯤 된다.

⑤ 호암산(虎岩山) : 우리말 그대로 범바위산이라고도 한다. 검암동 윗마을에서 계양산 방향에 보이는 산이며 계양구 목상동과 경계가 된다. 이 산에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

⑥ 작은징맱이고개 : 고개 아래가 고려 때에 바로되 마을의 저자(밭아장)이 있던 곳으로, 이 고개를 넘어 왕도인 개성까지 갔다고 전

해진다.

⑦ 구슬재(피고개) : 검암동이나 시천동에서 출발해 꽃피 옆을 스쳐서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 고개 아래 구슬원이라는 여각촌(旅閣村)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⑧ 숫돌고개 : 마을 북동쪽으로 가서 산맥을 넘어 계양지구로 가는 곳에 있는 작은 고개인데, 칼을 가는 숫돌을 늘어놓고 팔았다 한다. 검암동 근방에서 숫돌로 쓰는 돌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⑨ 검바위고개(건들고개) : 상동에서 공촌동의 장자터로 넘어가는 길에 있다.

⑩ 옷골 : 상동 위에 있는 골짜기로 검바위고개와 연결된다. 윗말과 가까워 옷골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⑪ 산양골 : 윗말에서 범바위산으로 가는 첫번째 골짜기이다. 옛날에 사냥을 하던 곳이었거나, 산양이 나타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⑫ 칙밋골 : 범바위산 방향에 있다. 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⑬ 시천천 : 검암동의 유일한 하천이다. 이 시내는 계양산 서북록에서 발원해 오늘의 시천동과 검암동을 경계 지으며 흐른다.

⑭ 해머리방죽 : 이 독은 간재울 아래 바닷가에 국제컨트리클럽을 끼고 있다. 바다 머리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방죽 아래로 천일염전이 있었으나 논으로 개간되었다.

⑮ 당산 : 검암동의 도당곳과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수령 300년의 상수리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4) 경서동(景西洞)

모월곶면 고잔리 지역이었다. 지형이 곶으로 되어 있어 고잔 또는 쑥이 많아 쑥데이고잔이라 하였다. 광복 후 1946년 경서동이라는 오늘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경명현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였다. 앞바다에 난지도(蘭芝島), 세어도(細於島) 등의 섬들을 안고 있었다. 이 섬들은 경사가 약한 갯벌 위에 놓여 있어서 썰물 때는 걸어서 왕래할 수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육지의 세 마을을 고잔리로 통합해 명명하였다. 그리고 세 섬은 고잔리와 한 마을로 취급하였다.

① 고잔 : 경서동의 본마을이다. 계양산의 활기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 작은 반도를 이룬 지역에 앉은 마을로 넓은 의미로는 경서동의 여러 소규모 취락을 포괄하기도 한다. 위에서 인용한 조선 정조 때 문헌 『호구총수』에는 고잔(古殘)으로, 이후의 다른 자료는 고잔(古棧)으로 한자 표기가 다르나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순우리말 지명 ‘고잔’의 음차이기 때문이다. 인천에도 인천 남구 고잔동의 인천고잔, 서구의 석남동의 번지기고잔, 경서동의 쑥데이고잔, 검단 오류동에 김포고잔 등 4곳이 있다.

② 곶말 : 마을의 북쪽에 있지만 중심 노릇을 해왔다. 지금 태평 상베르 아파트가 앉아 있다.

③ 아랫말 : 곶말처럼 경서동의 원마을이라 이를 수 있다. 마을의 남쪽 아래에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지금은 빌라촌이다.

④ 넘말 : 아랫말에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 고개를 넘으면 나타난다. 고개 너머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 태평 상베르 아파트와 빌라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앞말도 있는데 넘말과 이웃하고 있다.

⑤ 범머리〔虎頭〕 : 산 이름이자 마을 이름이다. ‘버머리’라고도 불렀는데, 인근 연희동의 바다로 뻗어간 반도를 용의머리라고 부른 것과 대칭이 된다. 2~3km 떨어진 두 마을은 그렇게 바다로 뻗은 반도가 대응되어 조화를 이루었다.

⑥ 심포리 : 고려시대에 수군기지가 있었던 바다 쪽 포구 마을을 가리킨다. 심포(沈浦)란 포구가 물에 잠겼다는 뜻이다. 곰말과 골프장 사이로 길게 자리 잡은 마을이었다. 현재 우정아파트 단지가 남아 있다.

⑦ 빈정촌 : 빈정천이 지나가는 빈정교 주변 마을을 가리킨다. 서곶로에서 서쪽으로 뻗어간 경서동 반도로 향하지 않고 서곶로에 인접한 지역을 가리키며 서로 이름이 혼용되기도 하고 매우 가깝게 바라보고 있다. 빈정천은 계양산 서록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가리킨다. 이 하천은 상류에서 공촌을 지나오기 때문에 공촌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국립지리원의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빈정천이다.

⑧ 독점 : 서곶로에서 국제컨트리클럽 간판을 보고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의 오른쪽은 윗독점(검암동 쪽)이고 왼쪽(연희동 쪽)은 아랫독점이라고 부른다. 지난날 이 곳에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들어 공소(公所)를 열고 옹기를 구웠는데 가마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빈정촌과 아랫독점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된다.

⑨ 과기평(過騎平) : 위의 빈정촌, 독점 등을 아우르는 지명이기도 하다. 병인양요 후 이곳에 계우정(桂虞停)이라는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기병들이 말을 달려 지나는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 마을 출신 원로들은 과기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과기벌’의 음운변화로 보인다. 빈정촌, 독점, 과기평은 오늘의 행정구역으로 경서동과 공촌동과 검암동의 경계가 겹쳐 있다.

⑩ 난지도 :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蘭芝草)가 자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난점’이라고도 불렀는데 ‘난지염’의 음운변화인 듯하다. 사멸된 우리 말 ‘염’은 섬과 동의어였던 것이다. 난지도는 물과 위낙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지화되었다. 그나마 절반은 옛 모습이 살아 있는데 절반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자르고 나갔다.

(5) 연희동(連喜洞)

『호구총수』에는 한자 표기가 지금과 달리 연희리(延希里)라고 기록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연희(連喜)로 한자표기가 바뀌었다.

① 연일 : 연희동의 본마을이다. 50년 전 공동우물이 셋 있었는데 가운데우물을 중심으로 서곶지서가 있었던 위쪽을 ‘위끝’, 서곶초등학교가 있었던 아래 지역을 ‘아래끝’이라고 분리해 불렀다.

② 셋말 : 연희동과 공촌동의 사이에 끼여 있어 그렇게 붙여졌다. 1991년부터 시작된 도시개발로 인해 큰 도로가 관통해 나가고 자연 취락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③ 새꼬랄 : 연희동 본말에서 셋말과 공촌동으로 가는 고개를 새꼬랄고개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개 밑에 있는 작은 취락을 새꼬랄말이라고 불렀다. 고개의 모습이 새의 꼬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 지금 연희파출소가 있는 곳이다.

④ 용의머리[龍頭山] : 연희동 본말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간 땅의 모습이 용과 같고 바다에 이르면, 마치 용의 머리 같은 곳에 취락이 있어 그렇게 붙여졌다.

⑤ 군잇길 : 옛날 연희동이 시작되던 곳은 현재의 연희감리교회가 들어선 작은 고개였다. 심곡동에서 뻗어온 서곶로 길은 이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갈마산과 연희동 본마을 사이를 지나 다시 활처럼 휘어지며 고개를 올라갔다. 연희교회 근방 고개를 군인길 또는 군잇길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삼거리였다. 서곶로를 타고 와서 휘어지지 않고 서곶초등학교와 옛 연희진 터로 곧장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아마도 서곶로가 닦여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을 타고 가면 서곶초등학교와 서곶면사무소(옛 연희진 자리)와 서곶지서(서곶면사무소의 건너편)에 곧바로 닿을 수 있었다.

⑥ 줄안마루길 : 군잇길 언덕에서 용의머리 반도로 가는 길이었다. 중요한 교통로이자 군사도로였다. 고려 때는 이 길을 타고 북으로 가서 개경으로 통하고, 조선시대에는 이 길을 타고 와서 연희진에서 동쪽 길을 잡아 계양산 옆 경명현을 거쳐 부평부(富平府)나 서울로 갔다. 1883년 조선 조정은 연희진을 설치하고 용의머리 반도 끝에 용두돈대를 만들고 아울러 이곳에 기연해방영(京畿沿海防營)이라는 병영을 설치했다. 군인길이란 지명은 아마 그런 연고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급기관에서 연희진이나 용두포대로 긴급 전령이나 파발이 달려오고 달려가고 군병력도 대오를 맞춰 이동했을 것이다.

⑦ 갈마산(渴馬山) : 마을을 관통해 가는 국도의 남쪽에 있던 야산이었는데 그 모습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듯 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서구청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연일 마을에서 보기에 왼쪽(동쪽)이 높고 오른쪽(서쪽, 군인길 쪽)이 낮았는데, 그런 연유로 동쪽의 높은 산 정상을 뿔뿔이라고 불렀다.

⑧ 닭우리산(鷄鳴山) :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구릉이다. 계양산을 관통해 내려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큰길에서 왼쪽 무논지대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다. 그 일대를 닭우리들이라 했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바뀌었다.

⑨ 샘내[泉川]들 : 연희동과 심곡동 사이에 있는 들이다. 철마산에서 발원한 심곡천(深谷川)을 젓줄로 삼고 만들어진 곳이다. 대부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⑩ 고로수고개(고로수골) : 연희동 본마을의 앞산 갈마산의 위쪽(동쪽)등성이를 넘어가는 고개와, 그 곳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켰다. 지금은 시가지로 변했다.

⑪ 능안 : 용의 머리보다 작은 반도로 서부경찰서 연희파출소가 있

는 옛 새꼬랄말에서 서쪽 소로를 타고 들어가면 도당재 언덕에 이르고, 그 언덕 언저리에 서곶면사무소와 서곶지서가 있었다. 오래 묵은 엄나무(도당굿을 하던 도당나무이다) 밑을 지나 계속 서진하면 1km쯤 되는 길이 바다를 향해 뻗어갔다. 그 곳을 능안이라고 불렀다. 능안에는 옛날에 왕릉이 있었다고 구전되고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들어갔다.

⑫ 도당재 : 연희동 산 85번지, 옛 연희진 및 서곶출장소 터 위쪽 언덕길을 도당재라고 하는데, 그 곳에 도당굿을 지내던 제단터와 300년 된 엄나무가 있다. 이 엄나무 고목에는 큰 그네가 걸리고 해마다 단오 때는 그네 타기 대회가 열렸다.

(6) 심곡동(深谷洞)

철마산(鐵馬山)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기피울과 양가말(梁家村)이라는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심곡은 옛 이름 ‘기피울’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가정동에서 승학현을 넘어와 연희동으로 가는 서곶로 국도 위쪽은 철마산 골짜기로 깊숙이 뻗어갔다. 그래서 기피울이라고 한 것이다. 1940년 심곡리는 일진정(日進町)이 되었고 광복 후 심곡동이 되었다.

① 양가 말 : 서곶로 국도에 인접한 마을이다. 지금 극동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 양씨(梁氏)가 많이 살아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고려 때부터 남원양씨(南原梁氏)가 많이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조선 초기에 이주해 온 김해김씨(金海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 풍천임씨(豐川任氏)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② 모통말 : 서부소방서와 경찰서가 있는 새로 개설된 8차선 새 서곶로 도로 근방이다.

③ 절골말 : 모통말에서 더 깊이 들어간 곳, 저명한 지형지물을 말하면 현재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있는 부분이다. 옛날에 절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80세가 넘는 원로들이 그 곳에 절이 있었다는 전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오랜 지명인 셈이다. 이 절골말은 임씨(任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오랜 세월 살고 있어 임촌말이라고도 부른다.

④ 뒷말 : 절골말에서 바라보아 탁옥봉을 너머에 있던 작은 취락이다. 뒤에 숨듯이 자리 잡은 마을이라 그렇게 불렸다. 이곳은 이 씨가 오랜 세월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어 앞의 임촌말과 호응시켜 이촌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⑤ 탁옥봉(琢玉峯) : 마을 앞산이다. 신라시대에 어떤 도인이 정자

를 세우고 수도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새 지명 탁옥로가 명명되었다.

⑥ 샘내방죽 : 바다를 막아 샘내 벌판을 개척하게 한 방파제를 샘내방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로 복개되어 있다.

⑦ 택재고개 : 심곡동에서 곧바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있었으나 큰 도로가 뚫리며 사라졌다.

(7) 공촌동(公村洞)

옛 이름은 고현리(古縣里)였다. 『호구총수』에 공촌리(公村里)로 되어 있다.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본마을과 갈피(葛山)마을, 그리고 하천 건너편 과기평마을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과기평은 공촌, 경서, 검암동의 경계가 합쳐진 곳이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고현리 본마을과 갈피와 과기평의 일부를 합해 전래된 법정리 그대로 공촌리로 명명하였다. 1940년 공촌리는 흑전정(黑田町)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공촌동으로 되었다.

① 고령이 : 옛 고을인 고현리(古縣里)가 변음되서 고령이가 되었다.

② 갈피 : ‘공(公)’자를 이루는 능선 너머 마을로 침이 유난히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③ 장자터 : 검암동과 경계를 이루는 허암봉의 남쪽으로, 옛날에 부자들이 모여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④ 도당미 : 지금 계양산 관통도로 길가 서구 정수사업소가 있는 부분이다. 옛날 이 곳에 도당할머니를 모셨던 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⑤ 길마산 : 계양산과 철마산 사이에 있다. 마치 짐을 잔뜩 실은 길마처럼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산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산을 계양산 너머 계산동 사람들은 중구봉(重九峯)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에 불교행사인 중구절(重九節; 9월 9일) 행사를 이 산에서 지낸 연유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진다.

⑥ 범골 : 계양산에는 세 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중 가장 깊은 곳으로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전설이 있다.

⑦ 산골[山谷] : 경명현 아래의 깊은 계곡이다

⑧ 불당골 : 계양산 서쪽 산자락 아래에 옛날 절이 있었다는 골짜기이다.

⑨ 경명현(景明峴) : 계양산 옆으로 난 낮은 구릉을 타고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곶과 부평을 이어주는 유일한 고개였으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경명로가 개설되어 의미가 사라졌다. 이 고개는 고려시대부터 매사냥으로 유명했다. 고려 충렬왕은 경명현에 와서 매사냥을 자주 하였고, 경명현 서쪽에 국영 매방을 두었다고 전한다. ‘징매’라는 지명은 충렬왕이 매를 징발(徵發)했다 하여 징매(徵鷹)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설이 유력하다.

(8) 기타

청라도[靑蘿島; 파렴]는 청라국제도시의 상징이자 대표 격이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머리반도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다. 정조 13년(1789)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닝쿨 ‘라(蘿)’를 썼다. 푸른 닝쿨 관목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서곶 토박이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렴’이라고도 불렀는데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이기 때문이었다. ‘파렴’은 순우리말 ‘파라’에 섬을 의미하던 ‘염’이 붙은 합성어이다. 서곶 앞 바다의 섬들 중 가장 컸다.

썰물 때 부지런히 갯벌을 걸으면 밀물이 오기 전 섬에 이를 수 있었다. 원창동에서 가려면 갯골을 3개, 연희동에서 가려면 갯골 5개를 건너야 했다. 김포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의 끝이 되어 버렸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과 이 섬 사이에는 자치도, 소도, 소문점도, 대문점도 등 작은 섬들이 놓여 있었다. 이 섬들도 모두 매립되어 육지가 되어 버렸다.

① 자치도(雌雉島; 까투럼)은 오늘의 청라1동 지역에 있던 섬이다. 까투리처럼 생겨 그런 이름이 붙었다. 원창동의 갯말 서쪽 갯벌에 위치해 있었다.

② 사도(蛇島; 뱀섬) : 경서동의 서단인 금산에서 정북쪽 700m, 연희동 용의머리 반도의 서단에서 북서쪽 800m에 자리잡고 있던 섬이었다. 뱀이 유난히 많아 그런 이름이 붙었고 말뜻 그대로 ‘뱀섬’이라고도 불렀다. 40~50년 전 그 곳에서 백사(白蛇)가 여러 마리 잡혀, 땅꾼들이 드나들었다.

서곶의 대부분의 섬이 그랬듯이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으나 경작지도 적고 밀물 때 물살이 빨라 배를 대기 어려웠다. 그래서 거의 민가가 없이 놓여 있다가 매립지로 들어갔다.

③ 거참도(巨巖島)는 경서동의 서단 금산에서 서쪽 4km,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의 맨 끝이었다. 섬의 바로 등뒤(서쪽)는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이 있었다.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④ 장도(獐島; 노렴)는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남서 3km, 연희동 용의머리 서단에서 4km 떨어진 섬으로 서곶 사람들은 ‘노렴’이라고 불렀다. 이 섬에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염’이란 지명이 붙었다가 ‘노렴’으로 축약이 되었고, 한자로 뜻을 살려 장도로 표기했던 곳이다. 꽤 먼 섬이었지만 거참도나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경서동에서 가려면 갯골이 없었으며, 연희동에서는 3개를 건너야 했다. 지금은 매립지에 포함되어 육지가 되었다.

⑤ 일도(一島)는 지난날 청라도 등 뒤에 숨듯이 앉아 있던 섬이었다. 위의 호도처럼 육지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매립되어 한국가스공사 기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천북합 화력발전소가 앉아 있다. 그리고 위의 장도와 청라도와 더불어 방조제로 연결되어 서곶의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다.

⑥ 호도(虎島; 범염)는 장도에서 3km 서쪽,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넓은 갯골 가운데 앉아있다. ‘범염’이라고도 했으며, 생긴 모습이 호랑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볼 수 없었으니 뱃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바로 이 앞으로 개설되어 있어 쉽게 바라볼 수 있다.

강덕우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Chapter I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북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1. 문화와 풍습
2. 사회와 환경
3. 교육과 행정

Ⅲ. 북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서구는 전통 생활 문화에 따라 3개의 권역으로 나뉜다. 북서곶, 남서곶, 검단 지역이다. 북서곶 지역은 행정동 3개동, 법정동 7개동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동은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이고 법정동은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이다.

서구는 과거 인천의 중심지인 중·동구와 갯골로 분리되어 있고 부평구, 계양구와는 천마산, 계양산 등으로 격리되어 있어 도시화가 더딘 채 전래의 농경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서구 전체에서도 특히 북서곶 지역은 온전한 농경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었다.

북서곶은 서부의 해안 매립 지역과 김포지역과 인접한 북부 내륙의 농경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 들어 검단, 검암 지역의 개발에 따라 급속한 현대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북서곶의 오늘날 눈부신 발전과 개발 이전의 근현대 촌락이나 생활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니까 근현대 주택, 주거, 문화, 생활, 건물, 학교 등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된다.

예를 들면 ‘검암동의 한 민가 안채’ ‘경서동의 웅기전’ ‘경서동 공동 우물’ ‘백석동 개량 부엌’ 같은 변화 속의 우리의 생활·주거문화라든가, ‘한들방죽’ 같은 사회와 환경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고려중학교’ 등 과거 북서곶의 ‘교육 입국’의 정신을 살펴 오늘날 북서곶의 변화와 대조해 보고자 한다. 그 외에도 도시화, 산업화에 관련한 북서곶의 변화상을 주제별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문화와 풍습

1) 연희동 셋말 풍경



| 연희동 셋말 풍경

이 사진은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화보집에 얻은 것이다. 오랜 교육자 생활을 지내시고 후일 서구문화 원장과 인천부평향교 전교(典校)를 지내신 정인표(鄭寅杓) 선생께서 제공하신 것이기도 하다.

단정한 이 초가집은 정 전교께서 태어나신 연희동 셋말의 고가(古家)였다. 사진은 1940년대 풍경으로 1960년대 들어와서 기와로 고쳐지었다고 한다. 이 지역 일대에는 초계 정씨 문중이 18대에 걸쳐 세거(世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작년 여름 『서구사(西區史)』 편찬을 위해 정 전교님을 두어 차례 뵈었는데, 이곳에 당신 조상이 세거하게 된 연유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 주셨다. 물론 그 이야기는 전

교님께서도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들으셨다는 일종의 민담류(民談類) 같은 내용이다.

옛날 원 서곳에는 정씨, 송씨, 그리고 류씨 문중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살았다고 한다. 이 세 문중의 최초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맨 처음 세 분이 하루는 계양산 꼭대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서로 자리 잡고 살아갈 터전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류씨는 성씨가 ‘버들’이니까 시천동(始川洞)에 살고, 송씨는 ‘송사리’이니까 물(바다)이 가까운 경서동(景西洞)에 자리잡고, 정씨는 ‘당나귀’이니 풀밭이 많은 검암동(黔岩洞) 일부와 연희동(連喜洞)에 거주지를 정해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씨의 경우는 세간에서 흔히 ‘나라 이름 정(鄭)’자를 ‘당나귀 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갖다 붙인 억지 이야기일 것이다. 송씨의 경우 역시도 ‘송(宋)’이란 성씨 본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짐작컨대 발음 연상(聯想) 때문에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꼭 믿는다고보다 한낱 소담(笑談)으로 웃고 지나쳐 버릴 이야기지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시천동에는 옛날부터 시내가 흐르고 버드나무가 많았었던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머지 두 성씨 이야기도 굳이 실제와 맞는다고 하기는 좀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정 전교님의 이 초가는 지난 시대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가의 모습이어서 불현듯 옛날을 떠올리게 한다. 어디를 가나 몇 채 기와 집을 빼면 동네의 대부분은 초가였다. 이태마다인지, 아니면 좀 더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인지, 낡은 초가를 벗기고 새로 이영을 엮을 때면 썩은 짚 속에서 굴뚝이 같은 것이 나오고는 했었던 생각이 난다.

소 잔등처럼 휘움한 곡선과 푸근한 느낌의 초가는 한국인의 마음

처럼 볼수록 다정하고 온기가 있는 것 같다. 초가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돼 지붕 개량 사업이 벌어지기 전에는 인천의 도심 한복판인 중구 내동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나라 발전에 새마을운동의 공이 크다고는 해도 우리의 전통 생활 문화, 초가지붕 문화를 도농(都農)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말끔히 걷어 없애 대부분의 가옥을 편편하고 날카로운 직선의 슬레이트로 덮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 검암동의 한 민가 안채



| 검암동의 한 민가 안채

이 사진을 보니, 문득 전에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굿모닝 인천』에 썼던 ‘검암한옥’이 생각난다. 그 글은 오래되고 음식 맛이 변함없는, 좋은 밥집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그 집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집 구조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장어 집, 검암한옥의 소재지도 서구 검암동 196번지였던 것이다.

“검암한옥은 한옥 본래의 격조를 완벽히 갖추었던 집은 아니다. 장사를 위해 여기저기 손질을 한 개량 한옥이다. 애초 ‘ㄱ자’ 형 집에 후에 ‘ㄴ자’만큼 덧대어 지은 한옥인 터라 그 만한 넓이의 웅숭깊은

맛은 없다. 그러나 대청마루 위 대들보와 반들반들 윤이 나는 서까래, 그리고 사이사이에 바른 희고 단정한 회칠은 70여 년 묵은, 서른평짜리 한옥의 맛과 멋을 내고는 있다. 특히 마당 가운데에 돌을 박아 치장한 우물과 붉은 녹을 쓰고도 아직 소임을 충분히 하고 있는 펌프 따위가 머릿속 생각을 금세 몇 십 년 뒤로 돌아가게 한다.

온통 빌라 촌이 되어 버린 허암산 발치쪽에 어떻게 이 집만 혼자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주인에 의하면, 십 수 년 전 구획정리 당시, 다른 집들은 모두 헐리는데 이 집만은 상태가 양호해 존치 건물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검암한옥’이라는 옥호로 이 지역의 대표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다. 여기 살던 옛 토박이들도 이 검암한옥을 바로미터삼아 ‘이쯤이 누구네 집, 이쯤이 누구네 대문, 저만큼이 정 씨네 안채’ 등등을 떠올린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이것이 그 음식점 집 모양과 내력에 대해 대략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검암한옥과 이 집의 구조가 같을까. 그 옛날, 서민들이 집을 짓는 데는 어떤 정형(定型)이 있었고 그래서 그 틀에 따라 지었던 것이 아닐까. 다만 지형이나 방위를 따져 대문의 위치를 정하는 것 외에.

사진에서처럼 실제 검암한옥도 마당의 같은 위치에 우물이 있다. 다만 우물결에 펌프가 하나가 더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정면에 보이는 부엌의 위치, 대청마루로 올라서는 2개 층의 긴 계단이 거의 같은 모습이다. 사진과 다른 것은 검암한옥이 지붕에 얹고 있는 기왓장뿐.

이 사진은 196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검암동의 정기탁 님이 서구문화원에 제공했다. 혹 이분 님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와를 얹고, ㄴ자 만큼 덧대어 개축된 뒤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틀린 추측이라고 해도 이 사진은 분명 그 시절 우리네 생활 모습을 그대로 엿보게 한다. 남향반이 정다운 전통 초가! 거기 마당 가운데 우물, 우물 턱에 걸린 한 되들이 깡통 두레박, 우물 위쪽으로 보이는 흰 빨래, 지금은 볼 수 없는 검은색 함석 바깥쓰, 블록 벽돌 위에 올라앉은 다라, 부엌 앞의 세숫대야, 숯불 풍로, 그 위의 양은솔이니! 거기에 식구들은 모두 논으로 밭으로 나갔는지 텅 빈 안채를 채우고 있는 고요. 다른 세상 같다. 누렇게 빛바랜, 그나마 몇 남지 않은 흑백사진이지만 우리 옛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증명서 같은 것이다.

3) 경서동 옹기전

경서동 옹기전은 대표적인 서구의 생활문화의 표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옹기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생활문화였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서구가 대표적인 옹기 생산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천의 다른 곳에서도 옹기가 구워지기는 했으나 경서동처럼 대규모 옹기전이 열리지는 않았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과 함께 옛날을 떠올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살림살이 필수품이었던 독을 굽는 가마나 독(항아리)으로 가득 찬 서구 경서동 벌판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그래서 사진작가도 이 풍경에 끌려 셔터를 눌렀을 것이다.

이 같은 경서동 옹기전 풍경은 1970년대 초 무렵까지는 볼 수 있었다.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 이런 일상의 친숙했던 풍경들은 가뭇없이 사라져 버려 이제는 근대 풍경으로만 사진 속에 남아 있는데, 이 사진조차도 좀 지나면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 경서동 옹기전

경서동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녹청자도요지가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서구는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뿐만 아니라 옹기에 필요한 양질의 질흙이 풍부했던 곳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몇 군데 이에 관련한 지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100%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백석동의 독쟁이, 시천동의 점말, 경서동의 윗독점, 아래독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독쟁이는 “옛날 감사(監司)를 역임한 광산 김씨(光山金氏) 한 분이 이곳에 독정(篤亭)이란 정자를 세웠기에 마을 이름이 생겼다.”는 『인천시사』의 기록이 있으나 이는 틀림없이 오지향아리 ‘독’에 관련한 지명이라는 생각이다. 남구 용현동의 독쟁이의 원이름이 독정(讀亭)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남구 용현동 일대에도 독(오지향아리)을 짓는 가마가 1970년대까지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천동의 점말은 “옛날 도자기를 굽던 마을이기에 생긴 이름”이라는 『인천시사』의 기록도 있다. 이밖에도 검암동과 공촌동에도 큰 옹기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빈정촌은 빈정천이 지나가는 빈정교 주변 마을을 가리킨다. 서곶로에서 국제컨트리클럽 간판을 보고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의 오른쪽은 윗독점(검암동 쪽)이고 외쪽(연희동 쪽)은 아랫독점이라고 부른다. 지난날 이곳에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들어 공소(公所)를 열고 옹기를 구웠는데 가마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빈정촌과 아랫독점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된다.

과기평(過騎坪)은 위의 빈정촌, 독점 등을 아우르는 지명이기도 하다. 병인양요 후 이곳에 계우정(桂虞亭)이라는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기병들이 말을 달려 지나는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 마을 출신 원로들은 ‘과기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과기벌’의 음운 변화로 보인다. 위의 빈정촌, 독점, 과기평은 오늘의 행정구역으로 경서동과 공촌동과 검암동의 경계가 겹쳐 있다.”고 『서구사』는

기록하고 있다.

사진 속의 가마와 옹기전 풍경은 사진작가 박근원(朴根遠) 씨가 196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촬영지를 ‘경서동’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바로 과기평이 아닌가 싶다. 넓은 벌의 옹기전 풍경은 여름이고 독 굽는 가마 사진은 눈 쌓인 겨울 풍경으로 대조를 이룬다.

옹기장수가 지게에 김칫독, 장독, 자배기 등을 잔뜩 지고 마을을 다니던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 되고 말았다. 김장독을 마당에 묻던 전통 풍습도 이제는 아파트 살림으로 역시 사라졌고, 고급 김치냉장고 때문에 어느 집에서도 항아리 하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4) 경서동 공동우물



| 경서동 공동우물

1970년대라고 표시된 이 사진도 참으로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지금은 이런 시골 들판도, 또 그 앞의 우물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득 김장 날이면 종일 물지게를 지고 몇 차례씩 우물물을 길어 나르던 생각이 난다. 절인 배추를 씻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긴 그때의 김장은 오늘날과 달리 한 집에서 100포기, 200포기를 담그는 것이 보통이었으니 대역사도 이 만저만한 대역사가 아니었다. 1950년대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물지게에 물을 저 날랐는데 정말이지 김장철에는 어깻죽지에 못이 박히도록,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길어 대었다.

내가 살던 곳에도 공동 우물이 있었으나 방치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빨래나 허드렛물로 사용했을 뿐 좀 산다는 집이나 우물이 있어 그런 집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주인 댁 눈치를 살피며 조심조심 물을 길던 생각이 난다. 당시 집 마당에 식수용 우물을 파는 일은 대단한 역사(役事)였던 데다 경비도 많이 들어 영세한 가정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간혹 펌프까지 설치한 집도 있었는데 이런 집은 말 그대로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 공동우물(대동우물) 준비를

통해 주의를 시멘트로 바르고 뚜껑을 만들어 우물(식수)을 깨끗하게 관리했다. 당시 경서동 우물에서 주민들이 빨래하는 모습으로 옆의 입간판에 ‘부탁의 말씀’이란 유의 사항이 보인다. 우물 너머로 겨울철 농한기에 동네 분들이 활을 쏘던 과녁판(경서동 허정 님 밭)이 보이고 우측의 집은 경서동 심은기 님의 생가 모습이며 마을 앞에는 가정동 원적산(구 철마산)이 보인다.”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화보집에 나와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경서동 공동우물은 식수용이 아니라 빨래용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 빨래터인 셈이다. 보기에다 식수 물통 같은 것은 없고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모습만 보인다. 마을 주민 식수용 우물에서는 절대 빨래가 금지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입간판에 쓰인 글귀다. 돋보기로 확인해 보니 제목인 “부탁의 말씀” 아래 이렇게 쓰여 있다.

1. 이곳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새마을 공동 빨래터입니다.
2. 서로서로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여 문화인의 긍지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부탁의 말씀’은 환경 정화 의식과 공동물 관리 정신 고취를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로 이 글귀로 미루어 이 우물은 애초부터 빨래터로 쓰기 위해 만들었거나 준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사진 속 우물 주변이 논밭인 것으로 보아 식수일 수는 없는 일이다. 농터에는 비료나 농약 같은 것을 뿌리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마실 수 없을 터이니 말이다. 특히 대동우물이란 말은 마을 전체가 식수로 쓰는 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역시 이 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것이다. 어쨌거나 여기 우물물을 식수로 저 나르려면 그야말로 어깨, 허리 죄 못쓰게 될 것 같다.

5) 백석동 개량 부엌



| 백석동 개량 부엌

‘사진으로 보는 시정(市政)’이라는 옛날 인천시청 행정 사진첩을 뒤지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다. 1974년도 인천시의 한 해 각종 시정 사진 중의 한 장인데 사진 아래 설명에 “백석동 개량된 부엌”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무렵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초기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가꾸기 등 재건운동이 벌어지던 때여서 그 일환으로 부엌 개량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더구나 당시 백석동이라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벽촌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어서 시범적으로 이런 개량 사업이 시행되었을 것이다.

사진을 보면서 적어도 개량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처럼 주부가 허리를 펴고 주방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고작 부뚜막에 타일을 붙이고 부엌 벽에 새롭게 회칠을 한 것만으로도 무슨 대단히 혁신적인 시정을 펼친 것처럼 사

진을 찍어 홍보를 했던 것이다. 197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꼭 43년 전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네 삶이, 우리네 재래 부엌 현실이 그렇게도 낙후한 것이었던가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 안방 밖에 별도로 팔려 있는 재래 부엌은, 돌이켜보면 늘 어두컴컴하고 또 연료로 솔가지나 장작을 때는 구조였기 때문에 온통 시커먼 그을음투성이였었다. 부뚜막도 대체로 황토를 바른 채 그대로인 집들이 많았고, 곁에 시멘트를 입힌 것이 좀 나은 집 부뚜막이었다. 그런 부엌 형편을 일단 환하고 매끄럽게 바꾸어 놓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개량’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생활문화의 혁신을 이룩한 셈이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백석동 어느 댁 주부였는지는 모르나 방금 식구들 저녁쌀을 안치려는지 플라스틱 바가지로 밥물을 잡는 모습이 보인다. 주부의 차림새 역시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보이는데 무슨 제복처럼 단출하면서도 매우 간편한 복장에 머리에는 세수수건이 아닌 머플러 같은 것을 쓰고 있다.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은 부엌에 들어갈 때는 철칙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셨다. 부엌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손에 잡으시면 머리에 수건을 쓰시는 것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남성들의 조발(調髮)에 비해 여성들은 대부분 태생 그대로 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할 때 거추장스럽거나 모발이 빠져서 비위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여성 자신으로서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목욕 시설이 발전되지 못했던 시절이니만큼 수건을 머리에 씌워서 얼마간 세발(洗髮)을 미룰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인천의 정미소 수백 명 선미(選米) 여공들이 매일 아침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출근하는 풍경을 기록한 글이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정미(精米) 위생과 쌀가루 같은 것으로

부터 여공의 두발을 청결히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쇠 가마솥과 양은솥이 걸린 이런 여염집 부엌 풍경은 이제 어디서도 볼 수가 없다. 주부 등 뒤로 보이는 석유곤로도 지금은 다시 보기 어렵다. 아무래도 이 댁 주 연료는 구공탄이었을 성싶은데 부뚜막 어디에도 공기 조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왼쪽 끝에는 장작을 땔 수 있는 작은 화구(火口)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근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현대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시절의 한 풍경이다. 이 같은 삶의 역정을 지나 오늘의 현대화된 서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백석동 개량 부엌 사진 한 장이 잊고 있었던 40여 년 전 세월, 우리네 삶의 모습을 증언이라도 하듯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삶은 변화해 왔다고 말한다.

6) 일도(一島)의 겨울

인천에서 나서 자랐어도 서곶 쪽과는 거의 두절하다시피 살았던 까닭에 이런 섬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서구사(西區史)』를 들추다가 우연히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매립으로 사라지고 없지만 1977년까지는 엄연한 도서로 존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일도! 전혀 들어 본 바 없는 아주 생소한 섬이어서, 위치라도 알아보기 위해 지난날 지도를 찾아보니 육지 쪽에서 보면 바로 청라도 서쪽 등 뒤에 숨듯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재미있는 것은 청라도 아래 서남 방향으로 일도보다는 훨씬 작은 이도라는 섬이 마치 동생 처럼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구사의 설명으로는 일도는 호도와 마찬가지로 육지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립이 되어 한국가스공사 지지와 한국전력공사 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조금 위쪽에 있던 장도와 함께 매립 방조제로 청라도와 연결되어 서곶지역의 새로운 인공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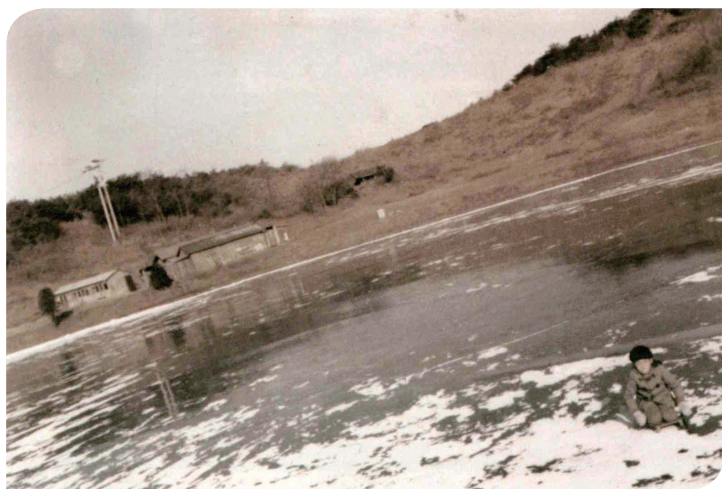
오늘날 청라지구가 이룬 그 대역사(大役事)의 위용을 보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인천이 도시화, 산업화에만 전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이용한 관광산업에 일찍 눈을 떴다면, 전체적으로 발전은 좀 더디더라도 지금쯤은 이 일대 34개의 섬들을 그대로 보존한 뛰어난 해양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자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각설하고, 사진은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실린 것으로 일도 주민이었던 홍인식 님이 제공한 것이다. 멀리 보이는 건물이 홍인식 님의 생가이고 얼어붙은 논에서 썰매를 지치고 있는 어린이는 그분 자제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1980년대 풍경이라고 하는데 그렇

다면 지금쯤은 그 자제분도 중년이 되어 있으리라.

근 60년 전쯤, 형과 함께 종일 망치를 똑딱거리려 썰매를 만들던 기억도 떠오른다. 나무로 썰매의 열개를 만들고 밑에 굵은 철사나 강철 칼날을 달아 얼음 위를 미끄러지게 했다. 그리고는 썰매에 올라 손이 시린지 코가 어는지 여념이 없이 종일 동네 아이들과 얼음판 위에서 살았다.

사진 속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일도 주민이 통틀어 몇 사람 되지 않았던 까닭일 것이다. 이렇게 적막했던 일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변할 수 있었을까. 서구 경서동 일도의 겨울 풍경 사진 한 장이 마음을 흔든다. 우리는 이렇게 옛날을, 우리 전래의 문화를 잊고, 잃고 살아간다.



| 일도의 겨울

7) 잠령공양탑

잠령공양탑(蠶靈供養塔)은 인간에 의해 명을 다하지 못한 누에의 영혼을 달래고, 누에 농사를 잘 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기 위해 세워졌지만, 일제하에서 양잠업 농가들이 기금을 내서 반 자율적으로 세워졌으며, 각 도마다 설치되었다.

잠업(蠶業)은 일제 강점기 쌀, 면화 등과 함께 조선의 일차산품 중 수탈의 으뜸 대상이었다. 특히 군비 마련을 위한 일제의 수출 품목으로 증산을 대대적으로 독려했는데 1925년에서 1938년까지 무려 ‘고치 100만 석 증산 계획’을 수립하여 이 수립되었다. 1926년에 세워진 이 잠령공양탑은 애초 서구 공촌동 길가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

화강암으로 된 이 탑은 밑면 가로 45cm, 세로 34cm, 높이 300cm인데 직사각형의 긴 기둥 형태로 꼭대기는 뿔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 형상이다. 비석의 전면과 후면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蠶靈供養塔 阜水 大正 十五年 十一月 建立之 設立發起人 總代 農學博士 梅谷與七郎
(잠령공양탑 고수 대정 15년 11월 건립지 설립발기인 총대 농학박사 매곡여칠랑)

이상은 대략 2010년 10월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에서 펴낸 인천역사문화총서 권61 『인천상식문답』 제43번 문항의 보충 설명 자료 내용이다.

공양탑이란 원래 부처에게 공양하는 뜻으로 세운 탑을 의미하는데, 잠령공양탑이라 했으니 여기서는 누에의 영혼에 대해 공양한다는 뜻이 되겠다. 이 탑의 건립 주체는 ‘고수(阜水)’ 즉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사이토(齋藤實)라고 한다. 고수는 사이토의 호(號)로서 이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선 총독들이 남긴 오욕의 흔적들 - 식민통치자들의 휘호가 새겨진 정초 석(머릿돌)과 기념비」라는 글에 보인다. 특히 이순우 연구원은 이 비석의 글씨도 사이토의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02년 3월 5일,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이 유물은 가정동의 한 대중음식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음식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靈’ 자가 귀신을 뜻한다며 기분나빠하자 음식점 주인이 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인천시립박물관 김래영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기부자인 음식점 주인에 의하면, 자기가 인수하기 전, 이 탑이 있던 곳은 석남1동 193번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1986년에 자신이 인수했다가 그런 연유로 기증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공촌동에서 석남동으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대로 결국 이 탑은 정처없이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

인간을 위해 죽은 누에들을 기리는 것이 나쁠 일은 아니겠지만, 저들의 강압으로 고치를 거두던 우리 조선인 농민들은 실제 일제로부터는 누에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누에에게만은 탑까지 세워 참회하는 듯이 따듯한 품성(?)을 보인 일제의 본말(本末)이 전도된 교활한 생색이 꽤심할 따름이다.

아무튼 당시 일제가 농업 증산 계획을 세우면서 공촌동 사거리 일대를 양잠 지역으로 지정했었다고 하는데 『인천시사』나 『서구사』 어디에도 이런 언급은 없고 향토사가 故 이훈익(李薰益) 선생 도 이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 잠령공양탑

2. 사회와 환경

1) 한들방죽

“백석(白石)은 마을의 행정 지명으로 ‘흰 돌’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한돌, 한둘, 한들 등으로 불린다. 흰 돌은 마을의 뒷산인 한뫼산에 흰 돌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재래 지명 ‘한돌’의 해석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이곳의 한들부락은 검단으로 가는 서곶로 국도를 타고 달리면 왼쪽에 보이는 마을인데 커다란 무논 지대를 끼고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원로들은 ‘한들’ 또는 ‘한돌’이라고 하지만 ‘흰 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넓은 벌판을 가로지르는 큰 독을 ‘한들방죽’이라고 일컫는다.

1961년 정부는 한자식 표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순 우리말 지명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이를 관보로 공시한 바 있다. 이것은 매우 충실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자료에도 ‘한들’로 되어 있다. 당시의 마을 원로들이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백석리가 아니라 ‘한들’을 훈차(訓借)한 ‘대야리(大野里)’로 정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백석의 지명이 생기고 이미 백 년이 지났으니 어원이 어떻든 백석동인 것은 분명하다.”

2004년에 발간된 『서구사(西區史)』의 내용이다. 이것을 보아서는 백석동이라는 동명이 잘못 붙여진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이 같은 오류 표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백석도 잘못 표기된 예의 하나일 것이다.

아무튼 이곳은 1914년 부천군 서곶면 관할 백석리였다가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에 편입될 때, 일본식 지명인 운요오쵸(雲揚町)가 되기도 한다. 이 지명은 고종 13년(1875)에 강화도에 침입해 무력으로

써 끝내 강화도조약을 체결케 한 운요호사건의 주범인 군함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일제는 전국의 지명을 자기들 식으로 바꾸면서 청일, 러일전쟁에서 싸운 군함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백석리에 운요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제 침략기 시대, 한들방죽에 관련한 이야기는 또 있다. 그 내용은 2017년 10월호 서구구정소식지 「그린서구」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어 인용해 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宋秉峻, 1858~1925)이 1913년 당시 국유미간지(國有未墾地)로 되어 있던 ‘부평군(富平郡) 모월곡면(毛月串面) 백석리, 시천리, 검암리, 3개 지역의 간사지(干瀉地) 95정(町) 57단(段)’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부(貸付) 받은 것이다.

미간지(未墾地)란 개간되지 않은 전국의 원야(原野)·황무지·초생지(草生地)·소택지·간석지를 통틀어 이른다. 종래에는 이 미간지를 서민들이 자유로이 개간하여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미간지를 일제히 국유화하여 국유미간지라 했던 것이다.”

이런 제도는 우리 국토 침탈을 위한 일제의 야욕에 의해 생겨난 것인데, 미간지를 개간하거나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농상공부대신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친일 거두 송병준은 오늘날 서구 지역인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지역의 미간지 95여 정보, 대략 285,000평이 넘는 거대한 땅에 대해 개간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송병준은 국유미간지법 제정 당시 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농상공부의 대신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국유미간지에 눈을 뗄 것이다. <중략> 그러나 백석, 시천, 검암 개간 사업은 진척이 더디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까닭이 있었든지, 1917년 3월 7일자 총독부 관보에 ‘송병준에게 대부한 경기도 부천군 서곶면 시천리 및 이리(二里) 소재 간사지 95정 여를 1919년 12월 말일까지 연기 허가하다.’라고 공시된다. 물론 송병준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1927년 현재 그의 사후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토지는 평안북도 안주와 경기도 개성 등에 683만 평이라는 여전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구 지역의 간척지는 없었다.’ 『서구사(西區史)』의 기록이다. 아마 사업 후 곧바로 타인에게 전매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정미칠적(丁未七賊)의 한 사람 송병준이 서구 지역에 남긴 이야기이다.”

이상이 「그린서구」의 기록이다. 송병준이 대부받은 백석동의 미간지는 바로 한들방죽이다. 이 같은 국절과 역사를 간직한 한들방죽 일대도 또 다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야금야금 모습을 잃어간다. 아래 사진은 백석동의 한들부락 사진으로 1970년대 촬영한 것이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을 갈아놓은 모습으로 뒤로는 한뫼산(백석산)이 보인다. 이 사진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서구의 옛 풍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백석동 한들부락

2) 서곶골프장 준공식

반드시 서구 시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서동에 인천 최초의 골프장이 들어선 것도 도시화 또는 생활문화의 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시에 보관된 사진첩 속에는 대부분 시가 펼쳐온 행정 기록이나 국가 행사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이번 것은 특이하게도 “서곶골프장 준공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골프 티샷 사진이다.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골프라면 역시 부자 아니면 고위층이나 즐기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해 뭐, 이런 사진을 다 보관했다단 말인가 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추측하건대, 이 행사(?)는 아마 당시 인천에 최초로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데 의미를 두고, 그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넣은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까 오늘날 프로야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시합에 앞서 유명 인사나 인기 많은 연예인이 나와 시구를 하는 것처럼 골프장 준공 기념으로 시장이 시타(始打)를 하는 장면인 것 같다.



|서곶골프장 준공식

지금 막 티샷을 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인물은 유병택(兪炳澤) 당시 인천시장인 듯하고, 비가 오는지 우산을 받쳐 든 채 티 그라운드 주변에 둘러선 갤러리들은 복장으로 보아 대부분 행사에 참석한 지역 인사와 시장을 수행한 공무원들, 그리고 골프장 관계자들인 것 같다. 사진 왼쪽에 옆으로 고개를 돌린 흰색 티셔츠의 인물은 이 골프장 전속 프로 골퍼로 보인다.

‘서곶골프장’으로 표기된 이 골프장은 1969년 3월, 18홀 규모의 토목공사에 착수하고 애초 1970년 2월 5일, 부평 시사이드골프클럽으로 발족하여 같은 해 8월 6일 개장했다가 1985년 1월 21일 인천국제컨트리클럽으로 바뀌어 오늘날 회원 1740명에 이르는 경인지역 주요 골프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골프장이 위치한 서구 경서동 177-1번지 일대는 그야말로 귀족 스포츠와는 도대체 거리가 멀었던 시골 산야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특기할 것은 골프장 안에 국가 사적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골프장이 건설되어 있어 마치 절해(絶海)에 뜬 고도(孤島)처럼 되어 있다. 애초 녹청자도요지 발굴이 1965년도 인천시립박물관사업으로 시작되어 1966년 5월 7일까지 4차에 걸쳐서 시행되었음을 볼 때 어떻게 뒤늦게 거기를 둘러싸고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시민 체육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 골프장이 생기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로되, 사적지가 골프장 그린에 사방 포위되어 오늘날처럼 숨도 쉬지 못하게 된 것은 펍이나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골프장 시설 전에 이미 슬기로운 조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이다. 반세기 전에 찍은 “서곶골프장 준공식”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것이 우리 내면에 배어 있던 ‘문화 의식’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3) 백석동 그린벨트 감시초소

‘독재의 산물’이라는 혹평 속에 ‘금단의 땅’이라고 불리던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감시초소! 이 사진을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중에 그린벨트 보존 정책은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전에 어떤 사람이 하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이런 개념은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1971년 12월 29일에는 부산, 수원, 안양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대구는 1972년 4월에 지정할 것이라고 당시 신문은 보도한다. 그러나 8월에 들어 수도권에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하면서 대구와 인천에도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고 당시 8월 25일자 매일경제 신문은 전한다.

그러나 두산백과사전 기록에는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 망라한 68.6㎢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라고 되어 있다. 어쩐 일인지 인천은 제외되어 있다. 아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속에 통으로 묻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린벨트 지정은 해당 토지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자기 소유 토지라 해도 당장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따위 같은 토지에 대한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때문이다.

그러니까 1970년대 당시 전 국토의 5%가 넘는 땅이 그린벨트로 묶인 상황에서 토지주들이 반발심이 컸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 증축, 벌채, 개간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시초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1972년 2월 18일 서울시는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 43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감시원 106명을 배치하여 이날부터 감시에 들어갔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보인다.

다만 인천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린벨트 감시초소 사진을 촬영한 연도가 197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72년 8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무허가 가건물 건축, 무단 개간, 무단 벌채, 녹지대 불법 훼손이나 개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감시초소를 설치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사진 속의 감시초소는 그린벨트를 감시하는 용도라고 말



| 백석동 그린벨트 감시초소

하기에는 주변 경관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리 보아도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나 보게 되는 방갈로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정말 방갈로를 얻어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초소를 제작하던 목수가 지나치게 멋을 부린 것인지....

사진 속의 이 지점을 정확히 어느 곳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벽해상전(碧海桑田)의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과연 이곳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는 감회뿐이다.

4) 객토 작업



| 객토작업

인천광역시 옛 사진첩 속에 들어 있는 사진이다. 사진 제목이 ‘객토 작업’이라고 되어 있다. 직접 작업하는 광경은 농치고 이렇게 객토가 끝난 논이나마 찍어서 농정(農政) 시행의 증거로 두려 했던 모양이다. 1973년도의 일인데, 객토는 농작물의 수확이 완전히 끝난 뒤에 하니까 아마도 그해 겨울 풍경이 아닌가 싶다.

1973년이면 미곡 증산이 최대 과제의 하나였을 때였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행정 당국이 객토다 뭐다 직접 나서 온 정력을 쏟을 때이니 이런 무뚝뚝한 제목 밑에 논바닥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일은 당연했으리라.

이 사진은 서구문화원에서 펴낸 『인천서구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화보집에도 실려 있다. 인천시와 달리 이 화보집에는 “농지 객토 작업을 해 놓은 검암동 마을(빈정네 뜰)이 보이며 뒤편으로 허암산이 보인다. 당시 논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황토와 퇴비를 뿌리는

객토 작업을 실시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지역 토박이 박한준 전 서구문화원 원장의 성의일 것이다.

아무래도 오늘날 이 사진을 읽는 시선(視線)은 두 가지일 듯싶다. 나이가 연만한 층은 “아, 이런 시절이...!” 하며 감회에 젖어 오래 오래 사진을 들여다볼 것 같고, 젊은 층은 “뭐 이런 케케묵은 옛날 고리짝 사진을 다.... 하며 덮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기가 요즘 아이들은 버를 ‘쌀나무’라 이른다고 하지 않던가.

글을 쓰는 사람도 전자(前者)에 가까워 필경 감회에 젖는다. 사진 속 마을이 꼭 나고 자란 마을이어서가 아니라 그 만큼 논밭의 정서가 골수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인천 어디에서든지 오히려 바다보다 논밭을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그때는 누구나가 다 말 그대로 오로지 ‘흙에 매달려 흙의 자식’으로 살았던 까닭이다.

한두 채 기와집이 끼어 있기는 해도 고만고만한 키로 모여 선 정감(情感) 어린 초가집들, 그리고 탁 트인 마을 앞 무논들! 날씨가 추워서인지 뛰노는 개구쟁이 하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풍경 자체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돌게 한다. 야트막한 산자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이 내리는 대로 땅이 주는 대로 참 겸손하고 순하게 오순도순 살아가던 옛 마을이여, 옛 시절이여!

논 한가운데 패인 두 줄 긴 소달구지 바퀴 자국은 틀림없이 객토용 ‘황토’와 ‘퇴비’를 실어 나르며 생겼을 것이다. 소를 끌던 그때의 사람도 달구지도 모두 사진 밖으로 나가 사라지고 없다. 우리의 옛날은 이렇게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속절없이 지나가 사라지고 만다.

5) 백석동·독정사거리 고갯길 낮춤 공사



| 백석동·독정이 도로 낮춤 공사

이 사진은 1973년도 인천시 ‘시정현황(市政現況)’ 사진의 하나로 시가 촬영, 보관해 오던 것이다. 요즘에야 사진을 현상하지 않고 직접 컴퓨터로 처리하니까 보관이나 색인이 훨씬 간편하지만, 이 무렵은 촬영한 필름을 일일이 현상한 후 수작업을 통해 앨범에 붙여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이 사진도 검은 표지에 속종이가 누르스름한 앨범에 붙여 두었던 것으로 보관이 잘 되어서 단편적이기는 해도 말 그대로 과거 인천의 ‘시정현황’ 혹은 ‘서구의 지난날’을 추억처럼 떠올리게 한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눈 깜짝할 새에 변해 버리는 마을과 시가지 풍경을 실물로 되살리고 추억할 수 있는 수단인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시정의 이모저모를 촬영해 보관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진에 붙어 있는 설명은 “당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서구와 김포의 경계였던 백석동과 독정사거리 일대의 고갯길을 낮추는 공사 장면”이라고 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삶을 여러 면에서 바꾼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다.

이 사진의 특징이라면 높은 사람 위주의 전시용 사진이 아니라 순전히 주민들이 합심해 일하는, 공사 장면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오히려 친근감 같은 게 더 느껴진다는 점이다. 두레처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공사에 참여한 것 같다.

인물들의 의복 입은 것이나 주변 논밭, 산언덕 풍경을 보면 양력 3월 초순 무렵같이 생각된다. 남자들 복색은 이렇다 할 특색이 없으나 여자들은 예외 없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다. 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대로 여성들의 머릿수건은 우선 청결과 위생을 위한 것이지만, 이런 추운 시기 노천에서는 우선 방한과 더불어 형크러짐 방지, 머리에 내려앉는 먼지 방지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점에서 우리 여인들의 일상 활동모, 작업모라고 할 수 있다.

작업 광경을 보면 남자들은 일선에서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가래질을 하고, 여인들은 2선에서 삽질을 하고 있다. 기계 도구 하나 없이 공사가 거의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끊임없는 육체적 노동 때문에도 당시에는 비만 인구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당시 이 노역에 참가해 수고하시던 분들은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셨을 듯싶다. 묵묵히 내 고장 서구를 위해 땀 흘리신 그분들의 수고가 오늘의 서구, 인천,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6) 청라도 위문 방문

지금은 ‘청라경제자유구역’이니 혹은 ‘청라지구’ 따위의 명칭으로 남은 옛 청라도(靑羅島)는 서구에 속한 섬이었다. 정확히는 서구 경서동에 편입되어 있었다. 1986년 동아 매립지 조성 사업에 휩쓸려 매립, 평지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함께 없어진 섬들이 장도, 일도, 무점도, 창금도, 울도 등이다. 섬 이름이 매우 맑고 고운 느낌을 주어 학생 시절부터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지도 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하늘도 땅도 인간의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랴.

해발 47.7m 높이의 등성과 면적 0.79km², 해안선 길이 5km의 작은 섬이었다. 갯벌과 주변의 염전 등 인천 특유의 섬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는 청라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변해 버린 오늘날의 ‘청라지구’는 우선 눈에 띄는 게 마천루 같은 아파트들뿐이다.

아래 사진은 “1974년 4월 3일 인천시 관계자”들의 청라도 주민 위문 방문을 촬영한 것이다. 50여 세대, 260여 주민이 살고 있던 이 작



| 청라도 위문 방문

은 섬은 당시 물과의 연결 교통수단이라고는 18톤짜리 배 해진호가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고작이었다. 인천항에서 불과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의 섬이었지만 낙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市)의 높은 사람들이 위문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위문이라는 말은 인천시가 발행하는 『곳모닝 인천』 편집장 유동현 씨가 붙인 사진 설명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고위층이 청라도를 위문 방문한 데에 혹 다른 무슨 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 『인천시사』를 뒤지고 연표(年表)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유 편집장의 설명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방문이 있는 꼭 4개월 후인 1974년 8월, 청라도에 선착장이 신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이 방문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사진 속에는 등성이가 보이고 그 아래 몇 채 초가집들이 이것이 섬 생활이라는 듯 남루한 자태로 엮드려 있다. 왼쪽 끝으로 바다가 아주 조금 보인다. 사진 속 인물들은 누가 누군지 분명한 확인이 어려운데 맨 앞에서 걸어가는 검은 안경을 쓴 분이 정규남(鄭奎南) 당시 인천시장인 듯하다. 사진 중앙, 앞에서 조금 뒤쪽에, 경사 길을 걸어 올라오면서도 앞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신, 머리칼이 바람에 날린 채 흰 바바리 상의를 입은 분이 그 시절 인천시정자문위원장이셨던 신태범(愼兌範) 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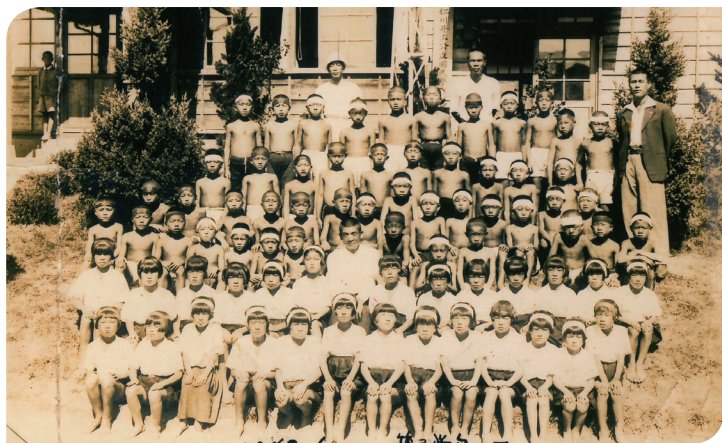
지금은 흔적도 살필 수 없는 과거! 산천의구(山川依舊)를 누가 말했는지..... 우리의 삶은 오직 소용돌이치듯 급격히 돌아가는 변화의 반복 속에 있을 따름이다.

3. 교육과 행정

1) 서곶국민학교와 임갑선 선생님

“1929년 8월 24일 인천서곶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1930년 1월 20일 2개 학급으로 개교했다. 1938년 4월 1일 인천서곶공립심상소 학교로 개칭되었고, 1940년 4월 1일 인천이노우에(井上)공립심상소 학교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1941년에 인천이노우에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지금의 인천서곶초등학교이다.”

이것이 『인천시사』에 보이는 연희동 서곶국민학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86년의 연륜을 가진 학교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 1940년 4월 1일자로 학교명을 ‘이노우에(井上)’로 개칭한 것은 일제가 바로 같은 날짜에 이곳 지명을 ‘이노우에마치(井上町)’로 개명했기 때



| 1942년 서곶국민학교 3학년 체육시간 후 교정 앞 기념사진

문이다.

이 사진은 서구 주민 이종창 씨라는 분이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에는 “1942년 인천이노우에공립초등학교 3학년 체육시간 후

교정 앞에서 기념사진. 이종창 씨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중앙 시바 다시구루(紫田卓) 선생, 맨 뒷줄 우측은 구리우시노스케(栗牛之助) 교장 선생과 우측의 양복 입은 분은 하야시 임갑선(林甲善) 선생님의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이노우에공립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좀 이상할 터인데, 당시 서곶 연희동 지역을 일제가 저들 식으로 ‘정상정(井上町)’ 곧, ‘이노우에마치’로 불렀기 때문에 학교 이름도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광복 후 우리 명칭인 ‘서곶’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사진 속 어느 학생이 이종창 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줄에는 여학생들이, 그리고 뒷줄에는 위통을 벗은 남학생들이 서 있다. 모두 머리에 띠를 매고 있다. 띠가 청백인지 혹은 홍백인지 사진 자체가 흑백이어서 구별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은 언뜻 1950년대 필자의 초등학교에 시절에 있었던 운동회 날 풍경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이 같은 일본식 교육 잔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근대 교육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문제는 사진 속의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 ‘하야시 임갑선’이라는 인물이다. 이분이 필자의 고모부이셨기 때문이다. 하야시라는 것은 고모부의 성씨가 임(林) 씨였기에 일본식으로 그렇게 불렸을 것이다. 고모부는 1970년대 초 주안초등학교 교장 재직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하셨는데 김포 서암국민학교 교장 시절에는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의 은사이시기도 했다. 현 부평향교 전 교이신 정인표(鄭寅杓) 선생님보다는 선배가 되신다.

약주를 즐기셨고 호인이신 데다가 남자로서는 특이하다고 할 만큼 피부가 희고 용모 또한 뛰어나셨다. 무척 개방적이셔서 남자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동갑내기 사촌과 내게 마작(麻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고, 또 어찌다 명절 때 뵈면 용돈을 나

뉘 주시고 둘러앉아 화투내기를 함께 하시기도 했다.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화보집을 들추다가 내 고모부 옛 모습을 발견하다니! 전혀 모르고 있던 고모부의 ‘서곶국민학교’ 교편생활의 한 단면을 보며 문득 세상에 계시지 않는 선대들 생각이 나 목이 맨다.

2) 고려중학교



| 고려중학교

사진은 현 서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인 과거 고려중학교의 모습이
다. 근 60여 년 전의 학교다. 고려중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서구문화
원 에서 발간한 옛 화보집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나와 있
는 사진 설명으로 대신한다.

“고려중학교는 1950년대 검암동의 소금 야적장에서 인천영화중
학교(당시 시천동 류철회 님 재직)로 개교하여 한때 농민학교를 거
쳐 50년대 중반 수원에서 개교를 준비하던 고려중학교(초대 교장 신
응섭)를 1958년 인수하여 개교하게 되는데 당시 서곶지역 유지들
(심덕기, 박금한, 이훈익)이 뜻을 모아 현 서인천고등학교 자리에 고
려중학교를 세웠다. 심덕기 님(인천시의회 2대 의장)은 1950년 당
시 검암동에 사유지 3만여 평을 기부하여 영화중학교를 건립하고 육
영재단 선진학원 이사장을 맡았고 교장은 신응섭 님이 맡았었다. 그
후 검암동 출신 정광근 이사장이 인수하여 운영하며 교명을 서인천
중학교로 이어오다, 1957년 인광중학교(유한순 교장)로 교명을 바

꾸고 개교한 후에 1984년 서인천고등학교(홍성한 교장 겸 이사장)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설명을 들으면 고려중학교 전신은 사설 농민학교인 인천영화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수원의 고려중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것은 인천영화중학교의 등장이다. 동명(同名)의 학교가 동구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 궁금한 것은 『인천시사』 교육편에 이 검암동 소금야적장에서 개교한 인천영화중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심덕기 님의 영화중학교가 고려중학교를 인수하면서 교명을 고려중학교로 개명했다가, 이 학교를 다시 정광근 님이 인수하여 서인천중학교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인광중학교로 개명하여 오다가 결국 서인천고등학교로 마지막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이 되는데 『인천시사』에는 오로지 동구에 있던 또 다른 인천영화중학교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근래에 발간된 『서구사』에도 이런 기록은 없는 것이다.

서인천고등학교는 1984년 11월 30일 인광학원 인광중학교(1969년 9월 29일 인가)를 학교법인 정파학원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인가를 받는다. 이 서인천고등학교는 한때 인천 서구의 명문으로 수많은 우수 학생들을 배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구의 인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서구 지역에 유독 우리나라 교육 선구자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명맥이 이 고려중학교로 이어져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구에는 이 학교 외에도 유명한 사설 교육기관이 여러 곳 있었다. 역사 오랜 문중, 충렬대신, 선비, 교육 선구자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난 것은 서구의 경개가 좋고 산정기가 깊고 뛰어난 까닭이 아닐까?

3) 인광중학교

고려중학교를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듯 언급한 인광중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앞선 고려중학교에 대한 소개는 인천서구문화원에서 옛 서구 사진을 모아 발간한 화보집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인용한 바 있는데, 재차 요약하면, 고려중학교는 1950년대 검암동 소금 야적장에서 개교한 인천영화중학교(이 학교는 한때 농민학교로 불리기도 했다.)가 당시 수원에서 개교를 준비하던 고려중학교를 인수 합병하면서 탄생한 학교다. 그러니까 1958년에 수원의 고려중학교를 인수할 당시 기존의 검암동 학교명인 ‘영화중학교’를 버리고 수원 학교명인 ‘고려중학교’를 사용한 것이다.

이 학교는 그 후 다시 검암동 출신 정광근 이사장이 인수, 운영하면서 교명을 서인천중학교로 개명하여 오다 1957년 인광중학교로 또 다시 개명한 후, 1984년 재단이 바뀌면서 서인천고등학교로 또 한 번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그러니까 최초의 학교 격인 인천영화중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시사』나 『서구사』에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소개가 전혀 불가능했고, 서인천중학교나 인광중학교에 대해서도 별다른 자료를 갖지 못해 그냥 지나쳤는데,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귀중한 인광중학교 사진이 한 장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이 사진은 현 서구문화원장인 정군섭님께서 보관하시던 것이다.)

거기에 『인천시사』에 “서인천고등학교는 1984년 11월 30일 인광학원 인광중학교(1969년 9월 29일 인가)를 학교법인 정파학원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동시에 서인천고등학교(남 3, 여 4, 합계 7학급)로 인가 받았고” 하는 언급이 있다.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옛 중학 시절 회상에 젖어 시쳇말로 ‘심쿵’



| 인광중학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인광중학교라는 교명이 27년간이나 존속되어 왔으니, 비록 학교가 시내처럼 인구가 많은 번잡한 곳에 있지 않았다 해도 서구 지역 주민 중에는 이 교명의 배지를 달았던 졸업생의 숫자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진을 보면 교정이 매우 아담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 입구에 설치된 돌 축대의 가지런한 모양이나, 하천을 끼고 동그랗게 전지(剪枝)가 된 회양목인 듯한 나무들의 정렬이 아주 단정하다. 오른쪽으로 이어진 무성한 가로수 길이 시원하고 이별 좋은 봄날, 잔디밭 정원이 아주 고요하다. 별거숭이 뒷산보다 교정에 나무가 더 많은 이런 아름다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던 사람들이 모두 부럽다.

지금은 이런 “방첩 및 승공사상 계몽기간” 따위의 현수막이 교정에 걸리지는 않는 시대이지만, 사진 속의 “1970년”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이 일어난 2년 뒤이니 남북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었던 무렵이어서 이 같은 현수막이 게시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 2년 뒤인 1972년에는 남북 관계가 다시 극적으로 반전해 남북한 당국이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역사적인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4) 1930년대 중반의 서곶면사무소

행정적인 의미에서 인천에 서구가 탄생한 것은 1940년 인천부(仁川府) 제2차 부역 확장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한국을 병탄한 일제는 1914년 4월 1일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등 12개 지역에 부제(府制)를 실시, 지방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인천의 경우는 주로 개항장과 그 주변 지역만을 인천부 관할 지역으로 남기고, 그 외의 지역은 부평군 전체와 함께 묶어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하여 관할케 한다. 부천군은 부평에서 ‘부’ 자를 인천에서 ‘천’을 따 명명한 것이다.

인천은 당시 부내면(府內面), 다소면, 구읍면, 서면, 남촌면, 조동면,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 주안면, 영종면, 덕적면 등 13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조치로 인해 부내면과 다소면 일부 지역만 남게 된다. 이후 인천부는 도시 팽창과 일제의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에 의해 몇 차례 확장되는데, 특히 1936년 10월 1일 인천부역 개편 때에는 부천군 문학면의 일부와 다주면이 편입되고, 1940년 4월 1일 제2차 부역 확대 때에는 다시 문학면의 일부와 서곶면 그리고 부내면(富內面)이 새롭게 인천부에 편입되게 된다. 서곶면사무소는 당시 지명으로는 정상정(井上町), 즉 지금의 연희동 247-2번지 연희진(連喜鎭) 자리에 자리잡는다.

그러면서 일제는 인천부에 새로 편입된 지역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같은 날 출장소(出張所)라는 행정 기구를 두는데, 이때 설치된 출장소가 부평, 남동, 그리고 서곶출장소였다. 문학출장소는 이보다 늦은 7월 10일에 증설된다.

사진은 이 지역 출신 소설가 이원규 씨가 보관하고 있는데, 촬영 연대가 1930년대 중반 무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940년 이전으로 아직 ‘서곶출장소’는 아닌 것이다. 사진 속 인물들의 두발이나 의복

모습으로 보아 일제시대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기념 촬영 비슷한 사진을 남겼는지는 이 씨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사진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이원규 씨의 선친인 고 이훈익(李薰益) 선생임을 알 수 있다. 이 선생은 서곶 토박이로 광복 후에도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서곶출장소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은 분이다. 후일 인천향토사 연구에 매진하여 『인천충효록』, 『인천지지(地誌)』, 『서구향토지』, 『인천의 지명유래』, 『인천의 성씨인물고』, 『인천금석비명집』, 『근세인천지방의 전란사』 같은 저서를 남겼다.



| 1939년 서곶면사무소 직원 단체사진

5) 북구서곶출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의 대부분 지역은 옛 부평도호부 관할 지역이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서구의 탄생은 1940년 인천부(仁川府)의 제2차 부역 확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제 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일제는 지방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그 요점은 인천, 경성(京城) 등 전국 12개 지역에 부제(府制)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인천의 경우는 주로 개항장과 그 주변 지역만을 인천부(仁川府) 관할 지역으로 남기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부평군 전체와 함께 묶어 새롭게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하여 관할케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천은 1912년 당시 부내면, 다소면, 구읍면, 서면, 남촌면, 조동면,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 주안면, 영종면, 덕적면 등 13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때의 폐합으로 부내면과 다소면의 일부 지역만 남게 되었다. 이에 비해서 신설된 부천군은 인천과 부평 지역 이외에도 강화군의 신도, 실도, 아도, 장봉도를 포함하여 남양군의 대부면과 영흥면을 관할하는 거대 군(郡)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인천부는 도시 발전과 일제의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는데, 특히 1936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인천 부역의 개편 시에는 부천군 문학면의 일부와 다주면이 편입되었고, 1940년 4월 1일 시행된 제2차 부역 확대 때에는 문학면의 일부와 서곶면 그리고 부내면이 새롭게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서구의 행정구역 변천에 관련한 『인천시사』의 기록을 옮겨온 것이다. 일제가 인천의 행정 구역을 그때그때 자기들 구미에 맞게 변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천부역에 포함된 광활한 지역의 행정 관리를 위해 일제는 출장소(出張所)라는 기구를 둔다. 즉 인천부는 1940년 4월 1일 인천부고시 제32호인 「인천부출장소규정」에 의거 부평출장소와

남동출장소 그리고 서곶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중 서곶출장소는 지금의 연희동 지역에 설치되며 12개의 동(洞)을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곶출장소가 광복 이후인 1945년 11월 15일 잠시 서곶지청으로 불리다가 1967년 3월 30일을 기해 인천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는 북구 관할의 서곶출장소가 되는 것이다.

“법률 제1919(67. 3. 30)호로 인천시 구제(區制) 실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남구·북구·동구 4개 구청을 설치하고, 종래 출장소는 폐지하였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로 남구 관할의 남동출장소와 북구 관할의 서곶출장소만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이 역시 『인천시사』의 기록인데 ‘남구 관할의 남동출장소와 북구 관할의 서곶출장소만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것은 일단 공포된 법률에 의해 일괄 폐지했다가 이 두 곳만 다시 설치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행정 관할 구역이 너무 광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이들 출장소가 있는 지역은 전통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넓은 지역에 마을이 산재해 있어 구청 하나로서는 행정 수요 관리상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것이다.

사진 속의 건물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듯 ‘북구서곶출장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이 출장소는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데 이어 1988년 북구로부터 서구가 분구되어 서구청이 문을 열 때까지 존속했다.



| 서곶출장소

김윤식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Chapter IV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북서곶의 문화유산

1. 지정문화재
2. 비지정문화재

IV. 북서곶의 문화유산

인천의 문화재는 2017년 11월 현재 지정·등록된 것으로 총 263점이 있다. 이들 중 참성단, 강화지석묘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68점, 인천도호부청사, 부평도호부청사 등 시 지정문화재가 188점, 공화춘 등 등록문화재가 7점이다. 이들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 식물(4), 천연기념물(14)과 명승(1), 무형문화재(34) 등 53점을 제외한 총 210점 중 조선시대 문화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유형화해 보면 묘지를 포함한 생활사 관련 문화재가 가장 많고, 돈대 등 관방유적과 사찰 등 종교유적, 교육 및 기타유적 순으로 정리된다. 문화재는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또 지정되므로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 시기마다 집적되는 현황을 통해 이 시대의 문화인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서구의 연원은 석곶(石串)면과 모월곶(毛月串)면을 합친 ‘서곶(西串)’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계양, 부평과 함께 모두 옛 부평도호부 관할 지역으로 지형적으로 한강이나 바닷가와 밀접하여 교통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행정적 의미에서 서구의 탄생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인천부(仁川府)의 제2차 부역 확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1968년 출장소를 폐지하고 구제(區制)를 실시하면서 부평·서곶출장소를 통합하여 북구가 되었고, 1988년 북구에서 새롭게 서구가 분구되었던 곳이다.

서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현재 93점의 문화유산이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북서곶에 남아 있는 지정문화재는 인천 최초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던 경서동 녹청사도요지와 유형문화재인 심즁신도비, 기념물인 류사놀 묘와 허암 정희량 유허지 등 4기이고, 연희진과 포대 터, 공촌동의 청송심씨 묘역 등 지정되지 않

은 문화재가 40기에 이르고 있다.

서구는 검단지역개발과 매립을 통해 청라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문중의 묘역 등 오래된 문화유산들이 발굴되어 이전된 것도 있고, 신도시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존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지역민의 관심과 손길을 통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이야기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서구와 북서곶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북서곶은 현재 행정동인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3동 지역으로 법정동인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등을 포괄한 공간이다. 여기에 남아 있는 지정·비지정문화재 41기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국가 지정의 사적(1), 시 지정 유형문화재(1)와 기념물(2), 유물산포지(17), 국방유적(3), 묘지(7), 사찰(2) 및 기타(8)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1) 사적

(1) 인천 녹청자 도요지(綠靑磁 陶窯址)

- 지정 : 사적 제211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39-21



녹청자란 자기를 만드는 흙에 모래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친 태토 위에 녹갈색 유약을 발라 구운 자기로 녹갈색을 띠고 있으며, 구운 후 공기가 많이 생겨 유면이 고르지 못한 조질의 자기를 말한다. 1970년 인천 최초로 사적으로 지적된 인천 녹청자도요지는 자기를 굽던 가마가 1개인 단실요로서 길이 7.3m, 폭 1.05m, 아궁이 폭 1.2m로 네 차례(1963~1966)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가마의 형태가 칸이 없는 통가마로 밝혀졌다. 동남향으로 자리 잡은 가마의 경사도는 20도 가량인데, 이 경사를 따라 자기를 굽기 전에 그릇의 굽이 가마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배려한 제조법이 독특하다.

이 녹청자도요지에서는 대접·접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배기·반구장경병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출토품은 모두가 문양이 없

고, 유약을 굽어 장식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 유약의 빛깔은 녹갈색과 암녹색으로 불투명하고 광택이 없으며, 표면에 반점 같은 것이 있으나 이는 유약의 성분, 가마의 특수구조, 소성(燒成) 온도 등의 영향 하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에서는 녹청자도요지의 홍보를 위해 2002년 구 경서동 동사무소 건물에 녹청자 사료관을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녹청자에 대한 정보와 도자기 실습 등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는데, 2012년 2월 녹청자박물관으로 확장되었다.

2) 시 유형문화재

(1) 심증 신도비(沈楫 神道碑)

- 지정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2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 8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인 심증(1569~1644)의 자는 자순(子順), 호는 남애(南崖),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7살에 시를 써 세상을 놀라게 했고, 28세 때인 1597년(선조 30)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형조·공조·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공주로 옮겼는데 왕을 호위한 공으로 호종공신(扈從功臣)이 되었다. 심증의 묘는 본래 시흥에 있었으나 근래에 지금 자리로 이장하였으며, 신도비도 그 때 함께 옮겼다. 신도비는 높이 1.9m, 너비 0.85m, 폭 0.53m의 크기이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홍봉조(洪鳳祚)가 썼으며, 유척기(兪拓基)가 새겼다.

3) 기념물

(1) 류사눌 묘(柳思訥 墓)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00-1



류사눌(1375~1440)은 문화류씨 중시조로서 자는 이행(而行)이다. 시호는 문숙(文肅)으로 류임(柳臨)의 아들로 태어났다. 3세 때 아버지 류임이 홍건적을 토벌하다가 순절하였고, 14세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는데, 숙부 류관(柳寬) 밑에서 학문에 힘써 경전에 밝고 문장에도 능했으며 특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16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18세 때인 1399년(태조 2)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고, 1407년(태종 7)에 문과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1409년(태종 9)에 사간원의 집의로서 태종의 비 문경왕후의 동생들인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을 탄핵하다가 황해도 안악지방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사간원으로 복직되고 1416년(태종 16)에 지신사(知申事)에 제수되었다. 홍주목사, 함길도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 한성부윤 등을 역임하

고, 1428년(세종 10)에 예문관대제학으로서 명나라에 진하사(進賀使)로 파견되었다.

특히, 예문관대제학 재직 시 악학제조(樂學提調)를 겸하여 『아악보(雅樂譜)』 서문을 찬하기도 하였다. 1434년(세종 16)에는 『진작가사(眞雀歌辭)』를 찬하여 『제악부(諸樂府)』에 실는 등 박연과 더불어 아악 정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1436년(세종 18)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거쳐 이듬해에 다시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다.

문화류씨 묘역에는 모두 6기의 묘가 있는데, 가장 위쪽에 류사눌의 묘가 있다. 묘는 쌍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류사눌과 강릉유씨의 합분이고, 다른 봉분은 후처인 창녕성씨의 묘이다. 묘에는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이 있고 후대에 설치한 묘비, 상석·문인석 각 1쌍, 장명등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1971년에 건립한 것이다. 류사눌 묘 아래에는 두 개의 묘가 있는데, 하나는 사눌의 3자인 희생(喜生)의 묘가 있고 묘갈이 있다. 묘갈은 마모가 심하여 ‘희생지묘(喜生之墓)’라는 글자만 판독된다. 묘갈의 크기는 가로 38cm, 세로 110cm, 두께 18cm이다. 그 옆에는 경생(更生)과 부인 인천이씨의 합장묘가 있다. 맨 아래에도 두 개의 묘가 있는데, 하나는 경조(敬祖)의 장자인 영석(永錫)의 묘가 있고, 그 옆에는 경조(경생의 장자)와 부인 양주조씨와 부여서씨의 합장묘가 있다.

(2) 허암 정희량 유허지(虛庵 鄭希良 幽虛址)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61-5



연산군 때의 문신 정희량(鄭希良)이 칩거하던 집터로 『부평부읍지』 고적조에 “허암구지(虛庵舊址)는 모월곶면 허암산 밑에 있는데 한림학사 정희량이 복거(卜居)하면서 호를 허암이라 하였고 뒤에 종적을 감추어 생을 마감한 곳을 알지 못 한다”고 하였는데, 호인 허암(虛庵)은 허암산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정희량의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 본관은 해주로 1469년(예종 1)에 철원부사 정연경(鄭延慶)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1492년(성종 23)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종이 승하하자 정희량은 상복을 입고 성균관 유생들을 거느리고 ‘성종을 위해 불사(佛事)를 한다’는 글을 지어 올렸는데 이 글이 문제가 되어 귀양갔다가 얼마 뒤에 풀려났다.

1495년(연산군 1)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이 되었다가 연산군에 관한 상소를 올린 죄로 귀양 갔다. 1496년(연산군 2)에 김전(金鉉), 신용개(申用溉), 김일손(金日孫) 등과 함께 사가독서의 특혜를 받을 정도로 문명이 있었다. 다음해에는 선무랑행예문관봉

교(宣務郎行藝文館奉教)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때 신용개, 김전 등과 함께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윤필상(尹弼商) 등의 탄핵을 받아 장(杖) 100대, 귀양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귀양갔다가 다시 김해로 옮겨졌다. 이때 모친상을 입었고, 1499년(연산군 5)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양의 모친묘소에서 시묘한 뒤 종적을 감추고 허암봉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2. 비지정문화재

1) 유물산포지

(1) 백석동 유물산포지

백석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신석기~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2-2, 산59-2 일대

골막산 남쪽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공촌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으로 2km정도 가다 보면 좌측으로 봉수대길과 만나게 되는데, 이 봉수대길을 따라 500여m 가다 보면 왕길고가차도가 나온다. 이 고가차도를 못 미쳐 오른쪽에 황룡사라는 신축 절이 보인다. 이 절 남동쪽의 경작지에서 즐문토기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백석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471-1 일대

등그재산에서 남동쪽으로 뺀어내린 능선 말단부에 위치하며,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백석중학교와 백석고등학교 사이에 난 길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나지막한 능선이 보인다. 능선 일대와 능선의 남서쪽 일대 경작지에서 백제의 토기편,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백석동 유물산포지 ③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89, 산26-1, 산28-3 일대

한진고등학교 북동쪽 일대의 경작지와 해발 41.5m의 구릉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구릉의 남서쪽 일대는 현재 묘목밭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묘목밭 및 공장의 조성으로 지형이 일부 훼손되긴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래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도기편,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 백석동 유물산포지 ①



| 백석동 유물산포지 ②



| 백석동 유물산포지 ③

(2) 시천동 유물산포지

시천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산12-8

검암 2지구 동편으로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 이 마을 내 굴포천 도로변의 구릉 남안에 위치한다. 꽃매산의 북동편 능선 남안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시천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3-1

시천동의 서구와 계양구 경계 부분에는 꽃매산이 위치한다. 꽃매 주말농장 북편의 능선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과거에는 논으로 사용되다가 밭으로 전환된 곳이라고 한다. 과거의 조사에서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 시천동 유물산포지 ①



| 시천동 유물산포지 ②

(3) 검암동 유물산포지

검암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55 일원

공촌 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으로 500여m 가다 보면 좌측으로 대인고등학교가 보인다. 고등학교의 뒤편으로 난 소로를 따라 200여m 가다 보면 허암산에 이르게 된다. 허암산 북동쪽 능선 일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동쪽 해발 40m 정도의 곡간부에서 고려 시대 분묘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청자 3점과 청동합 1점, 청동수저 1점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은 대략 13세기경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묘에서 수습된 청자는 지방가마에서 구운 중하품에 속하는 것이지만 항(缸)이라는 보기 드문 기종으로 청자에서 분청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검암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청동기~고려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55-2임

허암산 남서곡간부의 경작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돌끌 1점과 고려시대 도기편과 자기편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고 한다. 수습된 돌끌의 폭은 약 5cm 정도의 외날로 몸통 부분은 결실된 채 수습되었다.



| 검암동 유물산포지 ①



| 검암동 유물산포지 ②

(4) 경서동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신석기~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81임, 산182임, 산183임, 산159임, 237전 일대

경명로와 중봉로가 만나는 지점의 북측능선의 발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경서지구토지구획사업이 진행되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삼국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34전, 248, 233, 232 일대

경서동 고잔마을 동쪽에 위치한 해발 30m 내외의 구릉과 구릉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능선 일대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구릉의 남쪽과 서쪽 사면의 구릉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서쪽 사면의 말단부는 경서지구토지구획사업으로 인하여, 북쪽 사면은 골프장이 조성되어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조사에서 어망추와 회청색 경질토기편, 자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③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00, 202, 204임 일대

경명로를 따라 인천 서부지방 산업단지를 지나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인터체인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경명로와 신공항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해발 50m 정도의 구릉이 있다. 유물은 류사눌 묘가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의 경작지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구릉의 동쪽 사면 외의 구릉은 도로 개설 및 골프장의 건설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 경질토기 및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④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2전, 53전, 61전 일대

사적 제211호인 인천녹청자도요지와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으로 연희동 방면에서 봉수대길을 따라 강화도 방면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골프장으로 가는 4거리가 나온다. 유적은 이 사거리의 좌측의 밭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⑤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25, 426, 427, 428 일원

경서동 유물산포지 4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가다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의 우측으로 나지막한 구릉이 보인다. 유물은 구릉의 남쪽 사면을 개간하여 만든 밭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 경서동 유물산포지 ①



| 경서동 유물산포지 ②



| 경서동 유물산포지 ③



| 경서동 유물산포지 ④



| 경서동 유물산포지 ⑤

(5) 연희동 유물산포지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19, 122, 126, 127 일대



봉수대길과 경명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100여m 가다 보면 좌측으로 구릉이 나타난다. 구릉은 동-서의 방향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동쪽의 구릉과 서쪽의 구릉에서 유물을 수습하였다. 유물은 능선의 정상부에 조성된 경작지에서 주로 확인되며 서쪽 능선 일부 발에서도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도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6) 청라도 유물산포지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 251, 산 252 일원



청라도는 해발 70m 내외의 구릉 2개가 연결하여 구성된 섬이다. 섬의 서쪽은 매립되어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이, 남쪽으로는 이도, 북쪽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다. 청라도 사면 말단부에는 민가 및 소규모 공장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사면 중간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원 지형이 일부 훼손되었다. 유물은 청라도 전체 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7) 이도 유물산포지

- 시대 : 삼국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49, 509-10임, 672번지 일원



이도(耳島)는 청라도 남서쪽에 인접해 있는 소규모 섬으로 청라도와 작은 소로를 경계로 구분된다. 섬의 서쪽은 실버타운과 쓰레기 소각장 등의 건설로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청라도와 연결된 북쪽 및 동쪽의 능선은 공장부지의 조성으로 상당부분 절개되었다. 구릉의 정상부는 송전탑이 세워지면서 일부 훼손되었다. 유물은 구릉의 동쪽 사면 말단부의 절개면 및 경작지에서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 적갈색연질의 타날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8) 소문침도 유물산포지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55임



소문침도는 청라도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8.5m 가량의 소규모의 섬이다. 섬 주변은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섬의 북쪽 사면은 다소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 사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과거의 조사 당시 소문침도 동쪽에 수로공사를 하면서 절개된 부분에서 소규모 패각층과 함께 백자 등의 유물의 수습되었다.

(9) 장금도 유물산포지

- 시대 : 삼국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56임 661, 662번지 일대



장금도는 청라도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15m 내외의 섬이다. 장금도는 원래 2개의 독립된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섬의 일부를 삭평·매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었다. 동북쪽에 위치한 풍화암반층 위에 적갈색 점토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남서쪽에 위치한 구릉은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동쪽의 사면 일부가 절개되었는데 이 절개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공장부지 주변에서도 부분적으로 패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공장을 조성하면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조사에서 흑회색연질 타날문토기 구연부 및 저부, 적갈색 연질 타날문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2) 국방유적

(1) 연희진 터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247 일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및 운양호사건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서해안의 방비를 서둘러 1879년(고종 16) 인천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부평에는 연희진을 설치하였다. 일명 용의 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며 이에 따라 용두포대라 불렀다고도 한다. 부평 연안에는 연희포대와 원창동, 가좌동에 포대가 있었다고 전해오나 현재 찾기가 어렵다. 연희진은 수도의 관문이며 요충지인 당시 부평의 연안이 개항지로 제시될 것에 대비하여 1879년 7월 1일 설치되었지만, 1882년 혁파되었다.

연희진지는 후에 서곶출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계명공원으로 조성되어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연희우성아파트와 서곶중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2) 연희포대 터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



일명 ‘용의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며, 이에 따라 용두포대라 불렸다고도 한다. 양쪽 끝의 돌출부분사이로 약간의 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명로 초입으로 흘러드는 갯골의 방비를 위한 것이며, 포좌의 방향은 서북쪽을 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부에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으나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상부에는 군 시설물(초소)이 설치되어 있다.

(3) 중심성 터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 일원



중심성은 계양산 징맹이고개를 중심으로 동서로 연장된 성으로 현재는 공촌로가 관통하고 있다. 부평 지역의 해안에서 서울까지 70여 리의 여정 중, 징맹이고개를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조차 없는 평지가 펼쳐져 부평 연안의 방비가 문제되었다. 이 때문에 중심성은 병인양요 이후 1883년 부평부사 박희방이 당시 동민의 의견으로 축조한 것인데 문주를 세워 경명(景明)문주라 헌액하였다. 문주옆에 중심성 사적비를 세웠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인천시가 시립박물관에 향토자료로 진열 설치하였으나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함포사격으로 파손되었고, 사적비 초석도 도로 개설로 인해 분실되었던 것을 찾아 서구청에서 보관 중이다.

현재 중심성의 축성에 관련하여 전해지는 기록은 「중심성 사적비(衆心城事蹟碑)」가 유일하다. 필사본에 기록된 비문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

“계양산 서쪽에 고개가 있으니 경명이요 연해관문이다. 내가 이 고장에 원으로 와서 관문의 방어를 마음먹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해 9월 그믐에 조칙이 있어 성을 쌓기 위해 아전과 백성에게 관문을 막아야 고을이 편안한 점을 설명하였더니 백성들이 즐겁게 역사에 응하여 주어서 서쪽에 장대를 쌓고 병정 훈련하는 곳을 삼았다. 문은 지명을 따서 경명이라 부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방어로록 하고, 중심이라고 이름한 것은 읍민의 마음으로써 성을 쌓은 즉 이것을 우리말로 여럿이 마음과 힘을 모아 성을 만들었다고 함이라. 고로 이름을 중심성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때에 군기를 중수하고 모든 포구에 포사들로 굳게 지키는 방법으로 했다. 성을 다 쌓은 날에 고을 사람들이 이 업적을 글도 잘 쓰지 못하는 나더러 역사의 개요를 간략히 쓸 것을 청하므로 특히 읍 상·하동에서 60금을 연출하여 성 쌓는 자금을 마련한 것을 가락하게 여기며 이 글을 쓴다. 광서 9년 계미 10월 행부사 박희방 기록하고 쓰다.”

衆心城事蹟碑

桂楊山之西 有峴曰景明 卽沿海關門 不佞莅茲州 有志關防未就矣 是歲九月之小晦 仍詔勅 經紀城堡 吏民便宜 樂爲之赴役 西築將臺 爲鍊武之所 門因地名以景明 建上高樓曰 控海 謂衆心者○何義 今以家民之心 築城則 此國語所謂衆心成城也 故名以衆心者豈不美哉 時重修軍器 諸津泡士爲此城固守之策 訖役之日 府人請以事蹟求 以余不文辭 略爲之紀 而特損六十金付之邑上下洞 以爲城堞修葺之資焉

光緒九年癸未十月 行府使 朴熙房 紀而書

董役 座首 朴周鳳 中軍 朴春東 將校 鄭鴻達 尹基煥 禹景雲 高昇煥
邑使 金鼎完 盧性燮 吳秉楫 蔡東權 林聲鶴 李鎮康 盧俊燮 韓健洙

姜培煥 崔啓昌 韓尙賢

洪應澤 方佑均 朴演植

上洞 □□學 朴□浩 金奎源

下洞 姜啓煥 金寬玉

3) 묘지

(1)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3



광산김씨 양간공파(良簡公派) 판군기감사공파(判軍器監事公派)의 21세손 김달도(金達道)와 그의 아들 김호(金浩), 손자 김우서(金禹瑞) 등의 묘가 있는 묘역이다. 김달도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도경(道卿)이고 벼슬은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부친은 계성(繼性)이고 부인은 평산신씨이다. 1742년(성종 3) 문과로 출사하였으며, 충청도관찰사, 호조참판 등을 거쳤다. 22세손 김호는 충청도관찰사를 지냈고, 김달도의 아들이다. 부인은 전의이씨로 이청신의 딸이다. 23세손 김우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김호의 아들이며, 자는 천석(天錫)이다. 1504년(연산군 11) 식년시 문과에 병과 21인으로 급제하여, 좌랑을 거쳐 도사와 사헌부 지평, 사간원 헌납이 되었다가 의정부 사인에 올랐고 개천군수(价川郡守),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경기도 수군절도사, 북도병사, 방어사를 역임하였고 대사성에 추증된 인물이다.

광산김씨 묘역은 김달도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김호

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 사이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으며(산길로 70~80여m), 김달도의 묘역이 위에 위치한다. 김달도의 묘역 제일 상단에는 김필(金弼)의 봉분이 제일 상단에 있고, 김달도의 봉분은 그 아래 단에 있다. 묘비는 1981년 세운 것으로 비의 규모는 $36 \times 109 \times 14\text{cm}$ 이다. 김호의 묘역에는 봉분 앞에 비석이 있고, 그 앞에 상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비의 규모는 $45 \times 104 \times 17\text{cm}$ 이다.

(2) 송윤 묘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3-3 일대 (하동)



검암 하동 경로당 앞산에 송씨 묘역에 20여 기의 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송윤의 묘가 있다. 이 묘에는 묘비와 상석 문인석이 좌우 1개씩 있는데 상석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다. 묘비에는 ‘성균생원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진천송공휘운 배정부인해주정씨지묘부(成均生員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鎭川宋公諱玠配貞夫人海州鄭氏之墓祔)’라고 기록되어 있다.

(3)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85 일대



경서초등학교 앞산에 위치한 김해김씨 묘역에는 50여기의 묘가 있다. 이 가운데 통정대부 김공(通政大夫 金公)과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 김성룡(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金成龍)과 숙부인 곤양문씨(昆陽文氏)의 합장묘는 묘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정대부 김공의 묘비는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고, 김성룡의 묘비는 1754년(영조 30)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4) 숙의 문씨 묘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6 탁옥봉 기슭



문종의 후궁이었던 숙의 문씨(1426~1508)의 묘로 심곡동 한국은행 연수원 입구 좌측 산기슭, 심곡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 묘는 봉분이 퇴락하고 묘비조차 땅에 파묻혀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1947년에 류희진씨가 봉분을 모으고 비를 다시 세웠는데, 이 때 백자에 쓴 문숙의 『墓誌銘』이 발견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숙의 문씨 묘는 그 후 1974년에 다시 묘역을 확장 보수하여 철책을 둘러놓았다.

『묘지명』에 의하면 그녀는 문민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세종 조에 판중추원사를 지낸 문효정이고, 그의 증조부는 고려 공민왕때 순평군으로 봉해진 문달한이다. 숙의 문씨는 평생 인후를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공검으로 몸을 다스리는데 힘썼으나 애석하게도 후사가 없었다 한다. 중종 3년 9월 26일에 부평 가원을 택하여 장사지냈다.

묘에는 묘갈과 상석 그리고 문인석이 좌우에 1개씩 있다. 묘갈의 글자가 많이 마모되어 있으며 뒷면 글씨는 알아볼 수 없다. 묘갈에는 문종후궁 숙의 문씨지묘(文宗後宮 淑儀 文氏之墓)라고 쓰여 있으며, 크기는 가로 38cm, 세로 110cm, 두께 20cm이다. 상석의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73cm, 두께는 파묻혀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5) 심곡동 전주이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6 탁옥봉 기슭



숙의 문씨 묘 바로 옆에 전주이씨의 묘역이 있다. 묘는 심곡동 한국은행 연수원 입구 좌측 산기슭, 심곡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이씨의 묘역에는 모두 7기의 합장묘가 있다. 비문에 나타난 묘주와 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주이공비 창선대부행강동부령 신인문화유씨지묘
(全州李公備 彰善大夫行江東副令 慎人文化柳氏之墓)
- 2) 전주이공의남 유인회원현씨지묘
(全州李公義男 孺人檜原玄氏之墓)
- 3) 전주이공만년 숙천감 숙부인원주원씨지묘
(全州李公萬年 肅川監 淑夫人原州元氏之墓)
- 4) 전주이공지운 증좌윤 파평윤씨지묘
(全州李公志尹 贈左尹 坡坪尹氏之墓)
- 5) 전주이공계완 증군자감정 유인합천이씨지묘
(全州李公啓完 贈軍資監正 孺人陝川李氏之墓)
- 6) 전주이공화 유인광산김씨지묘
(全州李公樺 孺人光山金氏之墓)
- 7) 전주이공두현 유인행주기씨지묘
(全州李公杜鉉 孺人幸州奇氏之墓)

묘비와 상석은 모두 최근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이비와 이만년의 묘에는 묘갈과 문인석이 있는데 묘갈의 판독은 불가능하게 마모되어 있다. 이비의 묘비에 새겨진 생물년대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맞지 않아 정확한 생물년대는 다시 확인을 요한다. 이비의 묘갈은 가로 38cm, 세로 86cm, 두께 15cm이며, 이만년의 묘갈은 가로 47cm, 세로 93cm, 두께 13cm이다.

(6) 공촌동 청송심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8



청송심씨 묘역은 본래 옛 시흥인 지금의 서울 금천(衿川) 흘리(屹里)에 있었으나, 서구 공촌동으로 이장하였다. 그때 신도비도 함께 이곳에 옮겨왔다. 계양산의 소성사격장 입구에 심즙신도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청송심씨 묘역에는 심우정(沈友正) 묘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의 묘 32기가 자리하고 있다. 청송심씨 묘역에 위치한 석비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증이조참판 심우정신도비

(贈吏曹參判 沈友正神道碑, 1613년, 전면비)

가로 107cm 세로 242cm 두께 26cm이고,

이항복 찬(李恒福 撰), 이숙 서(李瀟 書), 노직 전(盧稷 篆)

•예조판서증시효간공 심즙신도비

(禮曹判書贈諡孝簡公 沈楫神道碑, 1744년, 사면비)

가로 85cm 세로 190cm 두께 53cm이고,

송시열 찬(宋時烈 撰), 홍봉조 서(洪鳳祚 書), 유척기 전(兪拓基 篆)

•홍문관응교증대사헌 심동귀묘갈

(弘文館應敎贈大司憲 沈東龜墓碣, 1739년, 사면비)

가로 72cm 세로 187cm 두께 36cm이고,

송시열 찬(宋時烈 撰), 김진상 서(金鎭商 書), 유척기 전(兪拓基 篆)

•홍문관부제학 심유신도비

(弘文館副提學 沈攸神道碑, 1741년, 사면비)

가로 75cm 세로 201cm 두께 39cm이고,

이의현 찬(李宜顯 撰), 윤득화 서(尹得和 書), 유척기 전(兪拓基 篆)

이상은 묘역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묘에 있는 묘표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헌대부예조판서 심즙묘표

(正憲大夫禮曹判書 沈楫墓表)

(가로 52cm, 세로 128cm, 두께 19cm)

•증가선대부사헌부청봉 심동귀묘표

(贈嘉善大夫司憲府淸峯 沈東龜墓表)

(가로 52cm, 세로 128cm, 두께 18cm)

•통정대부홍문관부제학오탄 심유묘표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梧灘 沈攸墓表)

(가로 59cm, 세로 134cm, 두께 20cm)

- 증숭정대부선공감첨정 심자묘표
(贈崇政大夫繕工監僉正 沈鎡墓表)
(가로 54cm, 세로 133cm, 두께 21cm)
- 증가선대부이조참판 심한웅묘표
(贈嘉善大夫吏曹參判 沈漢雄墓表)
(가로 54cm, 세로 127cm, 두께 17cm)

(7) 청라도 지석묘

- 시대 : 청동기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52-11임



청라도의 남동쪽 계곡부의 말단부에서 지석묘 1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의 개석은 부정형으로 크기는 장축 230cm, 단축 210, 두께 60cm이며 하부에 지석으로 보이는 석재 2기가 확인되며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석묘의 주변으로 지석묘의 개석과 비슷한 크기의 석재들이 다수 확인된다.

4) 사찰

(1) 만일사 터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



계양산 서면(西面) 징맹이고개(景明峴)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 초기의 절터이다. 만일사는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사찰조의 ‘만일사재계양산(萬日寺在桂陽山)’라는 기록과 1760년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사찰조의 ‘만일사명월사봉일사이상구유금무(萬一寺明月寺奉日寺以上舊有今無, 만일사·명월사·봉일사 이상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18세기 중엽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사지로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으나 계양동에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인 경명로를 왼쪽으로 두고, 계양동과 공촌동 경계를 표시하는 곳에서 공촌동 쪽으로 30여m를 가다 보면 우측에 계양산으로 오르는 길이 나온다. 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우측에 중심성 터 안내판이 나온다. 여기서 약 40여m 정도 더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난 등산로

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사지는 서향으로 위치해 있는데 전체 규모는 길이(서남→동북) 약 60m, 폭 약 25m 정도이며 상하 2단으로 구분된다. 상단에는 현재 본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위치해 있어 사찰의 중심사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전의 양측 및 하단에는 요사채를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전 추정지는 15.2m×9.3m 정도의 건물지가 있는데, 주춧돌과 남쪽 끝에는 약 4.5m의 석렬이 남아있다. 건물지 옆에는 우물지가 남아있다. 본전의 북쪽에도 10m×7m 정도의 건물지와 무너져 내린 석축이 약 10m 정도 이어져 있으며 동쪽에도 5.5×5m 정도의 건물추정지가 남아 있다. 본전 추정지 앞으로는 돌들이 무너져 내려있어 상하로 구분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도 계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의 하단부는 무너져 내린 토사로 초석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지 곳곳에서 기와편, 자기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의 인천고적조사 당시의 기록에 ‘계양산 서면 경명현(景明峴) 너머에 있는 고려초기의 사찰지로 현재는 토사(土砂)의 반출로 초석 같은 것이 변모하여 가람배치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사지(寺址)에서 발견되는 와편 자기편은 고려 및 조선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에 사지 자체에도 변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명월사 터



명월사는 계산 2동 산52 계양산 북쪽 산중턱 황어현 쪽에 있던 절이다. 역시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 사찰조의 “명월사는 계양산에 있다(明月寺在桂陽山)”는 기록과 1760년 간행된 『여지도서』 사찰조의 “만일사, 명월사, 봉일사는 지금은 없다”라는 기록을 통해 18세기 중엽 이전에 없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절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이규보의 시가 남아 있어 명월사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황무한 가시 숲 헤쳐도 열리지 않으니, 돌길에 평탄한 데가 적
구나. 말에서 내려 걷다가 또 엎어지니 내 석자 되는 지팡이가 부
러졌다. 깊숙한 곳의 날다람쥐는 사람에 익지 못하여, 앞발을 모으
고 서서 멍한 모양을 한다. 굶주린 호랑이야 너는 으르렁대지 말
라 충성과 믿음만이 내가 믿는 바이다. 나무 끝에 암자를 찾아내
니,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엮었네. 어떤 사람이 이름 지어, 명월이
라 표방하고. 달을 가져 마음을 깨끗이 하려 함이런가. 창해 넓
은 것이 다가 보인다. 전일에 하늘에 오르기 어렵다 들었더니, 홀
연히 이미 하늘 위에 있도다. 물빛이 멀수록 더욱 희어,
서리같은

흰 비단을 펼친 것과 같은 모양이네. 침침한 구름 갠 놀이 경각 사이에 천만 가지 형상이로다. 큰 배가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이, 가벼운 갈매기 헤엄치는 것 같다. 어주자(魚舟子)에게 말을 부탁하노니, 정신을 들여서 노를 잘 저어라. 너의 한가히 노는 모양을 내 시속에서 넣으련다. 아, 나는 부서(簿書)에 빠져서, 맑은 흥취 저버린지 오래되었으니 이 고을에 이른 지 2년 동안 오래 마음으로 그리던 취미에 매우 맞네. 청하건대 그대는 다시 머물라. 이것이 하늘이 주는 바이다.”(『동국이상국집』, 권15)

시에 보이는 “말에서 내려 걷다가 또 엎어지니 내 석자 되는 지팡이가 부러졌다(下馬行且顛 折我三尺杖).” 또는 “큰 배가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이, 가벼운 갈매기 헤엄치는 것과 같다(大舶點波心磨 若輕鷗櫟樣).” 등과 같은 표현에서 험준한 산간이면서 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인천고적조사』를 보면, 계양산 북면 약 200m 중턱에 십 척 이상을 석축평지(石築平地)하고 남북 50m, 동서 100m의 절터에는 초석이 원형대로 남아있고 동측에는 큰 우물이 있다. 석축은 퇴락(頽落)하였으나 당시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곶 사람은 이곳을 약수터라고 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의 와편과 자기편이 다수 발견되었다.

5) 기타

(1) 도마매 포구 터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61임 일원



도마매는 백석동의 곡물과 외부의 새우젓 배가 드나드는 중요한 포구였으나, 동아매립지가 생기면서 포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광복 후에는 도마매와 인천 북항을 다니는 ‘똑딱이 배’가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으나 이 역시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똑딱이 배는 백석동의 지주였던 노씨가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이 맡았고, 아침에 물때에 맞추어 나갔다가 오후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왔다. 결국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항한 셈이다. 현재 305번 도로와 수도권매립지 연결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3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600m 가량 내려온 지점이 포구가 있던 자리이다.

도마매는 작은 포구로써 수확한 쌀을 외부로 내보낼 때나 배들이 몰려들었으며, 평상시에는 새우젓 등 해산물을 파는 배들이 한두 척 정도 들어오는 꼴이었다. 새우젓 배가 들어오면 마

을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나가 새우젓 독을 운반하였고, 하나의 독을 몇몇 집이 나누어서 구입하였다. 새우젓 구입은 외상이며, 가을철에 수확을 하면 쌀로 주었다. 새우젓 배는 인근 섬에서 들어왔으며, 1960~1970년대에는 새우젓 이외에도 생선과 굴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2) 시천동 느티나무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23



시천동의 동목으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이 250년가량 된 이 느티나무는 높이 20m, 나무둘레 3.7m의 거목으로, 원래는 과거 마을회관 옆 시천동 107번지에 위치해 동민들의 쉼터로 애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굴포천 방수로공사와 관련해 주변이 철거되면서 2002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3) 황해사 간척지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4 일대



황해사(黃海社)는 일본인 마쓰야마[松山常次郎]가 1918년 3월 ‘수리사업의 측량설계와 수리 및 철도공사의 청부’를 명목으로 창설한 토목회사이다. 이 회사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을 등에 업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대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대토지 경영을 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류하천의 간척지를 비롯하여 부평수리조합, 함안 1·2차 수리조합, 연해수리조합 등이 있다. 황해사에 의해 관리되던 시천하류 간척지는 광복 이후 해안 가까운 곳에 염전이 조성되고, 일부는 경지로 불하되었으나, 동야산업개발에서 택지조성을 하였다.

(4) 한들방죽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 일대



백석방죽, 흰돌방죽, 거지방죽이라고도 불린다. 청대방죽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방죽’이라고도 한다. 구한말에 착공하였다가 실패하고 1919년에 송병준이 완공한 방죽으로써, 1960년대에 노선재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노선재 방죽이라고도 한다. 거지방죽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과거 드넓은 갯벌이었다. 서울의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이 독을 막고 간척하려 하였다. 그러나 썰물 때 간신히 갯벌을 파 놓으면 밀물이 밀려와 모두 덮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하였다. 마지막에 돈을 대며 덤빈 사람이 친일파이자 재력가인 송병준(宋秉駿)이었다.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제방이 거둬터져 몇 달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을 때, 마침 거지 하나가 공사장으로 구걸하러 왔다. 사람들은 거지에게 상을 차려주고는 정신없이 밥을 먹는 그를 밀어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개흙으로 생매장했다. 이러한 인신공희를 한 뒤에야 갯골의 제방이 터지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사람들이 거지방죽이라고 불렀다.

(5) 검바위마을 당제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65



검바위마을의 동제는 지금도 실시되고 있다. 음력 10월 중 날을 받아 저녁에 지내며, 그 절차는 유교식이다. 술, 과일, 포 등을 진설하며, 경비로는 3섬의 쌀이 드는데 마을 사람들이 각출을 한다. 일제강점기까지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며 제사까지 지냈는데, 당시에는 가을에 제사만 지냈다. 제물로는 소머리, 대구 포 및 약간의 과일과 떡을 마련한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뽑으며 집사가 봉향봉로한다. 제관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른 마을 동제와 마찬가지로 생귀복덕과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한다. 제사 때는 상동, 중동, 하동 전 주민이 참석하며, 각각의 부락마다 복을 기원한다.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당나무는 300년 쯤 된 상수리나무로써 높이 28m, 둘레 2.8m이며,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다. 나무 아래에는 제물을 차리기 위한 상석이 준비되어 있다. 상석의 크기는 가로 136cm, 세로 84cm, 높이 48cm이다. 당신제의 축문은 백성들이 무고하고 병충해가 없어 풍년을 이루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발아장터

- 시대 : 조선
- 소재 : 검암동

검암동 장모루에서 열렸던 조선시대 축시장으로 한강 서부 지역의 보부상들의 중심지였다. 일명 축장이라고도 했는데, 오월 단오를 전후하여 외국 무역상인들은 품질 좋은 약쑥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지금의 계양구 장기동의 황어장(黃魚場)으로 이전되었다.

(7) 구슬원터(球瑟院址)

- 시대 : 조선
- 소재 : 시천동

원은 조선시대 숙박시설로 관리나 백성들의 출장이나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시천동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슬원(院)이 있었다. 원사(院舍)의 초석이 8개나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흔적이 없다.

(8) 짐포군항 터

- 시대 : 삼국~고려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8 일대



지금의 서구 경서동에는 짐포마을이 있다. 삼국시대 및 고려 시대에 이곳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군항이었다. 이 군항은 해면에 돌출한 금산 뒤에 위치하고 있어 숨겨져 있다. 바다에서도 안보이고 육지에서 보아도 작은 산이 감싸고 있어 보이지 않는 비밀 항구였다. 인천국제컨트리클럽 바로 앞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강옥엽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Chapter V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북서곶의 인물

1. 북서곶의 선주 성씨들
2. 전근대 인물
3. 근현대 인물

V. 북서곶의 인물

북서곶은 지난날 부평부 모월곶면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한남정맥의 한 활기인 계양산과 철마산(천마산이 본래지명이었다)이 막고 있고 서쪽은 바다인지라 전근대시대에는 인접지역과 큰 교통이 없이 동떨어져 있었다. 부평부 관아가 있는 현 계양구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고 인천부로 가기도 어려웠다. 이런 지리적 특성은 인맥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서곶인들은 한국전쟁 직후 월남해온 사람들이 약간 있었을 뿐 전출입이 적었고 큰 그릇에 담긴 듯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전근대 시대의 지도층은 대표적인 향반 가문인 시천동의 진주류씨 가문 출신 인물들과 검암동의 해주정씨 출신들이 주로 이끌었다. 시천동 류씨는 기라성 같은 학자와 관리를 배출하였고 근대를 넘어 서면서 독립투사 류완무와 서예가 검여 류희강을 배출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검암동의 정씨는 방외문학, 다도, 선학(禪學)에서 독보적인 자취를 남긴 정희량이 은둔해 자리잡으면서 검바위 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2~300년을 거친 뒤 개화기에 부평 지구 최초이자 유일한 사립학교를 세운 정홍석과 부평지역 최초의 공립한성소학교 출신인 정지석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백석동의 평산심씨 문중에서 인천과 부평을 대표하는 독립투사 심혁성이 배출되면서 빛났다. 이 가문에서는 시의회의장과 교육사업으로 덕망을 쌓은 심덕기가 배출되었다.

경서동의 양천허씨 가문은 서곶출장소장 허용과 서곶을 대표하는 교육자 허정을 배출하며 떠올랐다. 연희동의 초계정씨 가문은 정구영 정필영 정인표를 배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연희동 연안이씨

는 서곶출장소장과 향토사연구가로 이름을 올린 이훈익과 서구청장을 지낸 이훈국의 등장으로, 심곡동 전주이씨는 이기문이 국회의원에 당선함으로써 명문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다.

지역의 민심을 이끌어간 지식인 지도층은 부평향교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개화기 이후에는 유일한 학교였던 서곶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말 백석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북서곶 사람들은 모두 이 학교 출신 선후배였다.

1. 북서곶의 선주 성씨들

1) 백석동

- 풍산심씨(豊山沈氏) : 13세 심세려(沈世礪)가 입향조이며 9대째 세거해 왔고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남양홍씨(南陽洪氏) : 홍제(洪濟)가 입향조로 12대를 세거해 왔고 현재 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청송심씨(靑松沈氏) : 조선 경종 원년(1721) 이후 심지문(沈之汶)이 입향하여 후손이 10여대를 살아 왔고 현재 6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 성주이씨(星州李氏) : 이지원이 입향하여 6대를 살아 왔고 현재 5가구 정도가 남아 살고 있다.

2) 시천동

- 진주류씨(晉州柳氏) : 양주에서 이주한 류광정(柳光井)이 입향조로 14대를 세거해 왔고 현재 15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3) 검암동

- 능성구씨(綾城具氏) : 고려시대부터 집단 거주하였다는데 지금은 없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조 중기부터 집단 거주하였는데 지금은 몇 호만 있다.
- 해주정씨(海州鄭氏) : 조선조 초기부터 해주정씨 7세 정희신(鄭希信 1475~1548)이 입향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현재 서구지역에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진천송씨(鎭川宋氏) : 조선조 중기부터 살아온 집단거주 성씨이다.

4) 경서동

- 울산김씨(蔚山金氏) : 울산김씨 32세 손 김준환(金俊煥)이 정종 11년(1739)에 경서동에 이주하였다. 인천에 30여 가구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나 경서동에는 5가구만 남았다.
- 곡부공씨(曲阜孔氏) : 조선 인조 때 공성도(孔聖道)가 가솔과 함께 이주한 이래 11대를 살아 왔다. 현재 경서동에는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 경서동의 김해김씨는 안경공파(安敬公派) 김진호(金盡浩)가 16세기 초에 입향하여 후손들이 17대에 걸쳐 세거해 왔고 현재 13가구의 후손들이 경서동에서 살고 있다.
- 경주정씨(慶州鄭氏) : 조선조 중기에 파주에서 이주한 정한필(鄭漢弼)이 입향조이며 10대를 세거해 왔고 현재 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풍천노씨(豐川盧氏) : 조선조 초기 뇌암공파(雷岩公派)의 10대 손이 경서동에 이주해온 후 후손들이 16대에 걸쳐 살아왔고, 20여 가구의 후손들이 경서동에서 살고 있다.
- 양천허씨(陽川許氏) : 양천허씨는 23세 허적(許積)이 충북 증원에서 18세기 초에 이주해 10여 대를 살아왔고, 현재 경서동에는 7가구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5) 연희동

- 상산김씨(商山金氏) : 조선조 초부터 살아왔는데 지금은 몇 호만이 살고 있다.
- 순흥안씨(順興安氏) : 고려 말부터 집단 거주하였는데 지금은 한 두 집 살고 있다.
- 인동장씨(仁同張氏) : 인동장씨 태산경공파 11대 손인 장백(張伯)이 아들과 함께 이주해왔고, 11대에 걸쳐 후손들이 번창했으나

현재는 3가구가 살고 있다.

- 연안이씨(延安李氏) : 조선조 태종 때 김포시 사우동에 살던 연안이씨 22세 손인 첨사공파(詹事公派) 중 승사랑공파(承使郎公派)인 이중원(李重元)이 가솔과 함께 연희동으로 이주하였다. 연희동에서 15대에 걸쳐 살아왔고, 서구에 1천여 명의 후손으로 번창하였으나, 현재 연희동에 31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 초계정씨(草溪鄭氏) : 조선조 중기부터 샘말에 정유명(鄭惟明)이 입향하여 후손들이 15대를 살면서 번성했으나 현재 30여 가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 덕수장씨(德水張氏) : 조선조 후기 장흥인(張興仁)이 김포에서 이주해와 후손이 8대에 걸쳐 살아왔고 현재 서구에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6) 심곡동

- 남원양씨(南原梁氏) : 고려 말부터 살아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 곽씨(郭氏) : 고려 말부터 살아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 양가촌에 집단 거주하였는데 지금은 얼마 살지 않는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 정종의 14남 정석군파(貞石君派)로 정석군의 5세 손 이비(李備)가 세종 연간인 1440년 무렵 심곡동에 이주하였다. 이후 후손들이 19대에 걸쳐 살아왔고, 현재 심곡동 일대에 16가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 풍천임씨(豐川任氏) : 조선조 중기 숙종 연간에 풍천임씨 18대 임한등(任翰登)이 입향하여 현재 30대 손까지 살고 있다.

7) 공촌동

- 경주최씨(慶州崔氏) : 고려시대부터 집단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몇 호뿐이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 거주 연도는 오래 되었으나 지금은 7, 8호만이 살고 있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조 초부터 집단거주하였고 지금은 겨우 10여 호가 살고 있다.
- 경주김씨(慶州金氏) : 근세에 이주해 살고 있는데 지금은 10여호가 살고 있다

2. 전근대 인물

1) 백석동(白石洞)

(1) 김호(金浩 1451~?)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증 호조참판(贈戶曹參判) 김달도(金達道)의 아들이다. 초년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1472년(성종 3)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고, 1488년(성종 19)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가 1493년(성종 24)에 익산군수로 나갔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의주목사 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역임하고, 1506년(중종 1)에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했다. 사후 예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묘는 백석동 독정마을에 있다.

(2) 심간(沈欄 1656~1717)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지문(之汶)의 아들이다. 백석동 일대에 많은 사패지(賜牌地)를 받았다. 선대조들의 훈공이 높아 조정에서 사후 벼슬을 추증(追贈)하여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증정원좌승지(贈嘉善大夫吏曹參判承政院左承旨)였다. 경종(景宗) 때 일어난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상대의 뜻을 소중히 여겨, 자청해서 벼슬에서 물러나 백석리에서 세거를 시작했다. 부인에게는 증정부인 남양홍씨(贈貞夫人南陽洪氏)의 봉작이 내려졌다.

(3) 심상이(沈尙履 1679~1764)

심간의 아들이며, 음직(陰職)으로 중추부의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사후에 추증되어 묘비에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첨지중추부사 청송심공 상이지묘 증 정부인 해주정씨 부좌(嘉善大夫戶曹參判僉知中樞府事靑松沈公尙履之墓贈貞夫人海州鄭氏附左)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묘는 백석리 중구(中丘) 현건좌(峴乾左)에 있다.

(4) 심상복(沈尙復 1692~1759)

심간의 아들이다. 음직(蔭職)으로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사후 추증되어 묘비에는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지의금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심공 상복지묘(贈嘉善大夫戶曹參判知義禁府五衛都總府副總管沈公尙復之墓), 부인은 증 정부인 함양박씨 부좌(贈貞夫人咸陽朴氏附左)로 기록되어 있으며 묘는 백석동에 있다.

(5) 심윤(沈玠 1715~1745)

청송심씨로 심상이의 아들이나 진사를 지낸 상우(尙友)에게로 출계(出系)했다.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정5품 통덕랑을 지냈다. 사후에 이조참의로 추증되었다.

(6) 심성(沈省 1718~1792)

본관은 청송. 심상은의 아들로 1759년(세조 4) 정시무과(政試武科)에 급제하여 정2품 가선대부로 전라병사(全羅兵使)를 지냈다.

(7) 심협(沈峽 1724~1795)

청송심씨로 자는 군방(君防)이다. 심상은의 아들로 1771년(영조 47) 신묘시(辛卯試)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관직은 사헌부의 정·종3품, 감찰사의 정4품 벼슬인 집의(執義)를 지냈다.

(8) 심위진(沈緯鎭 1741~1797)

청송심씨로 이조참의 심윤(沈玠)의 아들이며, 1773년(영조 49)에 정시무과(政試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의 관직을 받고 여러 직을

수행했으며,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9) 심사손(沈思遜 1493~1528)

풍산심씨(豊山沈氏)다. 중종 때 사마시를 거쳐 1517년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예문관에 등용되었다. 1523년 비변사 낭관(備邊司郎官)으로 서북면(西北面)의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고, 그 후 예조좌랑을 거쳐 정언(正言) 교리(校理), 병조정랑 등을 거쳐 수찬(修撰), 응교(應敎), 사인(舍人)을 두루 거쳤다. 1525년(중종 20) 경상우도어사(慶尙右道御史), 전한(典翰)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서북 변경에서 야인들의 준동을 막다가 살해되었다.

(10) 심수경(沈守慶 1516~1599)

심사손의 아들이다. 1546년(명종 1) 사마시 식년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임금이 관리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를 권장한 제도인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1554년 부평도호부사에 부임하였다가 그해 병으로 사직했다. 그 후 다시 직제학을 지냈다. 1562년(명종 17) 정릉(靖陵) 천장(遷葬) 때 경기도 관찰사로서 대여(大輿)가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선창을 설치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 대사헌과 팔도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우의정에 오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가 되어 의병을 일으켰다. 이듬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고, 1598년(선조 31)에 사직했다. 문장과 글씨에도 능했다. 한돌[白石] 풍산심씨의 시조다.

(11) 심세려(沈世礪 1524~1617)

풍산심씨로 생부는 심극인(沈克仁)이나, 오위도총부 사용(司勇)

을 지낸 청학거사(靑鶴居士) 심극효(沈克孝)의 양자가 되었다. 1600년 초에 처음으로 백석리에 입향하였다. 무과로 오위(五衛)에서 부사직(副司直)의 벼슬을 지냈다.

(12) 심세림(沈世霖 생물년 미상)

심극인의 아들이며 상주목사 치(寔)의 증손이다. 1534년(중종 29)에 별시문과에 합격하여 1538년(중종 33)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13) 심주(沈澍 1541~1601)

풍산심씨다. 세려(世礪)의 아들이다. 1583년(선조 18) 중부참봉(中部參奉), 영릉참봉을 거쳐 준원전(濬源殿) 봉사를 지냈다. 1589년에는 유지(油紙), 종이 등을 관리하던 장흥고(長興庫)에서 봉사직을 지냈다. 1591년(선조 24)에는 사재감(司宰監) 직장(直長)을 지냈으며, 1592년 임진왜란 시기에는 강화에 들어가 금천일 창의진(金千鎰倡義陳)에서 공을 세웠다.

(14) 심명길(沈命吉 1591~1670)

풍산심씨다.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낸 탕(檀)의 아들로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1630년(인조 8)에 중부참봉(中部參奉)을 시작으로 징사랑(徵事郎)을 거쳐, 중추부 첨지사(僉知事)의 벼슬을 지냈다.

(15) 심흔(沈僣 1837~1898)

풍산심씨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궁중의 토목과 영선(營繕)을 맡아보던 관청에서 가감역(假監役)을 시작으로 통사랑(通仕郎) 용양위 부호군(龍驤衛 副護軍)을 지냈으며, 1883년(고종 20)에 통정대부 절충장군을 지냈다.

2) 시천동(始川洞)

(1) 류지익(柳之翊 1760~1825)

진주류씨(晉州柳氏)로 1793년(정조 17) 사마시에 장원급제하였고, 1805년(순조 5)에 진사로 을축년 증광시(增廣詩)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 예조정랑, 사간원정언을 거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으며 유고집 20권을 저술하였다.

(2) 류태동(柳泰東 1792~1864)

1837년(헌종 3)에 전시문과병과(殿試文科丙科)에 급제하였다. 1886년(철종 7) 국가의 경사 때 10년에 한 번씩 당하관(堂下官)이 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치러지던 중시(重試)에 제3인망(第三人望)으로 급제하였다. 한때 직언을 많이 해 지도(智島)로 귀양을 가기도 했으나 1855년(철종 6) 홍문관교리로 복위되었고,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 홍문관수찬,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원(經筵院), 검토포관(檢討官)을 거쳐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승정원 우부승지, 영흥부사를 거쳐 후에 호조참의를 지냈다.

(3) 류택동(柳宅東 1813~1869)

류지습(柳之習)의 아들이다. 1846년(헌종 12)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1858년(철종 9)에 종친부(宗親府) 전부(典簿) 관직을 받고 능참봉을 거쳐 1863년(철종 14)에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을 거치고 1865년(고종 2)에는 용안현감(龍安縣監)을 지냈다. 유문집(有文集) 8권을 남겼다.

(4) 류국형(柳國衡 1824~1905)

진주류씨(晉州柳氏) 태동(泰東)의 아들이다. 자는 경순(景純), 호

는 혜천(惠川)이다. 1867년(고종 4) 사마시에 진사 3등(進士三等)으로 급제하고, 1884년(고종 21)에는 평양북부도사(平壤北部都事)를 지냈다.

(5) 류일형(柳逸衡 1825~1855)

진주류씨로 자는 경민(景民), 호는 계음(桂陰)이다. 공의 벼슬은 통덕랑(通德郎)이었으나 관직에는 큰 뜻이 없고 학문에만 전념한 학자로 『박학통사(博學通史)』와 『증책사감(增冊史鑑)』을 저술하였다.

(6) 류태형(柳台衡 1826~1904)

1876년(고종 13) 사마시를 거쳐 1877년(고종 14)에는 중시(重試)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여섯 지역의 군수를 지냈으며 1859년(철종 10), 삭녕군수(朔寧郡守)를 지냈으나, 단발령이 내리자 이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문집 5권을 저술하였으며 1902년(광무 6)에 조정에서 통정대부 벼슬을 추증 받았다.

3) 검암동(黔岩洞)

(1) 송윤(宋琬 1603~1692)

진천송씨(鎭川宋氏)로 경기도 양주에서 검암동에 처음으로 입향한 선대이다. 1648년(인조 26)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성균관을 거쳐 부평향교 문묘에서 유생을 가르쳤는데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자였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사에 의해 부평부 청사와 향교가 불탈 때 화염을 무릅쓰고 열성위(列聖位) 위패를 건져 공촌동 별관에 감추었다가 난이 평정된 후 1688년(숙종 14)에 문묘를 재건하고 위패를 재봉안하였다. 그 공으로 부평향교 청금록 제1호로 등재되었다. 사후에 그의 벼슬이 수직(壽職)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同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다.

(2) 정희량(鄭希良 1469~1530)

해주정씨(海州鄭氏)로 한양에서 태어났다. 호는 허암(虛庵)이다. 정연경(鄭廷慶)의 아들로 태어나 사림파(士林派)의 종조(宗祖)인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 했다. 1492년(성종 23)에 초시과거(初試科擧)에 장원급제하여 생원이 되었다. 성종 사후 복(服)을 입고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불사(佛事)를 한다며 글을 지어 올렸다가 그 글이 문제가 되어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1495년(연산군 1)에 증광문과(增廣文科) 대과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을 거쳐 1497년(연산군 3)에 동관 대교(待敎)로 보직되었다가 상소를 올려 미움을 샀는데, 그 상소문은 환관을 억제하며 학교를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치며 상벌을 공정히 하고, 재용(財用)을 절제하며 임금은 마음을 바로잡고 경연에 충실할 것과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일 것을 고했다.

1498년(연산군 4)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으나, 그해 무오사화 때

죄 없이 의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귀양길에 수년 후 다시 사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탄로나, 다시 김해로 유배되었다가 1501년(연산군 7) 풀려났다. 다음해에 모친상을 당해 시묘를 하던 중 1502년(연산군 8)에 장차 갑자사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집을 나가 김포 강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는 시문에 능하고 음양학에 밝았다. 그의 시를 추후에 한데 모은 허암 정희량 선생 시집(虛庵 鄭希良 先生 詩集)이 발간되었다. 이 시집은 명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 검암동에는 정씨들이 많이 세거하고 있는데 정희량이 고양에 있는 어머니 묘에서 시묘(侍墓)한 뒤 단오날에 한강 백사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한강을 건너 검암리 허암산(虛庵山)에 은거하였다. 그가 은거한 곳에 그의 아우 정희신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해주정씨 세거의 터전을 마련했다.

(3) 정희신(鄭希信 1475~1548)

희량(希良)의 아우이다. 자는 이상(履尙)이며 음사(蔭仕)로 벼슬길에 올라 경상좌도 수군우후(慶尙左道 水軍虞候)를 지냈다. 사후에 도승지에 증직(贈職)되었다.

검암동 해주정씨는 희신을 시조로 우후공파(虞侯公派)의 시조로 하고 있다. 그의 묘는 경서동(景西洞) 능산에 있었으나 1996년 김포군 대곶면 쇠암리 산으로 이장하였다.

(4) 정광전(鄭光前 1566~1638)

해주정씨 희신의 손자이다. 호는 검암(黔巖)이다. 과거에 급제하고 도출세 길에 나아가지 않다가 만년에 가서 아버이를 위해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강릉참봉(康陵參奉), 선원전참봉(璿源殿參奉), 순릉참봉(順陵參奉), 선공감(繕工監), 전옥서봉사(典獄署奉事)에 올랐으나 1613년(광해군 5) 벼슬길에서 물러나 향리 검암동으로 돌아왔다.

(5) 정도형(鄭道亨 1584~1645)

광전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숙성한 기질로 자라면서 학문을 쌓아 여러 번 향시(鄕詩)에 장원했으며 1628년(인조 6)에 알성시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을 거쳐 제용(濟用), 광흥(狂興), 내섬(內贍), 사섬(司贍)의 참봉(參奉), 봉사(奉事), 직장(直長)을 거쳤다. 1631년(인조 9)에는 성균관 전적으로 승격되었다가 공조, 형조의 좌랑을 지냈다. 1632년(인조 10)에 강동군수를 지낸 후 1634년(인조 12)에 아버지 봉양을 위해 관직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1636년(인조 14) 형조정랑이 되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그 후 황해도사(黃海都事)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치 않았고 1638년(인조 16)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상을 마친 후 향리에 묻혀 있었는데 1644년(인조 22)에 조정에서 다시 수조랑 겸 문하부기거주(水曹郎兼門下府起居注)로 기용하였다. 1645년에 직강, 성균관 사예(司藝)에 이르렀고 이때 반궁(半宮)에서 실시하는 과거시험을 관장하는 시험관이 되었다. 1645년(인조 23)에 세상을 떠나니 조정에서 승정원 도승지로 증직시켰다.

(6) 정도영(鄭道榮 1601~1650)

광전의 셋째 아들이다. 1627년(인조 5)에 생원시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황해도 도사(都事)의 벼슬을 재냈다. 1644년(인조 22)에 좌의정 심기원(沈器遠), 광주부사(廣州府使) 권억(權億) 등의 반정(反正) 음모를 평정한 공으로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올랐다. 효충분위병기결책(效忠奮威炳幾決策)의 훈호(勳號)가 내려졌다. 사후에 공적이 인정되어 좌승지겸 경연원참찬관춘추관수찬관(經筵院參贊官春秋館修撰官)에 추증되었다.

(7) 정면(鄭勳 1614~1687)

해주정씨이다. 생부(生父)는 도형(道亨)으로 도창(道昌)에게로 출계(出系)했다. 증손 정술조(鄭述祚)가 지어 올린 행장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인 옥(玊)과 함께 부평에 있던 명월사에서 열심히 글을 읽고 배워 1649년(인조 27)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생모 경주 이씨의 상을 당하여 3년 상이 끝나자 국자감에 예속되었으나 청현(淸顯)의 벼슬을 받지 못하다가 1653년(효종 4)에 옥책감조관(玉冊監造官)으로 전직에 승진되었다. 후에 공조좌랑에 임명되었다가 예조정랑으로 옮겼다. 1655년(효종 6)에 영암군수가 되었는데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후 성균관 직강을 거쳐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가 되었다. 1656년(효종 7)에는 철원부(鐵原府)에 봉직하여 백성을 은혜로 다스려 칭송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훈국랑(訓局郎)에 차출되었고, 1658년(효종 9)에 서천군수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큰 가뭄을 만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각종 부역을 경감시키고 백성들의 재해를 도와주는 보민청(保民廳)을 창설하여 백성 구제에 헌신하였으나 이러한 일들이 시기와 간교로 어려움을 겪었다. 벼슬길에서 물러나 가평의 여우천(女愚川)에 은거하며 호를 여우자(如禹子)라고 하였다.

1663년(현종 4)에 성균관 직강에 임명되어 조정의 제사에 관한 법식에 관한 상소문을 작성, 사간원에 올리기도 하였다. 후에 다시 제용감정(濟用監正)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영광군수에 임명되었다. 또 고부군수에 임명되었다가 1668년(현종 9)에는 선혜청의 선혜랑(宣惠郎)으로 빈민 구제에 힘썼다. 또 송도소윤(松都少尹)으로 부임하였다. 1670년(현종 11)에는 죽산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치 못하고, 삼척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치 못하였고, 이듬해 단천군수에 부임하였다.

1673년(현종 14) 사헌부장령이 되었다가 예빈시사도(禮賓寺司導)

시정(寺正)이 되었다. 다음해에 경차관(敬差官)으로 명을 받들고 호남지방에 가서 옥사를 다스리다가 창원부사에 임명되었는데 체직되었다가 정평부사(定平府使)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그 후 영천군수, 사간원정언, 헌납, 태상부종부시정(太常付宗簿寺正), 사헌부장령을 지내고 1683년(숙종 9)에 조정에 큰 공을 세워 통정대부 품계에 올라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고, 다시 우승지로 승격되었으며, 내국상방(內局尙方)과 부제거(副題擧)에 겸직되었다. 1684년(숙종 10)에 체직되어 호조참의, 병조참의, 사간원에 임명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벼슬을 감내하지 못하였는데, 이때가 1687년(숙종 13)이며 그해에 세상을 떠났다.

(8) 정한주(鄭翰周 1632~1701)

해주정씨이며 1661년(현종 2)에 감시(監試)에 합격하여 1680년(숙종 6)에 낭청(郎廳)을 시작으로 관직에 올라 중부참봉(中部參奉)에 제수되어 종부시(宗婦寺)에 근무했다. 이때에 『선원록(璿源錄)』 51권, 『열성지장(列星誌狀)』 등 많은 서책 편찬에 참여했다. 1683년(숙종 9), 52세의 나이에 종묘부봉사(宗廟副奉事), 부직장, 직장으로 승급되었고, 1685년(숙종 11), 주부(主簿)가 되었다. 그해 금부도사에 임명되고 경산현령(慶山縣令)을 지냈다. 사후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9) 정우주(鄭羽周 1640~1689)

해주정씨로 1676년(숙종 2)에 무과에 급제하여 절충장군과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지냈으며 사후에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에 증직되었다.

(10) 정익주(鄭翊周 1640~1715)

1675년(숙종 1)에 생원에 급제하고 회덕현감과 삼물소(三物所) 낭청(郎廳)과 말년에는 금천군수를 지냈다.

(11) 정진설(鄭震髙 1654~1722)

한주(翰周)의 아들이다. 1682년(숙종 8)에 생원과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사재감(司宰監) 첨정(僉正)을 지냈다. 사후에 그의 공이 인정되어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고 증 호조참판(贈戶曹參判)에 증직되었다.

(12) 정진보(鄭震輔 1681~1743)

1711년(숙종 37)에 무과에 급제하여 방어사를 지냈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이며 검암 허암산에 묘가 있었으나 김포로 이장되었다.

4) 경서동(景西洞)

(1) 김진호(金盡浩 1624~?)

본관은 김해김씨(金海金氏)이며, 경서동으로 처음 세거를 한 입향조(入鄕祖)이다.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정3품 당상관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2) 김홍직(金洪稷 1668~1754)

김해김씨이다. 정2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받고 중추부(中樞府)의 정2품 무관직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것으로 족보와 비에 기록되어 있다.

(3) 류사눌(柳思訥 1374~1440)

문화류씨(文化柳氏)로 고려조 때 대승(大丞)을 지낸 류차달(柳車達)의 후손이며, 충장공(忠裝公) 류임(柳臨)의 아들이다.

3세 때 아버지를 잃고 14세에는 어머니마저 잃어 숙부 하정공이 데려다 키웠다. 어린 나이에 계양산 망월사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는데, 경전뿐 아니라 문장에도 능하였다고 한다. 1391년(공양왕 2), 16세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1393년(태조 2), 춘장문과(春場文科)에 급제했다. 1407년(태종 7)에 병조정랑을 역임하면서 문과중시(文科重試) 친시을과(親試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전(田) 10결과 노비를 받았다.

류사눌은 사헌부장령이 되었다가 중서사인(中書舍人)을 거쳐 1409년(태종 9)에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낼 때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형제를 탄핵하여 황해도 안악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사헌부 좌사간(司憲府佐司諫)에 복직되고 1411년(태종 11)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품계를 받고 승정원 좌

부대언(承政院左副代言)이 되었다.

1416년(태종 16)에 승정원 지신사(知申事) 벼슬을 할 때 소합유(蘇合油)를 진상하는데 실수를 저질러 다시 황해도 안악에 유배를 갔다가 풀려 1416년에 홍주목사를 거쳐 경상도 도관찰사로 전임되고 1417년(태종 17)에는 함길도 도순문사(咸吉道 都巡問使)를 거쳐 다음해 함길도 관찰사를 지내고 1422년(세종 4) 강원도 도관찰사와 이듬해 한성부윤 겸 경기감사를 지내며, 1425년부터 1427년까지 경창부윤(慶昌府尹), 인수부윤(仁壽府尹), 인순부윤(仁順府尹)을 역임하고, 선위사(宣慰使)를 역임하였다.

1428년(세종 10)에 좌군총제(左軍總制) 겸 한성부윤을 거쳐 같은 해 11월 예문관대제학에 오르고 12월 관배 진하사(官排進賀使)로 임명되어 중국 황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사신이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1430년에 좌군총제(左軍總制) 겸 예문관대제학으로 관습도감(慣習都鑑)의 악학제조(樂學提調)로서 아악보(雅樂譜)의 서문을 지었고, 1434년에 진작가사(眞雀歌辭)를 지어 예악부(禮樂府)에 실는 등 박연(朴堧)과 더불어 아악보(雅樂譜)를 정리했고, 용흥가(龍興歌)를 짓고 신주조회악기(樂器) 및 가자(架子)를 만들었다.

1440년(세종 22)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손(孫)으로는 상장군으로 대마도 정벌에 공헌한 희생(喜牲)과 군수를 지낸 우생(偶生),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된 갱생(更生)이 있다. 류사눌은 문장에도 뛰어났는데 구월산별곡, 부평망일사시, 화양정기, 밀양 영남루를 두고 지은 시 등이 전해진다. 그의 묘는 현재 서구 경서동에 있으며, 인천시 유적 제5호로 1990년에 지정되었다.

(4) 류갱생(柳更生 1426~1491)

사눌(思訥)의 셋째아들이다. 희생(喜生), 우생(偶生) 형제들과 더불어 과거에 급제하여 호방(虎榜)에 들었다. 경남 양산의 기장(機

張)과 흡곡(歙谷)에서 현령의 벼슬을 시작으로 여러 직을 수행하고, 1473년(세종 14)에 외관직 정4품 무관직인 만호(萬戶)를 거쳐 월곶첨절제사(月串僉節制使)를 지냈고 사후에 병조참판을 추증 받았다.

(5) 류영석(柳永錫 1457~1503)

과거에 급제하여 선교랑(宣敎郞)을 지냈고 사후에 육조의 정랑 겸 춘추관 기주관(記注官)을 추증 받았다. 평생에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았으며, 형제간에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부모의 봉록만으로 살았고 집은 몹시도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청렴결백하게 벼슬을 지냈다.

(6) 류경조(柳敬祖 1461~1549)

문화류씨 가문 출신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다. 1506년(중종 1)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정 좌랑, 정랑을 거쳐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종5품 벼슬인 사성에 조참의(司成禮曹參議)에 오르고 외직으로 영월부사를 역임했다. 1532년(중종 27)에 함경도사로 관리들의 감찰, 규탄을 맡은 종5품 관에 오르고, 이어 1544년(중종 39)에 의흥위사직(義興衛司直)을 거쳐 가선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예조참의직을 수행했다. 나이가 들어 당상관(堂上官)에 오르자 왕은 특별히 표리(表裏) 한 벌과 용의(龍衣) 두 벌을 하사하였다. 평소 사람에 대해 할 때는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돈독했으며 벼슬자리에 있을 때 덕을 자랑하지 않았고, 선조에 대한 섬김이 지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5) 연희동(連禧洞)

(1) 이용형(李庸亨 1834~1906)

연안이씨(延安李氏)로 1700년대 후반 김포에서 이주하여 세거를 시작한 중원(重元)의 후손이다. 자는 영호(永浩)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많은 벼슬을 거쳐 조선조 종친부(宗親府)인 돈령부에서 종친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3품 벼슬인 도정(都正)을 지냈으며, 품계는 통정대부였다.

(2) 정유명(鄭惟明 1546~1594)

초계정씨(草溪鄭氏)로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처음으로 연희리에 입향하여 세거를 시작한 입향조이다. 1591년(선조 24) 사마시 양시(司馬試兩時)에 급제하여 성균관 진사를 지냈고 사후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버지는 전라병사(全羅兵使)와 의빈부(儀賓府) 부위(副尉)를 지낸 순(珣)이다.

(3) 정석(鄭晳 1574~1632)

초계정씨이다. 1613년(광해군 5)에 참봉과 동년에 진사가 되고 1624년(인조 2), 천계갑자(天啓甲子) 문과병과에 급제하여 찰방을 거쳐 병조좌랑, 통훈대부, 부평부사를 지냈다.

(4) 정간(鄭諫 1653~1725)

초계정씨로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하여 고양군수, 수안군수(遂安郡守)를 거쳐 순천부사, 제주목사, 수군절도사를 지냈다.

(5) 정학희(鄭學希 1798~1882)

초계정씨이다. 효행(孝行)이 독실하여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 받았으며, 여러 벼슬 끝에 조봉대부(朝奉大夫)의 품계를 받았으나 직을 알아볼 수가 없다. 부인은 영인 풍산심씨(寧人 豊山沈氏)의 작호가 내려졌다.

6) 심곡동(沈谷洞)

(1) 이비(李備 1494~1561)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정종의 제14세손인 정석군(貞石君) 융생(隆生)의 손자이고, 횡천도정(橫遷都正)을 지낸 겸(兼)의 셋째 아들이다. 심곡리에 처음 입향하여 세거를 시작한 인물이며, 조선조 정3품 당하관(堂下官)인 종친관계(宗親官階) 품계인 창선대부(彰善大夫) 강동부령(江東副令)을 지내는데 부령(副令)은 종친에게 내리는 종5품의 벼슬이다.

(2) 이백년(李百年 1512~1570)

이비(李備)의 장자이다. 종친부(宗親府)의 벼슬인 명천감(名川監)을 지냈다.

(3) 이만년(李萬年 1518~1585)

이비의 차자이다. 숙천감(肅天監)의 종친부 벼슬을 지냈으며, 현재 심곡동에 거주하는 전주이씨 후손들이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4) 이경년(李敬年 1556~?)

전주이씨로 이비(李備)의 4남(四男)이다. 벼슬은 희천감(熙川監)이며, 계(階)는 창선대부의 품계를 종친부(宗親府)에서 받았다.

(5) 이계완(李啓完 1568~1652)

숙천감(肅天監) 이만년(李萬年)의 손자이다. 음직(蔭職)으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6) 이점완(李點完 1568~1652)

전주이씨로 참봉을 지낸 충남(忠南)의 삼남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많은 벼슬을 거쳐 오위도총부 도총관과 관리들의 감찰이나 규탄을 맡아 보는 벼슬인 도사(都事)직을 지냈으며,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그 공이 인정되어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7) 이지익(李志益 1660~1725)

전주이씨 문중이다. 아버지는 직장(直長)을 지낸 흥완(興完)이다. 지방 관직으로 각 부의 수령인 부사를 지냈다.

3. 근현대 인물

1) 백석동

(1) 심혁성(沈赫誠 1888~1958)

한들부락의 유서 깊은 평산심씨(平山沈氏) 가문에서 출생했다. 청년기에 계양면 오류리(현 계양구 오류동)에 이주했고 3·1운동 때 계양면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4일 오후 2시경 계양면 장기리시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시위하던 군중들이 그를 연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은선(李殷先)이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지기도 하였다. 군중들은 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여 다른 면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었다.

1919년 10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1년 3개월 남짓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연명하다가 8·15 광복 후 고향인 백석동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 심홍기(沈鴻基)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독립투사 심혁성의 아들이다. 소년기에 부친을 따라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서 약초를 캐서 팔아 연명하다가 해방 후 고향 백석동에 안주, 한약종상을 경영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서곶 12개 동리에 양의나 한의가 없어 침술을 펼치기도 했다. 1962년경 새마을사업에 앞장서고 사회사업가로 봉사를 실천하여

존경을 받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냈다.

(3) 심덕기(沈德基 1911~1992)

한들부락의 유서 깊은 평산심씨 가문에서 출생해 1932년 경성농업학교(현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경기도 금촌금융조합에서 일했다. 일제의 수탈로부터 민족자본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고 고심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1951년 최초 지방자치제 실시 때 민선 시의원에 서곶대표로 당선되어 고향 서곶의 발전과 민주적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애썼다. 1954년 제2대 인천시의원에 재선되고 의장에 피선,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있는 정책을 펴는 데 주력하였다.

1950년대에는 북서곶 검암동에 사유지 3만여 평을 쾌척하여 영화중학교 분교를 설립하고 낙후되어 있던 서곶지역의 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웠다. 이 학교는 이후 서인천중, 고려중, 인광중으로 교명을 변경해 오다가 서인천고등학교로 이어졌다.

2) 시천동

(1) 류완무(柳完茂 ?~1909)

시천동 시시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아명이 인무(寅茂)여서 ‘유인무’로도 알려져 있다. 1898년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 감리서 감옥에 갇혀있던 백범 김구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후 백범과 간담상조하며 교유하였다. 1904년 간도감계(間島勘界) 지리서인 『북여요선(北興要選)』의 간행사업을 주도하였다.

1905년 이후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성태영(成泰英) 등과 독립운동 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1908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신문 간행사업에 참여하여 장지연(張志淵)을 영입하였고 교육사업에도 적극 나섰다. 동년 12월 상항지방회 특별회원, 1909년 2월 국민회 해삼위지방회 회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 류희강(柳熙鋼 1911~1976)

시시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검여(劍如)이다.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 애국지사 류완무, 서예가 류희강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명문 가문에서 성장,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향교에서 공부한 뒤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인 경학원 명륜학원에 다녔다. 그 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상하이(上海) 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북경으로 가서 서예와 금석문을 공부했다.

8·15 광복으로 귀국, 서울의 중국어 신문사 한성일보사에서 일하다가 인천으로 돌아와 인천 예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미술평론가 이경성 등과 함께 인천의 문화를 부흥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1952년경부터 서예에 몰입했다.

1952년 인천문총회관에서 박세림·장인식 등과 함께 대동서화동인회를 결성하고, 그 모임의 부회장이 되어 활동하면서 서예활동에 온 정열을 바쳤다. 1953년과 이듬해 국전에서 박세림·장인식 등과 나란히 연속 입선하였다. 1955년부터는 특선과 문교부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1958년까지 계속 4회에 걸쳐 특선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에는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1959년에는 국전 심사위원 자격을 갖게 되는 국전 초대작가가 되기에 이르렀다.

실무와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서울 관훈동에 검여서원을 열었으며, 인천시립박물관장, 한국미술가협회 중앙위원, 인천교육대학 및 홍익대학, 서라벌예술대학, 동덕여자대학 강사 등으로 일했다. 과로의 후유증으로 뇌출혈에 걸려 오른손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좌수 서예를 위한 치열한 정련을 거쳐 마침내 오른손 서예보다 더 깊어진 예술세계를 보여 주었다. 서예 전문가들은 검여의 초기 글씨는 웅건(雄健)한데 비해 만년의 좌수서는 청경(淸勁)하다고 말한다.

육서 글씨에 모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전각과 그림에도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조체(六朝體)의 행서를 잘 썼다. 그의 작품은 기획전시가 거의 없는데다가 소장가들이 소중히 끼고 있어 일반은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사찰편액에 남긴 것을 볼 기회가 많다.

그가 사찰에 남긴 글씨는 많지 않으나 수원 용주사의 「용주사」, 「경기제일가람용주사」, 「범종각」, 합천 해인사 「범종루」, 「사운당」 편액 등이 전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용주사 사문에 걸려있는 「경기제일가람용주사」 편액은 무늬 없는 좁은 변죽을 덧댄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액판 좌측 위쪽에 ‘검여(劍如)’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의 글씨는 1968년 이전에 쓴 것으로 북위(北魏) 해서의 필의(筆意)를 지녔으며, 결체(結體)가 단정하고 필치가 주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 류희진(柳熙晉 1886~1952)

호는 심남(心南)이다. 시천동에서 출생하였다.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 애국지사 류완무, 서예가 류희강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명문가문에서 성장,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관립한성법어학교에 입학해 수석 졸업했다.

1909년 약관 24세에 압록강 국경지역인 평안북도 용천의 용암포 세무서장으로 부임해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역의 관세 등 업무를 담당하며 청백리로 이름이 빛났다.

한일강제 합병 후 향리와 성균관을 오가며 묵묵히 학문수양에 전념했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 부천군 군서기로 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 후 다시 학문연구에 열중, 1930년대 명륜학원(뒷날 명륜전문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사로 일했다.

8·15 광복 후 한때 미군정 인천부 서곶지청장을 지냈다. 서곶 갯벌 간사지사업, 성인교육, 고적보존, 유림 재조직 등에 기여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부평향교 2대 유도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1952년 65세 나이에 인천시 부평출장소장에 부임해서 일하다가 별세했다.

저술에 『이조사변강요(李朝事變綱要)』 『건국과 유림』(1950 조선교학사) 등이 있고 별세 후인 1953년 유고 「서곶지방지」가 『인천공보』에 연재되었다. 이 것은 서곶지역의 첫 향토사 연구의 성과물이었다.

(4) 류희태(柳熙泰)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시천동에서 출생하였다.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 애국지사 류완무, 서예가 류희강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명문가문에서 출생해 성장했다.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성균관에서 공부했다. 1909년 12월 한일 강제합병 조짐이 떠오를 때 류경무(柳慶茂)

와 더불어 풍습과 규율이 다른 두 나라의 합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1916년부터 부평향교 전교를 맡아보았다.

3) 검암동

(1) 송병기(宋炳基 1911~1998)

검암동 상동 출신이다. 인천공립직업학교(현 인천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주로 서곶출장소에서 뒷날 향토사가가 된 이훈익과 함께 일했다. 주민들의 신망을 등에 업고 1960년 인천시 의원에 당선되어 일했다.

(2) 송범식(宋範植 1917~?)

검암동 상동 출신이다. 부평향교에서 한학을 공부했으며 서곶 일대의 풍수를 판단하는 지관으로 살았다. 부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3) 정훈석(鄭薰錫 1850~1935)

검암동 해주정씨 가문에서 출생해 부평향교에서 공부했다. 정지석의 형이다. 1914년 모월곶면과 석곶면 2개 면을 통합해 부천군 서곶면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초대 서곶면장으로 부임, 동년 4월 1일부터 1920년 2월 7일까지 일했다.

(4) 정규석(鄭奎錫 1858~1945)

해주정씨로 일명 인석(麟錫)이라고도 했으며, 자(字)는 원오(圓五) 혹은 공진(公振)이며 호는 취성재(聚星齋)이다. 고로(故老)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각종 의례(儀禮)에 통달하였고 풍류(風流)에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단아하면서도 섬세한 필력(筆力)은 비할 데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제축(祭祝)에 대한 제가(諸家)의 논(論)을 모아 『축문식(祝文式)』 한 권을 편찬하여 후인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모성존도원(慕聖尊道院; 조선의 패망 이후 성균관이 폐쇄되고, 문묘의 제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유학을 장려하고 문묘제사를 부활

시키기 위해 유림에서 세운 기관)에서 1934년에 작성한 『대성문에
경약소 청금의안(大成文藝京約所靑衿議案)』에 따르면, 그는 입신
출세(立身出世)를 탐하지 않고 오직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힘쓰는
한편 향촌(鄉村)을 선도한 군자(君子)로서 유림의 존경을 받아 사예
(司藝)로 추천되었다고 한다.

(5) 정지석(鄭芝錫 1859~1939)

해주정씨 집성촌에서 출생, 부평향교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895년 36세 늦은 나이에 관립한성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했다.

1896년 2월 27일 강화공립소학교 교원으로 임명, 판임관 6등 직급
을 받았다. 1899년 9월 평안남도 삼화향(三和港) 공립소학교 교원으
로 가고 동년 12월 30일 강화공립소학교로 복귀했다. 1900년 5월 판
임 5등, 1901년 4등, 1904년 6월 3등으로 승급했다.

1905년 10월 경기도 풍덕군 공립학교 교원으로 가고 1907년 1월
관립청정(淸淸)보통학교 교원으로 전근했다.

그 후 교원직을 사임하고 향리에서 사설강습소를 열고 서곶지역의
교육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1924년에는 경기도 부천군 학교평의회
회원을 맡았다. 부평과 서곶의 경관을 읊은 「계양팔경」을 남겼다.

虛庵冷井(허암냉정) 검암동 허암산에 있는 찬 우물

雷岩宿雲(뢰암숙운) 벼락바위에 머무는 구름

蘭浦靈葉(난포영엽) 난지도의 신비한 난지초 잎

桂山懸瀑(계산현폭) 계양산 절벽에 내걸린 폭포

尾島落照(미도낙조) 서해의 꼬리섬에 지는 해

鷹峯朝輝(응봉조휘) 매봉재의 빛나는 아침빛

琢玉成文(탁옥성문) 탁옥봉에서 수도하여 문장을 이룸

天馬皇瑞(천마황서) 천마산의 상서스러운 기운

(6) 정홍석(鄭洪錫 1878~1940)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검암동 상동 해주정씨 가문 출신의 애국계몽 운동가이다. 그의 족보에는 검암동 106번지로 출생지가 실려 있다.

1907년 향리인 검암리 상동에 보명학교(普明學校)를 세우고 독립 정신과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것은 『대한매일신보』 1907년 09월 29일자에 「보명유망(普明有望)」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나와 있다. 부평군 모월곶면 검암리에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보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교장은 정홍석, 감독에는 심상덕, 교사로는 정태헌이 직무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홍석은 한약 행상을 하며 중국 상하이까지 갔고 윈난(雲南)에서도 인삼 판매 사업을 했다. 1910년 일본 상하이 총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의 강제합방에 대한 상하이 체류 한인들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 중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1920년대에 상하이를 떠나 윈난(雲南)으로 갔다. 그곳에 있는 강무학교(무관학교)에 조선인 청년들이 입학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남아 있다.

(7) 정태헌(鄭泰憲 1880~1949)

검암동 108번지에서 출생해 부평향교에서 공부했다. 같은 정씨 가문의 숙부인 정홍석과 함께 1907년 부평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인 보명학교를 설립하였다. 1910년 강제합방으로 학교가 폐쇄되고 정홍석이 중국 상하이로 떠나자 자택에서 서당을 운영하였다. 해주정씨 족보에도 교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맡은 직책인지는 알 수 없다.

(8) 정태국(鄭泰國 1889~1948)

검암동 해주정씨 집성촌에서 출생,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 향교에서 공부했다. 1920년 2월 28일부터 1935년 10월 27일까지 15년간 부천군 서곶면장으로 일했다.

(9) 정태준(鄭泰俊 1895~1978)

검암동 해주정씨 집성촌에서 출생,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 향교에서 공부했다. 1967년부터 부평 향교 전교를 지냈으며 학식과 덕망이 높아 서곶지역에서 존경을 받았다.

(10) 정광근(鄭光根 1929~2004)

검암동 중동 마을의 해주정씨 집성촌에서 출생해서 성장했다. 6·25 동안 중 미군 통역관으로 복무하였고, 그 인연으로 휴전 후 부평의 미8군 에스컴(SCOM, 주한미육군병참본부) 기지의 NCO클럽 인천, 김포, 강화 지역 총책임자로 일하고 1989년 정년퇴직하였다. 근면한데다 사업수완이 좋아 미군 클럽에서 모은 재력을 고향 서곶 지역의 검암염전, 인광목장, 백석 남시터에 투자하여 부를 쌓았다.

1964년 서곶지역 유일의 중학교인 고려중학교가 재정파탄으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폐교위기를 막아 내었다. 그 가문이 개화기 이래 최고의 교육자 가문이었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1967년 서곶 유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학교 유지재단을 인수했다. 교명을 인광중학교로 개칭하고 재단법인 인광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넣었다.

영화중학교-서인천중학교-고려중학교-인광중학교로 이어진 이 학교는 철마산과 계양산으로 막혀 인천과 부평 다운타운보다 크게 낙후되고 교육에서 소외된 서곶지역의 등불과도 같은 학교였다. 김포의 검단지역 학생들도 김포읍까지 거리가 멀어 이 학교를 다녔다. 고

려중학교의 폐교를 막지 못했다면 서곶과 검단 지역의 교육환경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 지역발전 및 인재양성에 큰 차질을 빚었을 것이다.

그밖에 그는 인천시 3,4,5,6대 자문위원, 인천 부평경찰서 자문위원, 인천시 북구 체육회장, 부평향교 장의(掌儀), 서곶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고향 서곶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유대강화에 힘썼으며 서곶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산가가 아니었다. 열심히 일해 모은 재력을 궁핍하고 어려운 고향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다. 노경에 들어 서곶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신설 서인천고 재단에 학교 운영을 넘겨주고 훌훌히 세상을 떠났다.

(11) 정계섭(鄭桂燮 1941~1975)

검암동 해주정씨 가문에서 출생했다. 인천고등학교에 재학하던 1956~7년 야간에 영등포에 있는 방송학원을 다니며 방송기기의 원리와 수리기술을 익혔다. 고교 졸업 후에는 동인천역 앞에 있던 아리랑소리사에 취업하여 일했다.

1961년 6월 검암동 342번지 자기 집 사랑채에서 앰프 및 방송 송출시설 등을 갖춘 뒤 유선방송 허가를 얻어 냈다. 군용전화선(일명 BB선)을 다량 구입한 뒤 두 아우와 함께 야산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 전주를 세우고 스피커를 조립했다. 수신신청을 한 북서곶의 230가구를 방문, 방송 청취가 쉬운 대청에 스피커를 달아 주고 송출을 시작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1세, 북서곶 전체에 진공관 라디오가 모두 합해 대여섯 대밖에 없던 시대였다. 서곶의 라디오 보급률이 낮았던 것은 가난이 큰 이유였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건전지를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 진공관 라디오는 건전지 소모가 매우 컸다.

당시는 TV는 없고 라디오 방송도 KBS와 극동방송이 전부였다. 신문도 서곶출장소와 서곶지서 등에 들어오는 대여섯 부가 전부였다. 정계섭은 KBS를 방송했다. 뉴스와 일기예보, 음악, 연속극 등을 듣게 되어 북서곶은 이때부터 획기적인 문명시대를 맞게 되었다. 집집마다 볼륨을 크게 하여 집밖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청취료는 가을 추수 후 곡식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다섯 해 만인 1965년 그동안 미뤄왔던 군 입대를 하게 되어 사업을 접었다.

비록 5년간이었지만 문화향수의 수평을 크게 올려준 것이었다. 1965년 이후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발명되어 보급되었으나 그것을 구입한 가구도 적었다.

4) 경서동

(1) 강교신(姜敎信)

생몰년을 알 수 없다. 경서동 고잔마을 출신이다. 인천상업학교를 나와 철도청에서 장기근속했으며 여러 곳의 역장을 지냈다.

(2) 오강산(吳江山)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말기 서곳 경서동에서 출생했다. 소년기에 해안 방비 초병들로부터 총포술을 배우고 명포수가 되었다. 1906년 경서동 금산에서 큰 호랑이를 잡았다.

(3) 허용(許容 1918~1989)

경서동 양천허씨(陽川許氏) 집성촌에서 출생하여 부평공립보통학교를 거쳐 서울 중동중학교를 졸업했다. 1940년대 초반 경기도 인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50년대 서곶출장소장에 부임했다. 1961년 인천시청으로 전출되어 인사계장, 용도계장, 관리계장, 양정계장 등으로 일했다.

퇴임한 뒤에도 서곶지역 지도자로서 명망을 쌓았다.

(4) 허정(許楨 1924~2003)

경서동 양천허씨 집성촌에서 출생했다. 서곶공립보통학교 4년을 수학하고 부평공립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학하여 졸업했다. 1941년 경성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김포군 농회 기수로 일하다가 그해 9월 인천정상공립국민학교(현 서곶초등학교) 교원이 되었다. 1948년 동교 교감으로 임명되고 1960년까지 19년간 근무했다.

1960년 고향 서곶을 떠나 김포단봉국민학교, 의정부국민학교 교감을 거쳐, 포천이곡국민학교 교장으로 임명되고, 김포군 대명국민

학교와 검단국민학교, 연천군 전곡국민학교, 인천의 만석국민학교, 부평동국민학교 교장으로 봉직했다. 중간에 양평군 교육청 장학사와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계장으로 일했고, 1989년 정년퇴임하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91년 인천직할시 민선 교육위원에 피선되어 4년간 일했다.

교육자로 활동한 일 외에 1945년 서곶귀향장병단 단장, 1989년 한국청소년 인천연맹 자문위원, 1993년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인천미추홀봉사단 이사, 1996년 사단법인 삼락회 인천지회 부회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 위원, 1997년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 부회장, 2002년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으로 일했다.

서곶에서만 20년 가까이 봉직한 교육자로서 토박이 주민 태반의 스승인데다 덕망이 높아 서곶 지역의 사표로서 평생 존경을 받았다.

5) 연희동

(1) 김윤화(金潤花 1848~1914)

연희동 상산김씨(尙山金氏) 집안에서 출생했다. 부친이 인천 해관(海關)에서 일한 터라 인천 율목동에도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내리교회에서 나갔다. 그는 조원시(趙元時 G. H. Jones) 목사의 신임을 받았고, 조원시의 격려와 지원 속에 1903년 12월 연희동 고향집에 기도처를 만들고 첫 예배를 올렸다. 이것이 인천 서구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연희교회의 시원이 되었다.

미국의 북감리교파 소속이었던 조원시 목사는 선교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이민사업을 전개하였다. 미국의 이민사업가 데슬러(D. W. Deshler)의 요청으로 내리교회 교인들에게 이민을 권유함으로써 1902년에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었다. 당시 하와이 설탕회사에서는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들을 보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정부는 적극 호응하게 되었고 조원시 목사가 앞장서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로 내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102명의 이민단이 그 해 12월 22일에 미국 상선 게릭호(S. S. Gaelic)편으로 제물포항을 출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민자 대부분이 교인이었으므로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조원시 목사는 전도사들을 파견하였다. 김윤화는 자신의 외아들 기선과 처남 박제원(朴齊源; 개화기의 주요한 인물인 박영효의 사촌아우)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1911년에 권신일을 목사로 초빙해 정식교회로 발족시켰고 신도 수를 차츰 늘려갔다. 그는 아들과 처남을 남겨 놓고 귀국해 연희교회를 일으키는 데 열성을 바쳤다.

(2) 김기선(金基善 1885~1963)

연희동의 상산김씨 집안에서 출생했다. 부친 김운화의 영향으로 소년기에 개신교에 입문했다. 1903년 부친은 인천내리교회 조원시(趙元時 G. H. Jones) 목사의 지원을 받아 연희동 집에 기도처를 만들고 첫 예배를 올렸다. 김기선은 그 후 목회자가 되기 위해 미국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장학금이 보장된 신학대학에 가지 않았다.

노동을 하며 각고의 노력 끝에 30대 중반에 네블라스카 주의 링컨 고등학교를 정규과정으로 졸업하고 명문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했다. 용모가 수려하고 행동이 의연하여 ‘동양의 귀공자’로 불리었다. 이때도 학비를 벌기 위하여 고학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공화당의 중요한 간부였다. 집주인은 그의 사람됨을 보고 공화당 본부에 추천했다. 그 때 미국 공화당은 하딩(Warren. G. Harding)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김기선은 프린스턴대학을 중퇴하고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에 몰두, 하딩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경제에 대한 판단력도 뛰어나서, 투자한 도료(塗料)회사의 주식이 뛰어오르는 바람에 거부가 되었다.

그는 이 무렵 조국의 독립운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923년 그는 노모의 간청으로 일시 귀국을 결심, 하딩 대통령이 사준 1등석 왕복 배표를 들고 귀국하여, 조원시 목사가 세운 인천 영화학당(현재의 영화초등학교 및 중학교) 출신이며 내리교회 신자인 신언마(申言麻) 처녀와 결혼하였다. 그의 독립운동 활동과 1923년 일시귀국, 재도미와 관련한 일제 외교관들과 관헌들의 기밀보고서들이 자료로 남아 있다.

다시 미국으로 간 그는 더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이름 모를 병에 걸려 1926년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고국 땅에서 저절로 병이 나왔다. 일본 경찰의 위협적인 감시를 받았으나 장차 민족혼 교육을 하

기 위한 학교 설립을 결심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망라하는 대규모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부평역 주변과 일신동의 땅을 사들였다.

한편 고향인 연희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귀국 즉시, 아버지가 만든 예배소를 증축했으며, 1938년에는 토지와 건축비를 내놓아 연희동 238번지에 본당을 이전 건립했다. 교회 이름은 선친의 이름을 딴 김윤화기념예배당이였다. 그는 교회의 재정을 위해 과수원을 만들었다. 이 유서 깊은 교회는 비로소 본격적인 근대식 회당을 갖추게 되었고 뒷날 연희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가 육영사업을 위해 부평에 사놓은 토지들을 강제로 징발해 병기창을 만들었다. 김기선은 은인 자중하며 모멸의 세월을 보내고 8·15 광복을 맞았다. 링컨 고등학교 후배인 남한 지역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이 그를 찾아와 군정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사양하다가 서울로 가서 군정청의 비정치적인 자리에 앉아 일했다. 그러나 해방조국이 좌우익의 대결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부평과 일신동의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결국 농지개혁의 바람 속에 포기했다. 뒷날 이 토지들은 각각 미군 병기창과 국군 예비사단이 들어앉았다.

한국전쟁을 겪고 1950년대 후반에는 출생지인 연희동에서 선친과 자신이 애써서 만든 교회와 과수원을 지키며 살았다. 교회 신도가 계속 늘어났으므로 1959년 다시 재산을 헌납해 연희동 산 71번지에 새 회당을 건립했다. 그리고 74세 되던 1963년에 연희동 고향집에서 세상을 하직했다.

그는 자식을 열 명이나 낳았다. 그 중 장남 옥돈은 1940년대에 브나로드 운동과 농촌정신대 반대운동을 펼쳐 구속되기도 했다. 1957년에는 이광수의 장편소설 「사랑」을 인천에서 극영화로 촬영 제

작했다. 인천에서는 애관극장에서 상영했다. 다른 아들들은 언론인, 교수, 육군 대령, 회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

한편 연희교회는 1980년 현 위치인 심곡동 352-4번지로 증축 이전하였다. 이 곳 역시 김기선의 자녀들이 내놓은 토지였다.

(3) 김옥돈(金玉敦 1924~1999)

연희동 출신 미국 유학생이던 김기선의 장남으로 미국 유타 주 오그덴(Ogden) 시에서 출생했다. 1926년 부모와 함께 귀국, 연희동과 울목동에서 성장했다. 인천공립보통학교(재학 중 창영심상소학교로 교명이 바뀜. 현 창영초교), 배재고보를 거쳐 일본 도쿄 와세다대를 중퇴했고 중년기에 들어 연세대 대학원에 다녔다.

1940년대 초반 농촌계몽에 앞장섰으며, 그 과정에서 일제의 농촌 정신대 정책을 비판하고 독립정신을 강조한 사실 때문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부친 김기선이 나서 아들을 학병에 내 보내겠다고 약속해 조건부 석방으로 출옥했다. 1945년 8월 학병열차에 실렸으나 평양역에 이르렀을 때 일본이 항복해 귀가할 수 있었다. 광복 직후 반년 쯤 서곶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인천척후대(보이스카웃) 운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후 알루미늄 식기 제조와 무역 사업에 투신했다. 1957년에는 가까운 지인이던 갈홍기(당시 이승만 정부의 공보처장)의 권유로 영화 제작에 눈을 돌려 처남이던 공병두와 공동출자로 신광영화사를 설립, 이광수의 장편소설 「사랑」을 인천 울목동 부인병원과 송현동 이화창고 세트에서 극영화로 촬영 제작했다. 35mm 10권의 흑백필름이었다. 1957년 6월 1일 개봉했으나 예술성이 강하고 통속성은 약해 흥행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 후 영화에서 손을 떼고 화공약품업체인 경인화공, 가발 제조 수출업체인 태양물산 등 회사를 경영했다.

(4) 송병식(宋炳植)

생몰년 모름. 연희동 출신이다. 부평향교에서 한학을 공부했으며 서당을 열어 훈장으로서 북서곶 일대 학동들을 가르쳐 유명했다. 부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5) 이용덕(李庸德 1897~?)

연희동 연안이씨(延安李氏) 가문 출신이다.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중국에 진출, 토지개척으로 부를 축적했다. 1930년대에 귀국해 농지개척 사업을 펼쳤다. 김포 홍두평 벌판 개척과 한강수리조합 공사에 참여해 큰 기술과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중국인 쿠리(苦力)들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그 후 강원도 김화의 황무지를 개척해 70정보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동란 때 반동지주로 몰려 연행되고 행방불명되었다.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 노동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뒷날 알려졌다.

(6) 이현신(李賢新 1886~1963)

연희동 출신으로 향토사학자 이훈익의 부친, 소설가 이원규의 조부이다. 부평향교에서 한학을 공부해 조예가 깊었다. 청년시절 서곶면협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1954년 부평학교 전교(傳敎)를 지냈다.

(7) 이훈익(李薰益 1916~2002)

부평향교 전교를 지낸 유학자 이현신의 3남으로 출생했다. 부평공립보통학교를 나와 부친이 있는 부평향교에서 한학을 배웠다. 부천군 서곶면사무소의 임시고원으로 임용되어 일하다가 공무원양성소를 수료하고 동 면사무소 서기로 임용되었다. 이후 30여 년 간 서곶출장소장 등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직당한 뒤 인천원에농협의 전무대리로 일자리를 얻어 1976년 전무로 정년퇴임했다. 이후 서인천농협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조합장을 맡았다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인천사 발굴 정리에 몰두했다.

그 성과를 1983년 『인천충효록』을 시작으로 『인천지지』, 『인천지방 향토사담』, 『인천의 성씨 인물고』, 『인천 지명고』, 『인천지방의 전통제례』, 『인천 금석비명집』, 『근세 인천지방의 전란사』 등을 집필, 자비로 출간하였다.

1997년부터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장을 맡았으며, 향토사 연구 공로가 현저하여 1983년 인천교육대상, 1996년 인천광역시문학상, 1998년 서울신문사 제정 한국향토문화대상을 받았다.

2002년 서구청 청사에서 『서구사』 출간과 서구문화원 창립 주비모임을 주재하다가 쓰러져 타계하였다.

(8) 장범록(張範祿 1913~2011)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연희동 317번지에서 출생, 부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단신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 고학으로 도쿄(東京)의 니시키키시로(錦城)중학교를 나와 와세다(早稻田)대학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9년 경기도청 공작부 공작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44년부터 1954년까지 11년을 인천부(仁川府)와 인천시의 서곶출장소에서 근무했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진력하여 일제강점기말기와 광복 직후 서곶 지역의 가장 존경 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1954년 인천시 발령에 의해 고향 서곶을 떠나 인천시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시청의 총무과장, 재무과장, 회계과장 자리에 올라 1966년까지 인천시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시장을 제외하

면 과장 직급이 인천시정부의 최고위직이었으므로 그 기간 인천시의 실질 운영을 좌우한 실력자 위상에 있었다.

27년 3개월 동안 인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표창을 받았다. 1955년 인천시장 표창, 1958년, 1960년, 1962년 경기도지사 표창, 1963년 내각수반의 표창 등이다. 인천시 총무과장 재직 시 월간 『지방행정』 (통권 103호, 1962.5)에 발표한 논문 「행정 운영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한국 지방행정 실무의 전범이 되었다.

(9) 정구영(鄭龜泳 1854~1915)

연희동 셋말 초계정씨(草溪鄭氏) 집성촌에서 출생,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향교에서 공부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 서곶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1915년 부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10) 정필영(鄭弼泳 1857~1967)

연희동 셋말 초계정씨 집성촌에서 출생,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향교에서 공부했다. 노경에 들어 부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 서곶지역에서 존경을 받았다. 서구문화원 초대원장과 2012년-2015년 부평향교 전교를 지낸 정인표(鄭仁杓)의 부친이다.

6) 타지 출신

(1) 김종성(金鍾聲)

생몰년을 알 수 없다. 1940년 서곶이 부천군에서 인천부로 편입된 직후 초대 서곶출장소장으로 부임해 동년 7월 1일부터 광복 직전인 1945년 7월 13일까지 근무했다.

(2) 이가삼(李可三 1910~1982)

황해도 해주 출신이다.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고향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으로의 종군을 거부하고 복진하는 국군이 해주를 점령하자 배를 타고 인천으로 월남했다. 의료혜택이 전무한 인천의 벽지 서곶 연희동에 정착했다.

그가 오면서 서곶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의료의 혜택을 입었다. 선생이 램프 불을 켜놓고 맹장염 환자를 수술했으며 난산하는 임산부를 수술해 아기와 산모를 살려냈다. 진료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한 진료를 베풀었으며, 깊은 밤이고 새벽이고 급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

1970년 연희동을 떠나 서곶보다 개발이 늦은 검단으로 가서 진료를 했다. 검단에 한두 개 병원이 들어오자 고향 땅 황해도가 보이는 백령도로 들어가서 병원을 열고 진료하며 말년을 보냈다. 명문 의대를 나온 선생은 서곶에 20년 동안 머문 것을 비롯하여 의사로서의 일생을 벽지에서만 보낸 것이다.

일흔 살 고비를 넘어 병약해진 선생은 장남이 있는 인천으로 와서 요양하다가 1982년 8월 4일 별세했다.

(3) 이경응(李敬應)

생몰년 불명이다. 1919년 계양면 면서기로 재임 중 기미년 만세사건 당시 대중의 시위를 밀고하였다고 오해받기도 한 그는 부천군 교육부 서기, 부평학교 교원을 지내고 1935년 10월 28일부터 1940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부천군 서곶면장으로 일했다. 그 후 부천군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부터 다음해 10월 17일까지 인천부 서곶지청장으로 일했으며, 동년 10월 17일 선거에 의해 서곶지청장으로 뽑혀 1949년까지 다시 일했다.

(4) 이명수(李明洙 1919~1971)

황해도에서 출생했다. 1964년 여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기록이 있다. 1959년 서울영등포구에서 성광공민학교를 모태로 학교법인 봉덕학원을 설립했다. 그해 2월 봉영여자중학교를, 1961년 봉영여자상업고등학교(현 영상고등학교)를 개교해 운영했다.

이 학원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자녀와 전쟁고아의 육성사업을 하면서 미군 제 76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교사를 신축하고 부대의 잔반을 받아 양돈사업을 펼쳐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재정을 충당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물품을 지원 받아 영세민들에게 배분하는 난민 구호사업도 펼쳤다. 그것의 일환으로 청라도로 눈을 돌렸다. 노역자에게 밀가루를 배급하는 난민 정착사업과 자조근로사업장인 청라도 앞바다 매립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1964년 천해개발공사(대표 김옥창)이 신청한 청라도매립사업권을 놓고 동업계약을 맺고 회사대표가 되었다. 당시 공화당 영등포를 지구당위원장이던 그가 구호양곡과 물자를 지원 받는다는 조건에서였다.

그는 경서동의 금산-장도-일도-청라도-문점도-장금도-소도를 잇는

7,800미터의 방조제를 쌓는 공사에 착수했다. 갯골이 있는 장도-일도, 청라도-문점도, 문점도-장금도 사이 독이 자주 무너져 난공사가 이어졌다. 서곶 사람들은 이곳을 이명수 방죽이라 불렀다.

준공을 눈앞에 둔 1970년 12월 갯벌이 공업지구로 변경되어 도로 배수시설 및 해발 10m 높이로 추가 매립하라는 건설부의 명령을 받았다. 결국 매립권을 동아건설에 넘겨주었고 서구 앞바다 매립에서 손을 떼었다. 그가 경서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 즉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청라도와 경서동의 주민들에게 1정보씩 분배하기로 한 약속은 폐기되었다.

그는 아내 이봉덕(李鳳德 1921-2010)을 앞세워 교육사업을 펼쳤다. 1952년 학교법인 봉덕학원을 설립해 서울에서 봉영여중과 봉영여상을 개교했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양천여자고등학교(현 양천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학교인 한가람고등학교도 설립했다. 그리고 봉덕학원은 2008년 청라지구에 Dalton외국어학교를 설립했다. 인천 서구 청라도 앞바다의 매립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재산 일부가 환원되는 것이라고 서곶 토박이들은 말하고 있다.

(5) 이민제(李敏濟 1934~?)

북서곶 앞바다 청라도에서 어린이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이다. 1954년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택국민학교와 인천 송월국민학교 교사로 일했다. 1958년 울도분교로 부임한 그는 더 열악한 청라도 분교를 주목, 1960년 초 그곳 분교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청라도는 가난해서 열흘 먹을 양식을 모아놓고 사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섬 전체에 경작지는 8정보였으나 섬 주민 아닌 육지의 지주가 독점하고 있었다. 학령아동이 30여 명이었으나 교사가 없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부평 2동 성당의 테 노마노 신부에게 사정을 말하고 재정지원을 받아 1964년 굴 양식장을 만들었다. 굴 양식장의 수입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었고 학교도 정식 분교로서 벽돌 건물로 지어졌다. 학생수도 51명으로 늘어났고 그는 바리칸으로 아이들 머리까지 깎아주며 낙도교사로서 젊음을 바쳐 헌신했다.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Chapter V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북서곶의 남겨진 이야기들

1. 남겨진 이야기 하나
2. 남겨진 이야기 둘
3. 남겨진 이야기 셋

1. 남겨진 이야기 하나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1. 남겨진 이야기 하나

1) 계양산 이야기

계양산은 부평과 서곶과 계양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이다. 이 산이 내 고향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타국이나 타향에 머물 때도 고향이 그리우면 이 산을 떠올린다. 계양산을 낀 세 고장 중 북서곶 사람들의 계양산 인식이 가장 클 것이다. 눈뜨면 눈에 보이는 게 계양산뿐 이니까 그럴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본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안정되 게 자리잡은 공간들 가운데서 일련의 정착점들을 알아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며 공간의 의미가 인간의 인식과정 가운데 시간의 의미를 넘어 우세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잊혀진 것을 떠오르게 하고 추억으로 이어주는 것은 장소이다. 필자도 젊은 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랬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와 숙소에 누우면 떠오른 것이 고향이고 계양산이었다.

계양산은 해발 395미터로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안남산, 아남산, 수주악, 노적봉, 환여금, 용장자산 등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소년시절을 더듬어보면 계양산과 관련된 것이 많다. 우리집 뒷집 아주머니는 누구를 욕할 때 ‘안남산 불여우 같은 년’이라고 소리쳤다.

‘안남산 불여우’는 곧 계양산 불여우로서 북서곶 사람들에게 통하는 ‘악아빠진 놈’을 뜻하는 관용구였다. 불여우란 불빛처럼 털 색깔이 붉은 여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산에 서식하는 여우들이 거의

그러했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없었으나 약을 대로 약아 빠져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았다.

60년 전 일이다. 어린 시절 자정에 큰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걸어가던 만월의 밤에 연희동 가운데우물(연희동 본마을은 웃우물, 가운데우물, 아래우물, 세 우물의 물로 삶을 영위했다) 둔덕에 앉았다가 쏜살같이 앞산 갈마산 기슭으로 내달리는 놈을 보았다. “안남산 불여우다.”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금도 필자의 추억 속 가장 선명한 것은 그때 한 번 본 계양산 불여우이다.

계양산에는 3~4부 능선에 회양목이 지천으로 많았다. 관상용으로 쓰기 위해 마구 캐 나갔다. 심지어는 서곶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어디로 보내는 것인 줄도 모르고 캐내 가마니에 담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있던 회양목 군락은 그 뒤 주택 건축경기가 일어나면서 마구 캐서 멸종되어 버렸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촌동 쪽 계양산 계곡에는 가제와 도롱뇽이 많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의 점잖은 아저씨들이 앞 다투어 도롱뇽 알을 잡수시러 갔다. 아마 1990년대에도 그랬던 것 같다.

필자는 서곶초등학교 4학년 봄 처음 소풍 가서 표고 395미터인 계양산에 올랐다. 1,2,3학년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도롱뇽을 보며 소풍하고, 4학년이 되어야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마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다.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 멀리 서울 남산이 보였고 서쪽으로 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허정 교감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합창했다.

“청라도는 파름, 장도는 노름, 울도는 밤염, 사도는 배암섬....”

허정(許楨 1924~2003) 선생님은 경서동 출신으로 서곶초등학교에 만 거의 20년 근무하시어 60대~70대 거의 모든 서곶 토박이들의 스승님이셨다.

계양산에는 하얗고 단단한 돌 석영(石英)이 많았다. 전기도 없어 밤이면 한 걸음 앞도 안보이게 캄캄해지던 서곶, 아이들은 주머니에 석영을 두 개씩 넣고 다녔다. 양손에 들고 부딪히면 번쩍번쩍 빛이 났다. 필자의 선친(이자 훈자 익자)이 쓰신 서곶 관련 설화를 보면 계양산은 부싯돌의 특산지였다고 한다.

임진왜란에서 참패한 조선 조정이 화승총을 만들고 화약과 함께 신속히 불을 일으켜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싯돌을 연구하게 되었다. 거기 열심히 매달린 사람으로 정두원(鄭斗源)이라는 무관이 있었다.

정두원은 광주정씨(光州鄭氏)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병서와 경서를 읽고 무예를 닦은 뒤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므로 그는 하급 지휘관으로서 혹독하게 전쟁을 치렀다.

전란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부하 정효길(鄭孝吉), 박무길(朴武吉)과 더불어 신속히 화승총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싯돌을 찾아다녔고 계양산에 와서 구했다는 것이었다.

계양산에는 12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그 중 만일사가 제일 컸다. 고려 때 지어졌으며 문장가들의 시문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에 알려진 명찰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터라 도랑에 서면 서해를 굽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절이 헐린 이유를 설명하는 전설이 있다.

정부의 세곡을 실어 나르던 뱃사람들이 일부를 빼돌리고는 ‘계양산의 만일사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난파가 되어 세곡을 잃어버린다’고 관청에 진정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절을 서해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북서곶 앞바다에는 유명한 강화수로의 선돌목 같은 소용돌이 뱃

길이 있었다는 전설은 없다. 혹시 그런 위험한 곳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다. 서곶의 앞바다는 모두 매립지에 포함되어 물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겨우 흔적이 남아 있지만 필자가 힘겹게 계양산에 오르던 유년시절에는 절터가 여러 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970년대에 막 향토사 연구를 시작하신 아버님을 따라 산에 올랐을 때도 남아 있었다. 여러 절들 가운데 만일사는 북서곶 방향에 있던 것이 분명하다. 서해를 굽어볼 수 있는 위치였다는 기록도 있고 고려시대 명문장가 이규보의 글 「계양망해지(桂陽望海志)」가 있기 때문이다. ‘고전국역종합 DB(db.itkc.co.k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를 입력하고 제24권을 찾아 ‘기(記)’를 보면 번역문을 읽을 수 있다.

「계양망해지(桂陽望海志)」

길이 계양(桂陽)의 변두리에 사방으로 나 있으나 한 면만 육지에 통하고 삼면은 다 물이다. 처음 내가 이 고을 수령으로 좌천되어 올 때 망망대해의 푸른 물을 돌아보니 섬 가운데 들어온 듯하므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보려 하지 않았다.

2년 후 6월에 문하성의 낭관에 제배되어 장차 날짜를 정하여 서울로 가게 되니, 전일에 보던 망망대해의 푸른 물이 다 좋게만 보였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모두 놀러가 보았다.

처음 만일사(萬日寺)의 누대(樓臺) 위에 올라가 바라보니, 큰 배가 파도 가운데 떠 있는 것이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과 같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드러낸 것과 같으며, 돛대가 가는 것이 사람이 우뚝 솟은 모자를 쓰고 가는 것과 같고, 못 산과 여러 섬은 묘연하게 마주 대하여 우뚝한 것, 벗어진 것, 추켜든 것, 엎드린 것,

등척이 나온 것, 상투처럼 솟은 것, 구멍처럼 가운데가 뚫린 것, 일산처럼 머리가 둥근 것 등등이 있다. 사승(寺僧)이 와서 바라보는 일을 돕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섬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것은 자연도(紫燕島)·고연도(高燕島)·기린도(麒麟島)입니다.”

하고,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것은 경도(京都)의 곡령(鵠嶺), 저것은 승천부(昇天府)의 진산(鎭山)·용산(龍山), 인주(仁州)의 망산(望山), 통진(通津)의 망산입니다.”

하며, 역력히 잘 가르쳐 주었다. 이날 내가 매우 즐거워서 함께 놀러 온 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다.

며칠 후에 명월사(明月寺)에 가서 앞서와 같이 놀았다. 그러나 명월사는 많은 산들이 가려서 만일사의 톱 트인 것만 못하였다.

며칠 후에 다시 산을 따라 북으로 바다를 끼고 동으로 향하여 조수가 밀려오는 것과 해시(海市)의 변괴를 구경하는데,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다가 피곤한 뒤에야 돌아오니, 함께 놀던 자 모모인이 모두 술병을 가지고 따랐다.

아, 저 물은 전일의 물이요 마음도 전일의 마음인데, 전일에 보기 싫던 것을 지금은 도리어 즐거운 구경거리로 삼으니, 그것은 구구한 한 벼슬을 얻은 때문일까? 마음은 나의 마음이어늘 능히 자제하지 못하고 이처럼 때를 따라 바뀌게 하니, 그 사생을 동일하게 하고 득실을 동등하게 하기를 바랄 수 있으랴? 후일에 경계할 만한 것이기에 적는다.

(한국고전번역원 | 이정섭 역 1978)

분명히 만일사는 바다 방향인 서록(西麓)에 있었다. 명일사는 계양 방향인 듯하다. 왜 북서곶에는 절이 없었을까? 필자의 집안은 물론 북서곶 불교 신도들은 절이 없어 김포 운양리에 있는 용화사에 다녔다. 아마도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연희교회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계양산은 멀리서 떠돌아왔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떠올랐다는 전설도 있다. 옛날에 부평 평야는 바닷물과 강물이 혼합되어 드나드는 간사지였다. 계양산의 한 줄기는 북으로 뻗어가 거의 한강에 이르는데, 한강은 그 주위를 둥글게 휘어감아 흐르면서 서해로 흐르니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전설이 생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강화 마니산의 반 조각이 갈라져서 떠돌아왔다는 전설도 있다. 그래서 마니산을 형산, 계양산을 아우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계양산의 이름은 계수나무와 회양목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수나무는 열대 수목이니 잘못된 말이다.

계양산에는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제일 큰 봉우리를 군자봉 또는 명장군봉이라 부르고, 그 봉우리와 나란히 선 것을 옥녀봉이라 부른다. 두 봉오리와 조금 떨어져 있는 봉우리를 꽃피봉이라 부른다. 그런 봉우리들 이름 때문인지 옛사람들은 이곳을 비범하고 용감한 장군이 아름다운 미녀(옥녀)와 더불어 꽃밭에서 노니는 명승지라고 여겨왔다.

계양산은 중국으로 통하는 큰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서 삼국 시대에 이미 민가 5백여 호가 있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삼남지방과 왕도 개성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다.

조선 왕조의 건국 이후 서곶에서 계양산을 넘어가는 큰 고갯길인 경명현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고갯길이 물론 이때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관아가 있는

부평을 거쳐 서울로 가는 가장 가까운 교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개에는 도둑 떼가 끊이지 않았다.

계양산은 옛날에 도둑 떼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과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산이며, 아름드리 수목이 우거져 은신하기가 좋고, 산의 동서남북 아래에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부자들한테서 빼앗을 것이 많았다. 게다가 산의 허리에 걸쳐진 경명현은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 고개는 삼국 시대 이래로 개성과 인천, 안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길이가 8킬로미터에 달했다. 그리고 한국 근대 소설의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궽정』에도 나온다.

중심성은 부평의 한 애국심 많은 부자가 현금한 돈과 백성들의 울력으로 쌓았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에 인천지방방토문화연구소(소장 李薰益)가 실측한 기록에 의하면 성문을 중심으로 동쪽이 171m, 서쪽이 297m, 총연장이 471m였다. 성곽의 아래 너비는 3.3m 맨 위 너비는 2m였다.

그러나 성을 쌓을 때 한 달 만에 완공한 것이라 별로 단단하지 못했다. 자갈과 흙을 섞어 쌓아 올리고 외부를 돌로 감쌌으나 영성하였다. 재정도 부족했지만 현장에 축성 전문 토목기술자가 없었고 지휘자인 박희방도 문관 출신이었다. 부사 박희방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축성했다 하여 ‘중심성’이란 이름을 붙였다. 성문은 공해루(控海樓)라고 이름 짓고 현판을 걸었다. 한 번도 군사작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제에 강제 합병된 뒤 방치되다가 10년쯤 된 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성문은 1914년에 일제가 헐어버렸다.

말썽 많았던 중심성 사적비에 기록된 내용(한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중심성 사적비

계양산 서쪽에 고개가 있으니 그 이름이 경명이고 연해관문이라 이를 수 있다. 내가 이 고을에 관장으로 와서 방어를 결심하였으나 바로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이듬해 9월말에 폐하의 조칙이 있어 성을 쌓게 되었다. 아전과 백성들에게 여기 관문을 지켜야 나라와 고을이 안전한 점을 말하였더니 백성들이 즐겁게 울력에 응하여 서쪽에 장대를 쌓고 군사훈련을 하는 곳으로 삼았다. 문은 고개 이름을 따서 경명문이라 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지키게 하는 뜻으로 누각을 공해루라 하고 성 이름을 중심이라 한 것은 읍민이 마음으로써 성을 만들었다 함이라. 그런 연유로 중심성이라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아울러 무기를 고치고 포사들에게 굳게 지키게 했다. 성을 다 쌓은 날에 고을의 여러 사람들이 이 업적을 기리는 글을 문장을 잘 쓰지 못하는 나에게 쓰게 청하므로 특별히 읍의 상·하동에서 금 60냥을 출연하여 축성자금을 마련한 것을 가록하게 여기며 이 글을 쓰노라.

광서 9년 계미 10월 행부사 박희방이 기록하고 쓰다.

서곶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 서곶의 학동들은 경명현을 넘어 계양산 반대편 산록 아래 있던 부평소학교(현재의 부평초등학교)에 다녔다.

경명현은 ‘징매고개’, 또는 ‘징맹이 고개’라고도 불렀는데 그 명칭은 고려 때 이곳에 매 사냥을 하기 위한 국영 매방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징발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여졌다. ‘천명고개’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그것은 도둑이 많아 천 명이 모여서야 넘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계양산에는 이 경명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도둑이 끊었다.

계양산이 강서 지역의 가장 저명한 지형지물이라는 말은 지금도 맞는 말이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접근하면서 우뚝 솟은 이 산을 보며 방위를 찾는다고 한다.

예로부터 문장가들이 말한 부평 8경이 있다. 8가지 모두 서곶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은 계양산을 소재로 삼고 있다.

부평 8경

1. 계양고종(桂陽孤鐘): 계양산 중심성 공해루에 걸린
종의 고적한 모습
2. 경명낙조(景明落照): 계양산 서쪽 경명현 너머로 지는 해
3. 난포영약(蘭浦靈藥): 난지도에서 나는 영약 난지초
4. 계산현폭(桂山懸瀑): 계양산 서쪽 암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5. 미도낙조(尾島落照): 서해 꼬리섬
(필자주;부평 매립지에 묻힌 호도(虎島)
옆으로 떨어지는 해)
6. 응봉조휘(鷹峯朝輝): 계양산 매바위에 뜨는 아침해
7. 탁옥성문(琢玉成文): 탁옥재에서 수도하여 성공한 문장
8. 천마황서(天馬皇瑞): 천마산 천마 발자국의 상서스러운

2) 검암동 보명학교와 선각자 정홍석(鄭洪錫)

이것은 북서곶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어서 발굴 경위를 기록해 남기려 한다. 최근 인하대 인하역사연구소의 양윤모 박사가 검암동에 사립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발행된 신문에서 발굴했다. 지금까지 구한말에 인천지역 유지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알려진 것은 외국어를 가르친 제녕(濟寧)학교뿐이었다. 1900년대 초반, 인천의 유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문을 연 학교가 제녕학교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영화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1911년 개교했으니 경술국치 이후 일제 강점기에 시작한 것이다.

개화기에 사립학교가 부평에는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지난날 인천과 부평은 다른 권역이었고 서곶은 부평군 모월곶면에 들어 있었다. 면사무소는 초기에 검암리에 있었다.

당시 부평에 공립학교는 있었다. 부평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가 현재의 계산동 162번지에 개교한 것은 1899년 3월 15일이다. 북서곶 학동들도 경명현을 넘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북서곶 일곱 마을에서 다닌 학생은 모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다.

검암동에 사립학교를 세웠었다니, 서구사 및 부평사를 넘어 인천시사를 고쳐 써야 할 일이라 필자는 깜짝 놀라 그 신문을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추적하고 증언을 채록하게 되었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09월 29일자에

「보명유망(普明有望)」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富平郡 毛月串面 黔巖里 私立普明學校는 有志人士 諸씨가 今年 正月 分에 設立 하였는데 校長 鄭洪錫 監督 沈相德 教師 鄭泰憲 諸 氏가 熱心教育함으로 學徒가 日益漸進에 必有前進之望이라고 該郡人에 贊頌한다더라.

부평군 모월곶면 검암리 사립보명학교는 유지인사 제씨가 금년 정월쯤에 설립하였는데 교장 정홍석 감독 심상덕 교사 정태헌 제씨가 열심 교육하므로 학도가 나날이 늘어나 반드시 전진할 희망이라 부평군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구 검암동 지역에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보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교장에는 정홍석이 선임되었고, 감독에는 심상덕, 교사로는 정태헌이 직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에 의해 교육 사업이 번창하여 학생 수가 날로 늘어가 반드시 문명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검암동 정홍석이라면 「부평팔경」을 쓴 정지석(鄭芝錫)과 십촌 짝 되겠다. 검암동 토박이 해주정씨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군섭 문화원장에게 전화했다. 역시 그 가문이었다. 필자와 서곶초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인 정웅섭 전 인천축협 전무의 증조부였다. 정 전무의 선친 정효근 선생은 필자의 선친과 막역지우이셨다.

정 전무에게서 족보에 실린 가계 기록을, 정 문화원장에게서는 ‘행장(行狀)’과 이윤혜 연구원이 부랴부랴 번역한 번역본을 받았다.

필자의 유년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게 남아 있는 검암동의 옛 상
동을 떠올렸다.

그곳은 발아현으로 가는 입구이자 발아장이라는 큰 저자가 섰던
곳이었다. 상동 입구 정미소 아래 한 건물이 있었다. 여름에 무성영
화도 상영하고 누나들이 양재를 배우러 간 건물이었다. 필자는 정웅
섭 전무, 정군섭 원장, 그리고 막역지우인 정기홍 형에게 성화를 하
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라고 독촉했다.

필자를 포함한 네 노인(모두 70대고 정 원장만 60대이다)이 회고
하여 정리한 결과는 이렇다.

1907년, 나라가 패망을 향해 기울 무렵 전국의 토호유지들이 애국
계몽을 위해 사재를 털어 신식학교를 세울 때 검암동의 정홍석도 나
섰다. 농투성이가 아니라 꽤 박식한 선비로서 인삼 판매를 해서 돈을
모은 분이었다. 왕도인 한성이나 다른 대도시들도 가본 개화인이기도
했다. 이분은 1878년 생으로 이 때 30세였고 운영비를 쾌척하고 교장
을 맡았다. 아마도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심상덕이라는 친구를 끌어
들여 감독을 맡겼다. 이분은 인접마을 백석동의 풍산심씨 가문은 아
니고 고개 넘어 목상동에 살던 청송심씨 가문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
리고 1880년생으로 두 살 아래인 친척 조카 정태현을 교원으로 내세
웠다. 아마도 머리를 땀은 사내아이들 여남은 명을 모았을 것이고 수
업은 심상덕과 정태현이 했을 것이다. 1910년 강제합병 후 일제는 민
족혼 교육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공포해 전국의 많은 사립학교
들을 교육 기준에 모자란다는 핑계로 폐쇄시켰다. 보명학교도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3년간 존재했던 그 학교 위치는 어딜까? 검암동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화되어 옛 자취를 찾기 어렵다. 정웅섭 전무가 대대로 살아온 집은 검암동 106번지, 족보에 증조부 정홍석의 주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물론 정씨 족보에 보명학교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와 막역한 사이인 위의 정씨가문 세 분은 106번지 정홍석의 집 사랑채가 학교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2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이다.

70세 이상 된 북서곶 사람들은 305번 국도 가까이 있었던 범상치 않은 모습의 건물을 기억한다. 청년회 모임, 부녀자들의 양재강습,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 때로는 무성영화도 상영했다. 두 칸으로 나뉘어졌는데 외관은 보통의 민가처럼 허술해 보이지 않았다. 필자는 그곳이 서곶 지방, 아니 부평군의 첫 사립학교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정웅섭 전무의 기억은 그리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것에 동의했다. 정 전무의 집은 큰길(305번 국도)에서 멀지만 고려시대부터 사용했던 큰 교통로 옆이기 때문이었다. 70대의 북서곶 토박이들은 아는 바이지만 1920년대 일제가 305번 국도를 만들기 전 그 길이 큰 교통로였던 것이다. 정홍석과 함께 학교 건립에 나선 심상덕이 발아현 너머에 있는 ‘나무서리(목상동)’ 출신일 것이라는 정 전무의 짐작에도 동의했다. 그 집안과 조부, 증조부가 유대가 깊었다는 것이었다.

정홍석은 학교 문을 닫자 인삼 판매사업을 하러 상하이로 떠났다. 1910년 일본 상하이 총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강제합병에 대한 상하이 체류 한인들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그의 이름이 처남 윤흥삼(尹興三)과 함께 등장한다.

그는 1920년대에 상하이를 떠나 윈난(雲南)으로 갔고 가족을 불러 합류했다. 그곳에 있는 강무학교(무관학교)에 조선인 청년들이 입학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남아 있다. 윈난 강무학교는 중국 윈난성 쿤밍(昆明)에 있었고 지금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범석(李範錫)과 김훈(金煥, 한국독립운동사와 중국 공산주의운동사에 양림[楊林]으로 나온다), 그리고 만주에서 항일 파르티잔 투쟁을 하고 북한 건국에 참여한 최용건(崔庸健)이 졸업한 학교이다.

할아버지 정홍석과 원난에서 살았던 손자 故 정효근 선생이 쓴 행장(行狀)이 족보에 실려 있는데 ‘상하이 시절 백범 김구의 막하에 들어 있었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사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홍석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객관적 기록은 발견하지 못해 정씨 가문의 세 친구에게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라’고는 아직 말하지 못한다.

검암동 정씨 가문은 위의 정홍석과 정태현 외에도 근현대사에서 교육자를 많이 배출했다. 정지석은 1895년 관립한성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한 서곳 최초의 공립학교교사였다. 정광근(鄭光根)은 운영난에 빠진 검암동의 고려중학교를 인수해 인광중학교로 개명하고 오늘의 서인천고교에 이어가게 한 참교육자였다.

3) 구한말 북서곶의 군사기지

북서곶 앞바다는 1880년대 후반에 들어 통상을 요구하는 이양선들이 서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름 없는 한미한 어촌이었다. 서구 열강이 군함을 몰고 와서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연희동이 떠올랐다.

연희동은 검암동 장모루에 있던 모월곶면 행정중심이 옮겨오면서 서곶 지역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곳에 해안을 지키는 군사기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서곶의 원로들은 말한다.

고종 3년(1866)에는 병인양요가, 고종 8년(1871)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그리고 고종 12년(1875)에는 운요호(雲揚號)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 조정은 서해안 방어를 위해 1879년 7월 연희동에 수군기지인 연희진을 설치하고 용의머리산에 용두포대를 배치하였다. 배치된 포는 강화의 초지진이나 광성진에 설치한 것과 같은 구식 가농포였다. 가농포는 Cannon포의 한자식 취음이다. 포탄이 날아가 폭발해 파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력 없는 무거운 철환이 날아가는 것이었다.

연희동에 수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바다를 향해 길게 반도처럼 뻗어간 지형 때문이었다. 뻗어간 지세가 마치 용이 엎드려 있는 듯한 형상이고 바다로 뻗어간 땅끝의 산이 용의 머리처럼 생겨 그곳을 ‘용의머리산’ 또는 한자음 그대로 ‘용두산’이라고 불렀다. 가농포 2기는 그 용의머리산의 머리 부분에 있었다.

필자는 소년시절에 여러 차례 그 곳에 간 적이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참호와 호안(護岸)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쇳조각도 더러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는 가기 어려웠다. 포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북한의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해안경비 부대가 주둔하고 민간의 출입을 막았던 것이다. 그 때 필자는 막 향

토사 연구를 시작하셨던 선친을 따라 군부대의 허락을 얻어 그 곳에 간 적이 있었다. 정확히 바로 그 자리였다. 포대가 놓였던 그 자리에 57밀리 무반동총과 중기관총 따위가 은폐된 채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이었던 용두포대 자리는 청라 매립지(일명 동아매립지) 공사로 바다가 메워지면서 육지로 변했고 군사적인 중요성도 잃어버렸다.

포병대의 중대본부라고 이를 수 있는 연희진은 안동네 깊은 곳에 있었다. 지금 연희동 안동네를 가르고 나가는 305번 국도가 생기기 이전의 큰길은 조금 달랐다. 봉수대가 있었던 가정동의 축곶산 앞으로 놓인 길을 따라와서 심곡동을 거쳐(이 길은 뒷날의 국도와 일치한다) 밋밋한 언덕을 올라가 현재의 연희교회까지 가서 왼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곧장 연희동 안동네를 거치게 되고 다시 밋밋한 언덕길을 오르는 곳에 연희진이 있었다. 그 언덕에 도당제를 지내는 엄나무 도당수(禱堂樹)가 있어 도당재라고 불렀다. 이 언덕에서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계속 넘어가면 또 다른 군사기지가 있던 과기평(빈정교 부근)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뻗은 길을 타고 가면 징맹이고개를 넘어 부평으로 갈 수 있었다. 도당제 언덕 아래 서곶초등학교와 부평경찰서 서곶주재소(뒷날 서곶지서)가 있었다. 연희진은 1890년에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는 부평군 모월곶면 사무소가 들어섰다.

조선 조정은 연희진과 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안심이 안 되었는지 1883년에 이곳에서 지척으로 가까운 경명현에 중심성을 쌓고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이라는 사령부급의 큰 군사지휘부를 설치하고 민영목(閔泳穆)을 지휘관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해 해안 감시병을 공개로 모병했다.

전설에 의하면 사령관 민영목은 기존의 해안 경비병들이 나태하고 무능하여 젊고 빠른 병사들을 보충하려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은 활쏘기와 돌팔매질이었다. 첫째로, 활을 한 번에 다섯 대씩 3회를 쏘아 채점하고, 둘째로는 무명 끈에 돌을 싸서 멀리 던지기를 10회 실시해서 채점하였다. 그리하여 500명을 선발해 입대시키고 일정기간 훈련을 시킨 뒤 해안경비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연희진은 교통이 너무 불편한데다 막상 전투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기연해방영은 몇 년 뒤 서울 용산 만리동으로 이전하였다.

연희동이 조선 말기에 군사적 요충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 결과는 지금 지명으로 남아 있다. 그 하나가 군인길이다. 지금 연희교회와 농협창고가 있는, 지대가 높은 지역이며 위에서 말한 대로 국도에서 옛 연희진으로 가는 샛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연희동 원로들은 연희진에서 군인들이 이 곳을 거쳐 용두포대를 향해 행군한 터라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말한다. 지금도 연희동의 토박이들은 이 언덕마을을 군인길 도는 군잇길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 남은 지명이 주란마루이다. 연희동 옛 국도에서 농협창고를 지나 들판으로 향한 길을 가리킨다. 주란마루는 주마마루라고도 불렸으며 한자로 주자현(走者峴)이라고 썼는데 그대로 뛰어 달리는 길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연희진 본부에서 용두 포대까지 군명을 받은 전령이 달려갔을 것이라는 추측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이 지명은 지금도 살아 있다. 연희동 토박이들은 이곳을 주란마루라고 부르며, 이 부근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에 붙여진 거리 이름도 주란마루로 적혀 있다.

1914년 부평군의 일부와 인천부의 일부를 떼어 부천군을 신설하고 남서쪽인 석곶면과 북서쪽인 모월곶면을 하나로 묶어 서곶면을 설치할 때 옛 연희진 자리는 면사무소가 되었다. 8·15 광복 후에는 인천시 서곶출장소로 뒤를 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용의머리 해안은 남파 간첩의 침투루트였

다. 해안에 상륙해 었드려 있다가 해가 뜨면 선명히 모습을 드러낸 계양산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그것을 넘으면 서울로 접근하기 쉬워서였다. 용의머리에 민가 몇 채가 있었는데 남파간첩이 자수하거나 생포되어 진술한 것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공안당국이 조사하게 되자 집을 비우고 떠났다. 그래서 한동안 군사요충인 용의머리에는 민가가 없었다.

연희진 터에 서구청이 1994년에 연희진지비(連喜鎭址碑)를 세웠다. 갈색의 대석 위에 두 개의 비석 받침대와 비 양편에 흰색 돌기둥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 다섯 가지 색의 비석을 세웠다. 둥근 공의 모습이며 높이가 60cm, 너비는 92cm이다.

‘고종3년(1866)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경서동 난지도와 호도에 정박하였다가 강화도에 상륙하고, 고종 8년(1871)에 미국 함대가 호도 부근에 정박했다가 강화도를 침략했으며, 고종 12년(1875)에는 일본군함 운요호(運揚號)가 영종진을 파괴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희진을 세우고 연해에는 요소요소에 포대를 축조하여 군대를 배치해 방어하였다’고 쓰고 있다.

필자의 선친은 『인천지명고』에서, 용두포대를 놓기 전에 이미 주란마루길이 뚫렸다고 썼다. 조선 영조 때 판금(判禁)벼슬을 지낸 구선복(具善復)이 부친의 묘를 용의머리 반도의 용두산에 쓰면서 이 길을 닦았다고 기술했다. 짐작에 그 때 만들어진 길이 교통을 용이하게 하여 뒷날 용두포대를 설치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사전에 의하면 민영목은 조선 말기 세도 가문이었던 여흥민씨(驪興閔氏) 집안 사람으로 순조 26년(1825)에 출생해서 고종 21년(1884)에 죽었다. 그의 경력을 더듬어보면 기연해방영 사령관으로 재임한 것은 1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연희동에 부임한 다

음해 갑신정변 때 개화파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종 8년에 알성문과(謁聖文科; 임금 앞에서 시행한 과거시험의 문과)에 급제한 것을 보면 그는 문관이면서 무관이 맡아야 하는 군사기지 사령관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조판서, 한성부판윤, 평안도관찰사 등을 지냈고, 박문국에 책임자로 있을 때는 「한성순보」를 창간하였다. 1883년 인천 화도진에서 한미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할 때 조정의 대표로 서명했으며 인천의 해안마을을 일본의 치외법권 지대로 승인하는 일본조계조약도 체결했다.

인천 연희동 일대에 조금씩 남아 있던 근대 군사기지의 흔적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모두 사라졌다.

4) 북서곶의 갯벌

북서곶 앞바다의 갯벌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밀물과 썰물이 빠르게 드나들었다. 갯벌이 사라진 것은 1970년대에 청라매립지 공사로 인해서였지만 그 시작은 1910년대 한들방죽을 막은 것이었다.

북서곶의 해안 방죽은 한들방죽, 검암동 경서동 앞의 방죽, 연희동과 경서동 앞의 닭우리 벌판 아래, 연희동 용의머리와 심곡동 앞 샘내방죽이 있었다. 지금 40대 이상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도시개발 이전의 드넓은 농지들, 그곳들은 100년 전에는 갯벌이었다.

기록을 보면 한들방죽을 쌓은 것은 1913년이고 돈을 낸 사람은 친일파 송병준(宋秉駿)이었다. 기생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자로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입신출세의 길을 잡은 자였다.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서 일본인 편에 서서 나라에 해악을 끼쳤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내부대신 자리에 올라 한일 합병에 앞장섰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뤄진 뒤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권력을 이용해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부를 쌓았다 하니 한들방죽은 아마 북서곶의 토호 중 하나가 사업을 시작한 것을 빼앗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경술국치 3년 뒤인 1913년에 한들방죽을 막는 데 성공했다. 북서곶 사람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한 방죽공사의 자금은 그런 더러운 돈이었다.

두 번째로 큰 닭우리 방죽과 샘내 방죽은 그 후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들 3대방죽이 완성되기 전 바닷물은 한들마을 앞을 지나 지금의 305번 국도를 넘어 시천동 앞까지 밀려 올라왔을 것이다. 그리고 빈정천과 심곡천까지도 그랬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생존하신 90대의 북서곶 토박이 어르신들 기억에 있는 갯벌은 지금보다 드넓었다.

청라도는 밀물 때 바다에 잠겨 푸른 수평선 끝에 보이기도 하고 썰물 때는 망망한 갯벌의 끝에 암전히 앉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드넓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와 맛조개를 잡았으며, 썰물을 따라서 섬까지 걸어가 한두 시간 일을 보고 밀물에 앞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간조(干潮; 썰물) 때 연희동과 경서동, 심곡동 앞바다의 망망한 갯벌은 면적이 1천만 평은 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바닷게가 총 17종이 라는데 아마 10여 종이 서식했을 것이다. 방게, 모밀게, 무당게, 농게, 바늘꽃방석게, 집게 등 크고 작은 게들이 흰 거품을 흘리며 집게 다리를 들고 거의 갯벌을 덮을 듯이 기어 다녔다. 게들을 먹이로 삼는 바닷새들도 많았다. 노랑부리백로, 쇠청다리도요새사촌 등 세계적인 희귀조들도 있었다. 도요새가 긴 주둥이를 앞세우고 나타나면 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구멍으로 숨지만 불운한 놈은 잡혀 먹었다.

산란기에는 희한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한쪽 다리가 긴 수놈 농게가 암놈에게 어필하려고 긴 다리를 들어 춤을 추는데, 한 놈이 먼저 시작하면 다른 수놈들이 더 크게 흔들며 춤을 추었다. 이상한 것은 수백 마리가 말 잘 듣는 초등학생들의 체조처럼 일제히 일치된 동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산란기인 초여름밤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게를 잡으러 갯벌로 나갔다. 밤에 언덕에 서면 드넓은 갯벌을 덮고 일렁거리는 불빛들을 볼 수 있었다. 게들이 얹이 빨간 나문재풀에 암수가 껴안고 매달려 사랑을 나누며 그네를 타는 것을 망태에 잡아넣으면 되니 개잡기기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다.

새벽에 마을 큰 마당에 트럭이 왔다. 간밤에 잡은 게를 푸대에 담아 적재함에 쌓는데 한 길 높이가 넘었다. 아직 살아있는 게들이 거품을 뿜어내는 소리가 쇠아아 하고 들렸다.

낮에도 게를 잡고 맛조개를 잡았다. 게 구멍에 소금을 넣는다든가 꼬챙이를 찔러넣어 반대편 구멍으로 나오게 하는 요령을 피울 필요는 없었다. 물렁물렁한 갯벌에 숭숭 뚫린 구멍을 보면 북서곶 사람들은 그것이 게 구멍인지 갯지렁이 구멍인지 골뱅이 구멍인지 열 살 먹은 아이들도 알 수 있었다. 갯지렁이도 많아서 외지인들이 손잡이 짧은 쇠시랑을 들고 낚시용 갯지렁이를 잡으러 트럭을 타고 떼 지어 오기도 했다. 그렇게 잡은 갯지렁이는 일본으로 수출된다 하였다.

썰물 때 갯벌 위에는 조수에 쓸려 나가지 못한 해파리들이 퍼져 앉아 있었다. 운이 좋으면 깊은 웅덩이에 갇힌 농어나 송어 등 1미터가 넘는 큰 바닷고기를 거저 주울 수도 있었다.

북서곶 아이들은 망둥이 잡이를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게 했다.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자기 키 만한 낚싯대를 만들고 낚시 바늘과 낚싯줄을 걸고 갯벌로 나가고, 십여 분이면 미끼로 쓸 갯지렁이를 넉넉히 잡을 수 있었다.

갯벌은 여름철 놀이터이기도 했다. 개흙이 입자가 작은 머드 상태인지라 몸에 발라도 매끄러웠다. 경서동과 연희동 앞 갯벌에는 깊은 갯골이 두어 군데씩 있었다. 경사가 큰 곳은 알몸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갯골의 물속으로 푹푹푹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놀다가 지루해지면 갯골로 밀려들어오는 밀물을 타고 엎드려 양손으로 더듬으면 손안에 들어오는 망둥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었다.

그때 어른들은 사두질과 투망으로 물이 밀려들어오는 갯골에서 송어와 농어, 망둥이, 대하(大蝦)와 곤쟁이를 잡았다. 연희동, 검암동의 하동, 백석동에는 사두질과 투망을 잘하는 선수 어른들이 있었다. 사두질은 밀물이 시작될 때 갯벌을 가로질러 그물을 치고 조수가 둔덕 위로 차오르기 전 재빨리 거두는 것이었는데 한번에 양동으로 하나씩 새우 곤쟁이가 잡혔다.

투망도 실력이 필요했다. 밀물이 밀려들어오는 갯골 위에서 물 위로 그물을 던지는데 정확히 둥그런 원형으로 펼쳐지며 물위로 떨어졌다. 용기있고 숨씨 좋은 투망꾼은 허리높이에 밀물이 차오르는데도 강력한 팔심으로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았다.

여인네들은 방죽 가까운 갯벌에서 나문재임을 뜯었다. 고추장에 무치면 맛이 고소하고 배탈도 나지 않았다.

북서곶의 갯벌은 배고픈 시절에 주민들에게 많은 영양분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밀물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해마다 한두 사람 생겼다. 밀물 때 고기잡이나 조개잡기에 열중해 깜빡 정신을 놓고 있으면 물이 갯벌을 타고 핑 돌아 기습하는 적처럼 사방에서 포위해와 빠져나오지 못했다.

북서곶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며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매립으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1차로 경서동 난지도가 육지화되었고 경서동 금산 앞의 사도와 까투럼이 1960년대에 ‘이명수 방죽’ 공사로 사라졌다. 그 후 동아건설에 의해 1차로 검단의 금곡동과 오류동 앞바다가 매립되고 2차로 원창동과 석남동 앞바다가 매립되었으며, 3차로 백석동, 경서동, 연희동 앞바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청라 매립지(처음엔 동아매립지라고 했다)에 포함되면서 거의 모든 섬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세어도를 제외한 청라도, 일도, 장도 등 거의 모든 섬들이 사라졌다.

난지도는 본격 매립 이전 사라진 섬으로 경서동의 서단(西端)인 금산의 정북 300m에 놓여 있었다.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蘭芝草)가 자생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난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난지염’의 음운변화이다. 사멸된 우리말에 ‘염’이라는 것은 바위로 된 작은 섬이라는 단어였다.

물에서 가까워 경서동의 한 마을로 여겨져 왔다. 형체는 몸을 크

게 편 해파리 같은 모습이었다. 금산과의 사이에는 큰 갯골이 하나 있어 밀물이 들어찼을 때는 건너가지 못했다. 물과 위낙 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지화되었다. 현재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난지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놓여 있다.

필자가 기억하는 40~50년 전에는 30여 가구가 어업으로 삶을 영위하였다. 남자들이 잡아온 어획물들을 아낙네들이 머리에 이고 서곶 12개 마을을 돌며 곡식으로 바꿔 갔다. 어획량이 많지 않아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 초등학교 동창들 중 그곳에 사는 친구가 여럿이었는데 납부금을 내지 못해 집으로 쫓겨가곤 했다.

난지도는 그 후 돈 많은 사람들이 간척사업을 하면서 경서동 사이의 갯벌을 매워 논으로 만들자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서곶의 섬들 중 가정 먼저 육지화되었다.

경서동의 서단인 금산에서 남쪽으로 700m, 연희동 용의머리 반도의 서단에서 북서서 800m에 사도가 있었다. 뱀섬이라고도 불렸다. 필자의 고향 마을 연희동에서는 물의 끝 용의머리산(용두산)에서 보면 좁은 우측면이 보여 작은 섬 같지만 경서동에서 달랐다. 중학교 다닐 무렵 여름방학에 경서동 사는 친구들을 찾아 놀러 가면 금산에 가곤 했다. 친구네 원두막에서 가까이 보이는데 연희동에서와 달리 꽤 넓어 보였다.

필자가 인천고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 중반, 금산 앞바다 매립이 시작되었다. 외지 사람인 김옥창이었다. 이분은 남해에서 포경업과 어업으로 번 돈을 서곶 앞바다 매립에 쏟아 부었다. 저절로 경서동과 연희동 사람들이 그에게서 노임을 받고 독을 막는 공사에 참여했다. 그의 목표는 청라도까지 갯벌을 매립해 수백만 평의 농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공사는 경서동 금산에서 뱀섬의 서단까지, 섬 동단에서 다시 경서동으로 두 개의 독을 쌓는 일이었다. 위에서 말

한 바대로 이곳은 밀물 썰물 때 물살이 빨라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공사는 진척이 되어 뱀섬까지 독이 이어졌다. 경서동 출신인 가까운 친구 추태일 형의 회고에 의하면 그 후 독은 바로 북쪽의 섬 까투럼으로 뻗어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곳 방죽을 경서동과 연희동 사람들은 ‘이명수방죽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명수라는 분이 사업권을 넘겨받았던 것이다. 군사정부에서 막 정부가 민간에 이양된 시기에 정치 줄을 잡고 비상한 수단가로 알려진 이명수 사장이 어떤 절차로 김옥창 씨에게 보상을 하고 넘겨받았는지 필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명수 씨는 군의 공병장비를 끌어와 투입하고 미국 정부의 잉여농산물을 방죽 공사의 노임으로 풀어 경서동과 연희동 주민들이 굶주림을 면했던 건 것은 사실이다.

그 후 북서곶의 갯벌이 청라 매립지에 포함되어 사라졌지만 호도와 세어도는 남아 있다.

호도(虎島)는 물에서 보면 청라도와 노럼 사이로 멀리 보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두 섬의 서쪽으로 3km나 떨어져 있다.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넓은 갯골 가운데 앉아있다. ‘뱀섬’이라고도 했으며, 생긴 모습이 호랑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볼 수 없었으니 뱀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

호도에는 오리와 지네가 유난히 많았다. 섬의 화약을 지키는 관리인들은 지네를 잡아 팔려 팔아 짹짹한 수입을 올렸는데 더 신나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산란기가 되면 청둥오리 수천 마리가 앉아서 알을 낳고 품었다. 관리인이 탕하고 총을 한 방만 쏘면 오리들은 놀라서 알을 두고 날아갔다.

관리인들은 자루를 메고 다니며 알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육지 저자에 팔아 쓸쓸한 수입을 올렸다.

세어도(細於島)는 인천 관내에서는 물에서 가장 먼 섬으로 청라 매립지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섬으로 살아 있다.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쪽 6km 떨어져 있으며 검단 안동포에서는 4km 떨어져 있어 더 가깝다.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 건너편에 있다. 그러므로 썰물 때 갯벌을 걸어 나가도 이 섬에는 갈 수 없다.

가늘게 늘어진 섬이라 세어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세루 또는 서천도(西遷島)라는 별칭도 있다. 세루는 ‘서쪽에 멀리 머물다’의 뜻으로 ‘서유(西留)’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세루로 음운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천은 서쪽 멀리 귀양 가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세어도에는 핍이 유난히 많았다. 핍들은 탕 하고 충성을 올리면 놀라서 바위틈이나 덩불에 머리만 처박고 숨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첩하게 손을 뻗어 그것들을 잡아 자루에 담기만 하면 되었다.

지금 세어도는 전체면적이 12만평이라던가. 20여 가구가 산다. 소나무숲과 갈대숲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서구에서는 청라국제도시-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선착장에서 행정선을 타면 된다. 송어가 많이 잡혀 서곶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초겨울이면 송어를 먹으러 가곤 했다.

그러나 이 섬들은 서해안 매립 사업으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물론 이 매립 사업으로 인해 북서곶 면적은 크게 늘어났지만 바다와 갯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그리고 옛 북서곶 앞바다와 함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되면서 천만 인구의 쓰레기를 받아 안아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었다.

5) 길과 교통, 통신 그리고 소방차

길

서곶은 한남정맥의 한 줄기인 계양산과 철마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인천과 부평의 가장 한미한 곳, 문명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부평과 인천의 다운타운으로 가기도 어려웠다.

북서곶의 오래된 길을 60대 이상 토박이들은 알고 있다. 가정동 축곶산 앞에서 지금의 305번 국도 심곡동 앞을 지나서 연희교회 앞까지 와서 왼쪽으로 꺾어져 내려가 경사진 길을 내려가면 왼쪽에 서곶초등학교, 오른쪽에 부평경찰서 서곶지서가 있었다. 좀더 올라가면 왼쪽에 서곶출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연희동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도당제를 지내온 도당나무와 단오날 그네를 타던 팽나무 거목이 있었다.

거기서 곧장 내리막길로 가면 본토박이들이 ‘벌터’라고 부르던 벌판과 빈정천을 건넜다. 천주교 신자들이 도기를 굽던 가마터와 공소, 검정바위가 박혀 있는 서인천고 아래를 거쳐 검암동 상동에 이르는데 밋밋한 고개를 오르게 된다.

상동은 옛 지명이 바로뫼촌이었다. ‘바로 산 아래 있는 마을’의 의미였다고 원로들은 말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 바로뫼촌에 발아현(發阿峴)이라는 고개 이름도 있고 발아장(發阿場)이라는 저잣거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발아장은 그 길 옆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 지금 상동이라고 부르는 마을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이어온 이 저자에서는 우시장이 서고 농산물과 일용잡화가 팔렸다고 한다. 계양면에 황어장(黃魚場)이 개설되면서 폐지되었다 한다.

추측하기에 중세에는 이곳에 인접한 시천동이 수주의 소재지였고

여각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모월곶면 면소재지였으므로 이 마을의 저자는 오랜 세월 흥성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황어장이 활기를 얻으면서 폐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발아현은 고려시대부터 지금의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국도 구실을 하는 길의 고개였다. 그 쪽으로 가야 왕도인 개경(개성)으로 갈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삼남지방에서 배를 타고 연희동 검암동 경서동 백석동의 해안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 길을 타고 개경으로 향했다.

다시 연희동 도당제 언덕으로 가 보자. 거기서 동쪽 계양산 방향으로 뚫린 큰 길이 있었다. 그것을 타고 가면 셋말과 공촌동을 거치며 징맹이고개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10리 길이인데다 숲이 우거져 도둑 떼가 많아 『임꺽정전』에도 나오는 길, 이 길은 조선시대 왕도인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부평부 관아에 가려고 해도, 조선시대의 공립학교 격이었던 부평향교로 가려고 해도, 개화기(開化期)인 1895년에 설립된 부평소학교에 가려고 해도 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징맹이고개를 피하려면 철마산(본래는 천마산이었다)의 낮은 구비길을 돌아 안아지를 통해 갈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일제가 서곳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켜 신작로를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도 살아 있는 305번 국도이다. 네 개의 나선형 구비가 있던 싱아고개(승학현)을 넘기가 어렵지만 우마차를 타고 안아지와 새별이(효성동)를 거쳐 부평에 갈 수 있었다.

교통

1910년대에 출생했다가 작고하신 분들의 기억에 의하면 1930년대에 역마차 같은 정기 마차가 하루 한 차례 다녔다고 한다. 8·15 광복 후 하루 두 차례 버스로 바뀌었고 1950년대 후반에는 강화, 양곡, 검단을 거쳐 온 버스가 하루 여섯 차례쯤 인천 다운타운을 향해 달렸다. 신아고개(송학현)를 넘어가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을 거쳐 십정동의 큰 고개를 넘어 주원과 주안, 송의동, 신흥동, 답동을 거쳐 동인천까지 갔다. 연희동에서 대략 1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때 운행된 버스는 인항여객 소속이었는데 9호, 11호, 27호, 33호라는 번호를 붙이고 달렸다. 중년의 남자들은 이것이 화투의 ‘섯다’에서 온 것임을 알 것이다. 9호와 27호는 ‘갑오’이고, 11호와 33호는 ‘1땅’과 ‘3땅’이었다. 요새 흔히 보는 마을버스보다도 작았는데 아침 승객의 절반은 중고교 통학생이었다. 사진 붙인 ‘통학증’을 휴대하면 일정액을 선납했던가 절반만 냈던가 그랬던 것 같다.

정식 친목회는 없었던 것 같고, 고2 또는 고3짜리 회장이 하나 있어서 수첩 한 장을 떼어 ‘통학생이 분명하다’는 사인을 해주면 동인천에 있던 버스회사에서 통학증을 발급받았다. 33번 버스에 ISUZU라는 일본 엔진회사 로고를 붙인 차를 제외하고는 걸핏하면 고장이 났다.

1960년엔가 가좌동과 송림동 사이의 보도진 나루 위쪽에 인천교가 놓이면서 버스 운행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다. 십정동, 주원으로 돌아갈 때도 그랬지만 버스가 걸핏하면 고장이 났다. 그러면 10~15킬로미터를 걸었다. 고3, 고2 남학생들이 어린 중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보호하며 걸었다. 추운 겨울 저녁에는 추위를 잊으려고 가좌동과 석남동 길가 주점에서 막걸리를 한잔씩 사 마셨다. 여학생들에게는 빵을 사주고 중1~2학년 남학생들에게는 막걸리를 한 잔씩

먹었다. 취해서 흔들거리며 걷는 어린 후배들도 있었다. “형들, 이제 안 추워요”하면서 건넌 후배들, 지금은 환갑을 훌쩍 넘겼다. 그것이 소중한 추억이고 우애였다.

전화

전화는 1965년 가을까지 북서곶에는 연희동 305번 국도 옆에 있던 부평경찰서 서곶지서 한 곳밖에 없었다. 서곶초등학교에도 없었다. 마을에 후송해야 할 급한 환자가 생기면 지서에서 부평 본서로 전화보고를 해서 택시를 부르게 했다. 서곶지서에 있던 손잡이를 돌리던 자석식 전화기, 성능이 나빠서 경찰관 아저씨가 고함지르듯 통화하는 소리가 건물 밖은 물론 수십 미터 거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1965년 9월 연희동 언덕 위에 우체국 분국이 섰다. 신문 자료를 검색해보니 9월 13일자에 실려 있다. ‘체신부가 통신시설이 없는 속리산 등 산간벽지에 11개 별정우체국을 새로 세워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서곶은 속리산과 같은 산간벽지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분명히 기억이 난다. 필자의 서곶초등학교 동창인 가정동의 최연숙이 인천여상 재학 중에 체신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직원으로 배치되었다. 송금은 할 수 없고 소포나 일반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자석식 전화기 한 대가 공중전화용으로 놓였다.

가정에 개별전화가 놓인 것은 1970년으로 기억된다. 역시 손잡이를 열심히 돌려 신호를 보내는 자석식 전화기였다. 필자의 아버님 집은 전화번호가 21번이었다.

소방마차

우체국 분국 옆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고 거기 붉은 칠을 한 소방마차가 한 대 들어 있었다. 세 드럼 쯤 물이 들어갈 탱크와 펌프가 달린 것으로서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끌고 달리니 소방수레라고 해야 했는데 그때는 마차라고 했다.

서곶지서에는 손으로 돌리는 사이렌이 있었는데 어른들 말쑤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미군기 폭격을 대비해 공습경보를 울리던 것이었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연희동 의용소방대 청년들이 밥을 먹다가도 손가락을 내던지고, 발을 갈다가도 소와 쟁기를 내던지고 단숨에 달려갔다.

제일 먼저 도착한 대원이 창고 문을 박차고 열어 마차를 끌어내면 한 발 늦게 도착한 대원이 합세했다. 순식간에 20~30명의 대원들이 모여들고 마차의 앞 손잡이와, 그 앞에 길게 늘인 로프를 어깨에 메고 힘차게 달렸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마차들보다 날렵하며 견고하고 바퀴는 늘 기름칠을 해놓아 빠르게 굴러갔다. 펌프 탱크가 비어 있기 마련, 아이들이 구경하려고 따라 붙으려 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소방마차는 빨랐다.

필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검암동 장자터 마을에 불이 나서 출동했다. 따라가다가 뒤쳐졌는데 소방마차가 너무 급히 달려 길 아래로 전복되었다. 간신히 도착해보니 무논에 처박혀 있었다. 소방마차가 못쓰게 망가졌겠다 생각했는데 합심해 끌어내니 멀쩡했다.

가까운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은 큰 고생 없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만 8km떨어진 백석동과 시천동, 4~5km 떨어진 검암동은 대원들이 기진맥진해야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현장에는 양동이를 든 전 주민이 나와 가까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고 의용소방대원이 그것을 받아

물탱크에 부었다. 펌프는 양쪽으로 5명씩 달라붙을 수 있는 수평봉이 있었다. 왼쪽 5명, 오른쪽 5명이 하낫 둘 하낫 둘 구멍을 붙이며 펌프 수평봉을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힘차게 눌러 압축했다. 10분 만에 힘이 빠지면 대기조가 올라가 교대했다. 소방호스를 잡는 일은 경험 많은 대장이나 부대장이 했는데 물길이 60~70m 이상 뻗쳐갔다. 필자 기억에 연희동 본말 장선익 씨와 샘말 정철영 씨가 의용소방대장을 맡으신 것 같다.

서곶의 화재라는 것이 초가지붕을 태우는 것이나 벚짚가리를 태우는 정도여서 시뻘겅게 타고르던 화염도 소방마차의 물길에 금방 잡혔다. 내 아버님이나 삼촌 또래의 용감했던 의용소방대원 아저씨들,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셨거나 90세 나이에 이르셨다. 그 대단하던 소방마차는 지금 살아 있다. 서부소방서 로비에 가면 전시되어 있어 늙은 토박이들을 추억에 젖게 만든다.

2. 남겨진 이야기 둘

정군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2. 남겨진 이야기 들

1) 북서곶의 교육기관

검암강습소

검암동 227번지 공회당 건물에 초등학교 4학년 과정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검암 강습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1920년대 초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7~8명의 많은 자식을 낳아,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많은 자식들을 집에 두고 부부가 논밭에서 품을 팔고 할 때, 간난 젓먹이 자식은 업고 데리고 다녔으나 나머지 자식들은 제일 큰 놈이 동생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켜 집안일을 하고 공부도 시켜가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좀 큰 녀석들은 부모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는,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학교에 다니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규칙적으로 등교해야하는 정규학교인 서곶초등학교에는 보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강습소에 보내 언문(한글)이라도 깨우치게 하려고 하였다. 서곶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출석 등이 저조하여 학업진도를 못 쫓아가는 아이들도 강습소를 다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학교에서 받아 주는 등 강습소에선 4학년 과정까지만 가르치고 5~6학년 과정은 서곶초등학교로 편입하도록 하였다.

[구술 1] 정충근님 (88세, 검암동 거주)

(여주 가는 차안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8세 정도 되면 가정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는 등 한 몫 해야만 하는 형편인 지라, 특히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는 것은 밥술이나 걱정 없이 먹

는 집 외에는 불가능 하던 시절이었다. 아이들을 몇 년 터울로 계속 낳다 보니 고만고만한 녀석이 동생을 업고 달래고 먹이는 육아를 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였었다. 그나마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이 출석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 나는 대로 글을 배울 수 있는 강습소에 보내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자식 사랑이었다. 지금도 70~80세 정도의 여성분들이 글씨를 배우는 모습이 가끔 방송되는 것을 보면 어렵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해방 후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글을 가르쳐 가족들과 서신 왕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찡하다.

[구술 2] 정윤구 (80세, 연희동 거주)

(월미공원 전망대에서) 남자친구들 중에도 검암 강습소에 다니다가 서곶초등학교로 편입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나서면 어른들이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단단히 지시를 하고 일터로 나가시면, 그 말을 거스를 수 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리게 되면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하고 밥도 못 먹고 집에서 쫓겨나 짚가리 또는 담 밑에서 쪽잠을 자며, 부모가 용서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처지… 그러다 보니 자주 학교에 결석을 하게 되고, 학업 진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선생님의 권유로 검암 강습소를 다니며 학교 수준을 따라갈 정도의 학습이 되면, 다음 연도에 배우던 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5~6학년 과정을 마쳐야만 하는데 검암 강습소에서는 4학년 과정까지만 배울 수 있어서 5~6학년 과정이 있는 초등학교로 편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곶초등학교도 처음에는 4학년까지만 있어서 부평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로 편입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검암 강습소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곶 가정학원

검암 강습소가 폐지된 후 1954년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으로 한문, 육아 및 성, 재봉 등 가사, 예절 교육 등을 시켜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손이 부족했던 시절이기에 학원생을 모집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사진 앞줄에 나오는 동회장(동장), 원장, 교사 등이 원생 가정을 방문하여 그 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달래서 가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조절하여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문물에 익숙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



|서곶가정학원 졸업기념

[구술] 정예근 (81세, 송도 거주)

당시 18세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하루 6~7시간씩 생활과 여성으로써 필요한 교육을 받았으며 학원을 다니며 배운 것이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기억을 되살려 옛날을 회고해 봅니다. 사진을 보면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저(정예근)이고, 네 번째가

이북에서 월남하신 여선생 민씨고요. 다섯 번째가 김문용 원장님, 바로 옆이 동회장 정지근님, 바로 옆이 부평향교 전교이신 정태화님이십니다. 그리고 뒷줄 왼쪽 첫 번째가 정기숙, 바로 옆이 박영순, 그 옆이 광세인이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1회로 졸업하고 나선 원생 모집이 도저히 안돼서 서곶 가정 학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학원을 졸업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살았다면(사는 것이 힘들어 겨를이 없었음), 가끔 만나 추억을 이야기하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더욱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아쉬움이 남지만 그때 학원생 시절을 회상하며 행복하게 웃어 봅니다.

[그 후]

가정 학원 근처에 공회당(동사무소)을 새로 건축하여 이전을 하게 되자,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곳에 방앗간(정미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기관수 정충섭씨를 두어 방아를 찧었다. 하지만 공동 운영의 어려움과 수익의 불안정으로 부득이 처분하게 되었다. 부평에 사는 서모씨가 인수받아 몇 년 경영하다 역시 경영난에 부딪히자, 검암동에 사는 정중근씨가 인수하여 1996년 초까지 운영하였다. 이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과 시설 등이 모두 철거되면서 현재는 당시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 검암 정미소

2) 서무정, 소통과 사교의 장

1920년대 중반부터 검암동 벌터와 빈정내(공촌천)에서 활을 쏘기 시작하였는데,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1935년경 중단되었다가 1945년 해방 후 다시 시작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규범을 만들고 체재를 갖추어 사두를 대표로 운영해 왔다. 이후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사원수가 급증하여 운영 경비가 충족되는 등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1972년 초 검암동 산 71번지에 사두였던 송병규, 송범식, 정중근님이 뜻을 같이 하여 사정을 짓게 되었는데 토지주였던 현재 서무정 제24대 사두 정병섭님의 조부 정태하님 협조 하에 200여명이 활(궁)을 쏠 수 있는 터를 마련하게 된 것이 시초였다.

그러나 1996년경 구획정리사업으로 서무정이 헐리게 되자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터에서 18년간 임시 활터를 설치해 사용하였다. 2014년에는 인천시와 서구청이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곶로 468-19번지에 현대식 사정을 서구청 명의로 건립하여 궁도협회에 위탁하였다. 서무정 건립은 당시 서구청장이었던 이훈국님과 전년성님 그리고 인천시 부시장이었던 김교흥님, 인천궁도협회장이며 인천시 의장을 맡으셨던 박창규님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현재 60여명의 사원이 제24대 사두 정병섭님을 중심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활을 쏘는 것은 정신 수양 및 신체운동에 으뜸이요, 서곶지역 각 마을의 내로라하는 상류계층 인사들이 사원으로 가입하여 엄격한 규율 아래 화합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하였다. 나아가 서곶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도 큰 힘이 되었다.

일 년에 한 번씩 궁도대회를 열어 인근지역 사정들과 시합을 하는 형식으로 2~3일씩 진행하였다.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편장이라

하였는데, 편장은 대회에 모든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편장을 맡기 어려웠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공동편장을 두어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대회가 열리면 지역의 축제가 되어 사원의 가족 및 친지는 물론 각 마을 사람들도 초대하여 함께 즐겼다. 서기는 서무정 처마 밑에 새끼를 꼬아 매어 놓고 접수를 받아 현금과 현물 등을 적어 새끼에 매달았는데, 한 줄의 새끼 줄이 모자라 두 줄, 세 줄씩 걸었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활은 한 번에 다섯 명씩 사대로 나와 145m 거리의 과녁을 향해 5발씩 쏘아 점수로 승패를 가리게 된다. 활 쏘는 분들은 옛날부터 활량이라 하였는데, 풍류와 운동 및 교류에 집착하다보니 집안일은 등한시 한데서 비롯된 명칭으로 알고 있다.



| 서무정 활쏘기대회(1980년대)



| 서무정 전경(2015년)

활을 쏜다. 힘차게 날아가 과녁에 맞으면 과녁 양쪽에 서있던 고 전들이 화살을 쫓아가 과녁에 못 맞으면 우스운 시늉을 하면서 아쉬워하고 과녁에 맞으면 휘장을 휘두르며 춤을 춘다. “관중이요” 라고 하면 사대 옆에 있던 기생들이 “지화자”를 외치며 일성 축하노래를 하고 다섯 발 화살을 다 쏘고 나서 다음 조와 교대하기 전 화살을 관중시킨(과녁에 맞힌) 사람들에게 갖은 교태와 아양으로 팁을 받아낸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활랑들의 아내들 표정이 찡그려지는데 집안 일에는 짜디짠 남편이 기생과 어울려 춤을 추며 시퍼런 만원 지폐를 막 꺼내 주니 속이 뒤집힐 만도 하다. 하지만 혼자만 끔끔 앓는다.

당시 가부장중심적인 시대에 그 누가 활랑들을 논하겠는가? 별다른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시절, 주색잡기나 노름 하지 않고 활을 쏘는 것은 그래도 건전한 놀이였다. 나의 부친(정중근님)이 편장을 맡으셨던 1970년대에는 비용이 일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다. 지금도 큰 액수인데 과거 서민들은 활랑들을 매우 부러워했었다. 국궁, 궁도라고도 하고 우리의 전통 무예라고도 하는 활쏘기, 이제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사원에 가입하여 심신수련을 할 수 있어 좋다.

3) 절터에서 허암지로

내 나이 열서너살 무렵 허암산 중턱에 있는 절터로 친구들과 가끔 놀러 다닌 적이 있었다. 산중턱에 약 3~40평쯤 되는 편평한 터가 있었는데, 터 아래쪽에는 작은 샘터가 있어 뛰어놀다 갈증이 나면 물을 축일 수도 있어서 놀이마당으로는 제격인 곳이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씨름도 하고 편을 짜서 전쟁놀이도 하였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어느덧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터 주위에는 큰 나무들이 많아서 일찍 어둠이 내렸기 때문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 집안일을 거든다고 봄부터 소꼴을 베어 지게에 지고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고 소꼴 따먹기 시합을 하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거의 소를 키웠는데, 소는 쟁기질, 씨래질 등 논밭일이나 나락 실어 나르는 일 등 농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 다녀오면 소꼴 정도는 매일 베어대는 역할을 하였다.

소꼴 따먹기는 소꼴을 베러 늦게 온 아이가 한 지게 가득 꼴을 베어서 절터에서 쉬고 있는 친구에게 추근거리면서 시작되곤 하였다. 시합은 일정한 거리에 표시를 해두고 낫을 던져 기억자로 서면 1등, 시옷자로 서면 2등, 그냥 넘어지면 꼴등이 되는 것이었다. 베어온 꼴은 한손씩 앞에 놓고 시작하였는데, 1등이 꼴등의 것을 따가는 방식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꼴 베어 온 것은 다 잃게 생긴 놈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어찌하겠는가. 그중에 큰 놈이 지게 꼬리를 풀면서 “야, 애들아! 한 전씩 내놔”(한 전은 차근차근 모아 양손으로 한아름 정도 되는 양이다) 하고는 잃은 놈 지게를 채워준다. 울던 놈은 씨익 웃으며 눈물을 손등으로 닦는다. “자, 이제 가자!” 하면 모두 지게를 지고 일어나 오솔길을 내려온다. 그리곤 각자의 집으로

흘어지며, “내일 보자!” 하며 인사를 나눈다. 여기저기 집 굴뚝에선 저녁 짓는 하얀 연기가 뭉실뭉실 피어오른다.

꿀 베고 나무하고 뛰어 놀던 절터! 성년이 되어 집안 어른들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선 초기 이곳에는 우리 선조가 사셨는데 ‘축지법’을 써서 개성 풍덕을 하루에 다녀오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강가에 신발과 의복을 벗어 놓고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이곳에서 머무셨다고 한다. 그 분은 아주 기개가 곧고 학문이 뛰어났다고 알려주셨다.

이후 내가 인천서구의회 제2대 의원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절터(허암지)에서 학술발표회를 하니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현수막도 걸리고 꽤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하셨다. 드디어 1996년 11월 2일 오후 3시 ‘허암 정희량 선생 추모행사’가 허암지에서 시작되었다. 해주 정씨 대종친회 회장, 우후공파 회장 등 해주 정씨 일가(당시 약 80가구가 거주했음)와 동네 주민 그리고 행사 관계자 및 내빈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하였으며 인하대 이영석 교수가 학술발표를 하고 인천시의회 정진관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내빈으로 향토사학자 이훈익 선생과 권중광 서구청장 및 조길휘 의장, 이영호, 백석두 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학술발표에 이어 헌다식 및 한풀이 무용 공연으로 구성되어, ‘허암 정희량 선생’을 새롭게 조명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허암 정희량의 숭고한 선비 정신과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또한 허암 정희량 선생이 고난을 헤치며 어렵게 남긴 350여 수의 시를(허암집) 해석하여 그 뜻을 찬양하였다. 나아가 현대인들의 삶에 샘물처럼 스며들도록 하고자 차샘 옆에는 ‘허암 차샘’이라는 표석이 세워졌다. 이 행사는 1996년 11월 3일자 중부일보에 게재되었다.

나는 이 일이 있은 후 13년이 지난 2009년 초에 ‘허암 정희량 유허

지’를 인천시 기념물 제58호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였고 그해부터 7년간 약 5억원(인천시 예산 약 3억원과 인천 서구청 예산 약 2억원)을 들여 광장을 조성하고 시비(야좌전차)와 스토리 보드를 세웠으며 육각 정자인 허암정을 지었다. 또한 광장 앞에는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무 데크 무대를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허암지 입구 표지석 및 허암정 내 현판은 해주 정씨 대중친회 지원으로 건립되기도 하였다.

현재 ‘허암 정희량 유허지’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로 지정되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배움과 휴식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는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정신을 기리고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허암 청소년 백일장’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놀이마당을 역사의 중요한 현장으로 정비하고, ‘허암 정희량 선생’을 과거에서 현대로 재등장 시켜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내년에 조경사업과 전기인입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허암 유허지를 찾아 즐길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역사동아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역사 탐방의 명소가 되리라.



| 허암 정희량 선생 추모행사(1996년)



| 허암 유허지 답사(2017년)

4) 문화보급의 창구-유선방송

1960년대 초 북서곶 지역은 성씨 중심의 자연부락 형태로 농경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남북으로 난 비포장 신작로에는 강화버스가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오갈 뿐이고 어쩌다 우마차가 덜커덕거리며 거름을 실어 날랐다. 이처럼 북서곶은 가을철엔 수확한 농산물을 집으로 거두어들이는 전형적인 시골로써, 조용하고 평화로운 고장이었다.

얼마큼 조용했느냐 하면 이쪽 마을에서 큰소리로 저쪽마을 사람을 의사전달을 하였을 정도였으니까, 대략 상상이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노래 가락이 들리고 때때로 뉴스를 통해 세상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되었다. 북서곶 최초의 유선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발명되기 전이라, 진공관 라디오가 몇 집에 있을 정도였기에 일반인들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고, 생각도 아예 없던 시기였다.

그런데 검암동에 사는 한 청년이 낙후된 지역의 문화 및 생활을 발전시키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고자 유선방송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백석, 시천, 검암, 경서, 연희동 등에 약 300가구 정도가 방송을 신청을 하였고, 일정액의 청취료를 내는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정계섭)가 설치해 준 스피커를 통해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방송을 듣는 방식이었다.

방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로그램별로 고정 청취자가 생기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후,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좋아하고, 연속극을 통해 인간의 삶의 희비와 꿈을 키워가는 등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방송은 텃밭에서도 일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다. 흥겨운 타령이나 유행가 가사를 따라 부르며 박자에 맞추어 힘든 일을 하다보면

능률이 오르고 힘든 일도 한결 힘이 덜 든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흥얼흥얼 온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 같았다.

특히 연속극의 경우에는 한방에 식구들과 마실 온 이웃들이 모두 둘러앉아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무릎위에 이불을 덮은 채로 숨소리도 죽이며 대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된 양 울고 웃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다가 방송이 끝나면 아쉬워하며 어릿어릿 달빛 서린 길을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에 홀린 듯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방송을 들었다.

그동안 세상과 단절되었던 사람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똑같은 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되풀이 하며 그저 순응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유선방송을 통해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과 희망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청취료를 낼 여유는 없고 방송은 듣고 싶은 욕심에 일부 주민들은 이웃집 유선방송 선로에 몰래 선을 연결하여 방송을 도둑 청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도 힘들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재발 방지 약속만 받고 덮어두고는 했다. 청취료는 가을 추수 이후에 곡식으로 받았는데, 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해가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결국 유선방송 설립 다섯 해 만인 1965년에는 설립자의 군 입대로 사업을 접게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북서곶 지역에 새로운 문명이 전해지고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이들에게 통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삶에 지친 마을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북서곶 유선방송 설립자
정계섭님(1960년대)

3. 남겨진 이야기 셋

김영덕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3. 남겨진 이야기 셋

1) 인천에는 인천교가 있다

기억의 지평 너머로 잠겨가는 갯골과 번지기나루

1

인천에는 인천교(仁川橋)가 있다. 그러나 교량으로서 인천교는 제고향을 떠나갔다. 인천교는 이제 ‘갯골’, ‘번지기나루’와 함께 인천사람들, 그 중에서도 서곶지역 사람들 기억의 심연에 ‘희미한 옛 사람의 그림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초현대적으로 연결하는 인천대교에 그 이름의 태반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지만, 명칭 하나로 이 도시를 대표하던 그 다리도 한때는 인마(人馬)통행용 첨단 교량이었다.

교량의 사전적 의미는 ‘물이나 어떤 공간 위로 사람이나 차량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이다. 그렇다. 인천교 아래는 바닷물이 버젓이 드나드는 갯골이었다. 과거 인천은 사실상 반도半島였다. 빗바랜 1920년대 지도 속의 인천은 한반도를 다섯 시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동남쪽으로만 내륙과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 유명하던 주안염전은 십정동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의 간석역 부근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이 없었다면 양질의 천일염 생산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인천시내와 근교 농업에 종사하던 서곶(서구)은 갯골로 단절되어 있어서 나룻배가 사람과 물자를 운반했는데, 그 나룻배와 뱃사공의 모항이자 기항지가 ‘번지기(番作里)나루’다.

구한말 인천 앞바다에는 이양선(異樣船)이 자주 출몰하여 해안가에 경계초소를 세우고 군대 내무반 불침번처럼 번(番)을 짜서 보초를 세웠는데, 이곳이 한자로 ‘번작리(番作里)’라는 지명을 얻었다. 부평부 관할이었던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부천군(富川郡 - 부평의 앞 글자와 인천의 뒷 글자를 조합한 새로운 지명)이 신설되면서 인근 고잔리와 합해져 부천군 서곶면 고작리가 되었다가 1940년 서곶면 전부와 함께 인천부로 편입되었다.

원래 하구의 ‘아랫나무’가 먼저 생겼고 이후 갯골이 좁아지는 위쪽에,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갯골에 놓인 징검다리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웃나루’가 생겼다. 한번 건너는데 요금이 1인당 30전이였다. 그곳에 인천교가 들어선 것이다. 현재 송림로 인천교삼거리에서 방축로까지의 구간이다.

인천교는 1957년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1958년 1월에 개통되었는데, 그 공(功)의 팔할(八割)은故심덕기씨에게 있다. 서구 백석동 한들마을 출신인 그는 지금의 서울시립대 전신인 경성농업학교를 나왔다. 아직 전쟁 중이던 1951년 초대 민선 인천시의원에 당선된 심의원은 1954년 재선되어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다.

심덕기씨는 서곶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인천의 도농균형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타고난 독심과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인천교 건설을 관철시켰다. 1950년에는 검암동에 있던 사유지 3만여평을 출연하여 영화중학교를 설립, 지역의 후진 양성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 학교는 이후 고려중학교, 인광중학교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오다 지금의 서인천고등학교가 된다.

1967년 경인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에 인천톨게이트가 생기고 명실상부한 인천의 관문으로써 고속도로 전용 교량이 약 500미터 위쪽인 지금의 ‘염전로 303번길’ 부근에 나란히 설치되었지만 새 교량에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천교는 1971년 확장되었다가 갯골이 점차 매립되면서 1998년에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과거 이 갯골 하구에서는 가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달의 중력으로 인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인천에서 밀물은 썰물 보다 그 속도가 2배는 빠르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바닷가 서민들은 갯벌에 나가서 게나 조개, 바지락같은 해산물을 캐서 고단한 삶을 영위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인천의 외갓집에 다녀오는데, 버스가 갑자기 인천교 위에 정차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창 밖을 보니 멀리 갯골이 넓어지는 하구에서 ‘사람 살려’라는 다급한 외침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왔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해산물 채취에 열중하여 미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이미 갯골에는 소용돌이처럼 바닷물이 시퍼렇게 들어와 있었으며, 물은 갯벌 높은 곳까지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황량한 해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천교 위에 서있던 버스안의 승객들은 갯골 하구를 바라보며 탄식만 할 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바닷물은 어느새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의 허리에서 가슴, 이윽고 목까지 차올라왔다. 나는 그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속절없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잠시 후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승객들을 싣고 다시 출발했다. 버스안의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천장 낮은 오래된 버스 안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다.

2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갯골로 서북부와 사실상 단절되었던 인천은 그 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잇

점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그 갯골 덕분에 6·25전쟁 초기 인천이 인민군의 주요 공격 축선에서 벗어나 비교적 평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은 양쪽 군대가 공방을 벌이며 화력이 집중되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전장(戰場)에 남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난을 떠난다.

그런데 삼팔선 넘어 파죽지세로 김포반도를 지나 남하하던 북한 인민군 6사단 예하 부대 병력들은 6·25 당일 지금의 경인 아라뱃길 부근 시천교가 폭파되자 방향을 틀어 계양구 쪽으로 진군했다. 어렵사리 서구청 방향으로 빙글돌아와서도 이 갯골 때문에 탱크를 앞세운 인천 도심 진입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인천은 한동안 국지전도 없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인천에서는 대규모 전투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맥아더 장군이 전세를 반전시킬 상륙작전 장소로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지형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택한 이유도 인민군 정규군의 인천 방어태세가 매우 허술하다는 첩보가 결정적이었던다고 한다.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미해병1사단이 장진호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거의 궤멸되었을 때, 평북 군우리에서 중공군과 용맹하게 백병전을 치루며 미군의 퇴로를 열어주고 후퇴하던 터키군이 지금의 서부교육지원청 인근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 인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이동했던 이유도 이 갯골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가 대규모 국제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6·25 동란의 와중에도 인천의 산업기반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이후 ‘경인공업지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도 팔할이 이 갯골 덕분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전후 복구기간에 인천시민들은 광활한 서북부 근교농업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한 각종 채소와 싱싱한 과일 등 농산물을 비교적 싼값에 먹을 수 있었다. 인천교가 개통되어 공급이 원활치 않았다면 시민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열악했을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6·70년대 송림로타리 버스 정거장은 이른 아침부터 중고등학교 통학생들과 농산물을 소규모 보따리로 갖고 내리는 아낙들, 그리고 그들과 흥정을 벌이는 시장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수인역과 함께 송림동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번지기나루터 갯골위에 놓인 인천교 덕분이었다.

2) 북서곶의 부자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서울 마포의 염리동과 강서구 염창동의 공통점은? 소금salt이다. 이들은 모두 소금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조금 생뚱맞은 것 같지만, 셸러리맨이라는 어휘도 소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로마시대에 나라에서 군사들에게 돈이나 곡물 대신 소금을 봉급으로 지급한데서 유래된 비영어권 조어가 바로 셸러리맨이다. 일본식 영어다. 소금은 조선시대에도 전매품으로 지정하여 취급할 정도로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사실 수렵, 채집생활을 하던 원시시대에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포획된 동물의 고기에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던 시대에는 따로 소금을 섭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수렵생활을 청산하고 이른바 정주형 농경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 물품으로 떠올랐다.

부평의 변방, 북서곶 지역은 ‘모월곶면’이라는 옛 지명이 시사하듯, 신생대 제4기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면서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을 가져 바닷물의 드나들이 매우 복잡하고 반도와 섬이 많을 뿐, 농촌이면서도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다. 대신 갯벌이 발달했다. 난지염은 물론, 청라도도 썰물 때 걸어서 다녔다.

이런 북서곶의 독특한 자연과 인문지리적 환경에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신분상승의 꿈까지 이룬 분들이 있었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 키워드는 무엇일까? 첫 번째 키워드는 ‘마름’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마름은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 대기업의 중역이나 지역 책임자의 위상에 견줄 수 있다. 대기업 중역이 주주나 오너를 대신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의 경영전반을 챙기듯 마름은 땅 주인인 대지주를 대신하여 지주의 토지가 있는 현지에 거주하면서 추수기의

작황을 조사하고 직접 각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거둬드려 지주에게 올려 보냈다. 북서곶의 마름은 어느 정도의 재산과 학식은 물론, 완력까지 갖춘 사람으로서 농사일에 정통하고 대지주와 일정한 사회관계를 가진 인물들이 발탁되었다.

그런데 북서곶의 대지주는 토박이 북서곶 사람들이 아니었다. 부평의 변방이었던 북서곶은 산이 많고 지형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농토가 넓지 않았다. 굴포천과 그 지류인 직포천, 굴현천, 계산천, 청천천, 묵수천, 오쇠천, 여월천과 금륜천으로 생성된 넓고 비옥한 평야에서 거둔 막대한 소출을 확대재생산하여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던 부평읍내의 대지주들에 비하여 부를 축적해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농경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기제가 이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작인이 땅 주인과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병작반수제라고 한다. 병작반수제는 수확량에 따라 지주가 받는 지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주는 소작농에게 간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지주를 대신하여 농사를 관리하는 마름의 위세가 간단치 않았다.

대지주를 위해 악역도 주저하지 않았던 마름에게 미운털이 박히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소작을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마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마름으로 위촉이 되면 어렵지 않게 치부를 하고 그 지역 유지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부평의 대지주 ‘박주사(박용재)’집안 마름이었던 경서동 허씨 집안*이나 공촌동 최길성씨 집안이 그랬다. 검암

* 경서동 허씨 집안의 흥망성쇠는 수십년 동안 북서곶 교육계에 종사하며 초대 인천시 교육위원을 지냈던 허정씨 회고록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동 출신으로 북서곶을 대표하는 풍수전문가, 지관이었던 송범식씨도 제2공화국 시절 내각 수반이었던 장면 박사의 인동 장씨 집안 마름을 보았다. 장면의 부친인 장기빈은 원래 대한제국 세무관료 출신으로 탁지부에 근무했다. 개항과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는 서울의 관문이었던 인천세관으로 발령을 받아 치부를 했다.

마름은 대체로 토박이 자작농이나 자소작농 중에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지주가 찍어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곡물인 쌀과 보리의 경우 대지주에게 올려 보내기 전에 껍질을 벗겨내는 도정까지 필요했으므로 마름들이 직접 정미소를 세워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금융업 진출의 교두보까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서곶 지역에서 정미소까지 경영했던 마름들이 소작인이나 빈곤층에게 고리대금업으로 횡포를 부리거나,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흔적은 없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염’사업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대만에서 들여온 천일염 생산방식이 인천의 주안염전을 중심으로 보편화하기 전, 북서곶의 일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자염생산으로 돈을 벌어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바닷물을 큰 가마솥에 끓여 생산한 소금을 화염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썰레질한 갯벌 흙을 잘 말려 염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흙을 통과한 농축된 바닷물을 졸여서, 효율적으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을 전염염 또는 자염이라고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토지, 자본, 노동을 생산의 3요소라고 했지만, 북서곶의 자연 환경과 인문지리적 환경은 자염의 생산은 물론, 판매에도 아주 적합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드넓은 갯벌이 있고, 인근에 한남정맥이 지나가 산이 발달하여 땔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숲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서울이라는 큰 배후시장까지 근처에 있다는 인문지리적 특성에 착안을 하여 큰 돈을 벌었다.

육상운송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북서곶 해안에서 자본과 노동을 투여하여 생산된 자염을 배에 싣고 강화해협인 염하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 서울 마포나루에까지 가져다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까지 했으니, 가격 경쟁력 또한 떼어 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다. 경서동 허씨 집안과 공촌동 경주 김씨 집안이 이렇게 제염사업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천일염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염을 생산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한여름 장마철도 아니고 고추잠자리 마당에 어지럽게 맴도는 고즈넉한 가을도 아니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햇살이 퍼지면서 산들바람 부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의 기간이었다. 농번기와 딱 겹친다. 특히 화목으로 쓸 나무를 산에서 베어 갯벌까지 소달구지로 운반해야 했으므로, 농사일과는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재력가, 부자들만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원시적 논쟁 같지만, 제염사업으로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초기자본이 필요했다. 투자금액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운전자금 정도는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북서곶 같은 농경사회에서 그 재력의 원천은 잉여 농산물이었을테고, 그 잉여 농산물은 소금사업에서 번 돈으로 구입한 잉여 농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선순환 구조다. 누대에 걸쳐 계양 선주 지리에 살던 경주 김씨 집안은 제염업으로 큰돈을 벌어 북서곶에 많은 농지를 사놓고 아예 이주해 들어왔다. 백오십년전의 일이다.

북서곶 지역에서 송범식 집안은 자작농 경영과 함께 겸업수입원인 마름 업무에 종사하면서, 최길성 집안은 자작영농 및 정미소 운영, 마름 업무를 통하여 돈을 벌었다. 김기현 집안은 자염생산 및 판매업과 자작영농으로, 허석 집안은 자염 생산 및 판매업과 자작영농, 정미소 운영, 마름 활동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3) 시천동의 흥망성쇠

아라뱃길은 운하다. 한강이 산란기 연어처럼 그 지류 가운데 하나인 굴포천을 짐짓 거슬러 올라 계양산의 북쪽 기슭을 깊게 베어 물고 서해로 질주하는 인공 수로다. 그런데 이 유장한 뱃길 덕분에 인천 서북부의 유서 깊은 마을 하나가 아예 절단이 났다. 비운의 주인공은 바로 냇물이 시작된다는 마을, 시천동(始川洞)이다.

‘시시내’라는 몽환적 이름도 갖고 있는 이 마을은 진주 류씨 집성촌이었다. 시천동 류씨 집안에는 고려시대 이후 수백년에 걸쳐 벼슬길에 나가 입신양명한 분들도 많지만, 수준 높은 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조선후기와 일제강점시대를 거치면서 인천의 3대 명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추사 김정희 이후 한국 최고의 서예가로 평가받는 검여 류희강선생이 이 집안 출신이다.

시천동은 첩첩산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천동은 과거 교통의 요충지였다. 고려시대에는 지방 관리들과 보부상, 그리고 삼남지방의 선비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왕도인 개경을 오가던 지름길이었다. 천안, 수원, 안산, 시흥에서 건너나 말을 타고 부평읍내(계산동)를 경유하여 김포, 통진, 개성으로 가는 첩경은 계양산의 ‘큰징매이’와 ‘작은징매이’고개를 넘어 시천동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옛날 이곳에는 정기적으로 큰 장이 섰고, 수십 필의 말을 보유한 대규모 ‘여각’도 있었다. 그러나 개성이 수도였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개국, 서울로 천도하면서 우리 국토의 인문지리적 남북 중심축이 급격하게 바뀐다. 아울러 사람과 물자의 이동로로서의 시천동의 역할도 사라졌다.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서 개경에 가려고 험준한 한남정맥 왼쪽을 넘나들며 왕래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실 그때부터 시천동의 쇠퇴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여말선초의 혼란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천동의 배후 도시로써 부평읍내의 번성은 구한말까지 줄곧 유지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인천 최고의 변화가이자 중심지는 지금의 계산동인 부평이었다. 부평은 인천의 진산이라는 계양산을 아늑하게 등지고 바로 앞에는 굴포천으로 생성된 넓고 비옥한 평야를 가진 풍수 길지다. 지금도 부평초등학교 안에는 부평도호부 청사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근처에는 부평향교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천동은 사실 부평읍내와 걸어서 반나절 생활권이다. 옛날 기준으로는 도심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부평의 일부로써 시천동이 그 지역의 지배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 양반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29년 서구 연희동에 서곶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시천동과 인근 마을의 학령기 소년들이 험준한 고개를 넘어가며 계산동에 있는 부평공립보통학교에 다녔던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40년대까지도 시천동 류씨 집안의 젊은이들은 서울의 성균관에서 격식을 갖춘 구식 혼례를 했다. 결혼예식을 마친 신랑신부는 보통 인력거를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가 경인선 기차를 타고 부평으로 돌아와 큰 고개 둘을 넘어 시천동 집으로 귀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우리는 이 집안이 당시 서울의 파워엘리트그룹과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 듯이, 상서로운 시천동의 기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시천동이 경험한 첫 번째 시련은 조선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구질서체계의 소멸이었다. 이 땅의 양반 집안에 주어졌던 독점적 혜택이었던 성리학(사서삼경) 공부를 통한 입신양명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시천동이 고향인 내 초등학교 동창생의 증조부는 조선왕조가 시행한 마지막 과거시험에 소년급제했

다. 그러나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평생을 진사로 불운(?)하게 보냈다. 말년에 부평향교의 전교를 지낸 것이 이력의 전부다. 그는 저물어가는 한 시대를 망연자실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천동의 두 번째 시련은 국토분단과 6·25전쟁의 먹구름이 몰려 오면서 시작되었다. 신교육에도 일찍 눈을 떠 서울 유학생이 많았던 시천동 젊은이들은 해방공간에서 자신의 이념에 따라 좌우로 갈라져 갈등을 빚었다. 전쟁통에는 인민군과 국군, 중공군과 유엔군, 그리고 다시 국군이 번갈아 마을에 들어오면서 친인척 간에도 서로 피의 보복이 횡행했던 골육상쟁의 아픈 세월을 겪었다.

시천동의 세 번째 시련은 1972년 마을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찾아왔다. 당시에도 집중 취락지구는 제외하고 그 주변에 그린벨트가 설정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시천동은 분명 예외적이다. 그래서 음모론이 돌기도 했다. 그 직전년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때 야당표가 많이 나옴에 대한 당국의 보복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시천동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랐으며 지금까지도 인근 마을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낙후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리고 시천동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결정적 시련은 1990년대 초반 경인아라뱃길의 모태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찾아왔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뱃길이 산간 고지대 마을 시천동 한가운대를 지나가는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아예 마을 대부분이 통째로 사라졌다.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끝을 향해 간다고 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잠언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뱃길을 위하여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역사의 뒤편길로 말없이 사라져간 시천동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기념관이나 역사관 하나 정도는 세워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우리나라 서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검여(劍如) 류희강(柳熙綱) 선생의 고향이 이곳인 만큼 그분의 작품 전시관도 함께 세우면 지역사회의 자부심 고양과 함께 문화육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래 개관한 인천 남동구의 ‘소래역사관’을 꼭 옆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북미대륙에서 수천년 이상 평화롭게 살아오던 원주민들을 기병대를 앞세워 강제로 몰아내고 서구풍 식민지를 세웠던 유럽계 이민자들이 마침내 원주민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과거 잘못에 대한 참회와 속죄의 뜻으로, 큰 돈을 들여 수많은 지역에 아메리카 인디언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아라뱃길의 물결은 무심히 서해로 흘러간다.

4) 흑돈과 점령군, 중국 인민폐

1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집에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른바 청주형 농경 목축사회가 생겨난 후, 처음 몇천년 동안의 일이라고 한다. 대략 기원전 8천년전경부터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미해병 1사단이 함경남도 서북부 개마고원의 인공호수인 장진호 전투에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와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 제9병단 이하 7개 사단, 12만명에 달하는 압도적 병력에 포위되어 거의 궤멸되었을 때, 중공군과 백병전까지 벌이며 용맹하게 싸워 미10군단 병력이 동해안의 항구도시 흥남으로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남하하던 터키군 제1여단 이하의 대대급 부대가 김포반도를 지나 북서곳 지역으로 들어왔다.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서울, 부산까지 단숨에 종단할 수 있는 1번 국도에서 조금 비껴나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이 지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장병 10만명과 군수품 35만톤, 피난민 10만명과 차량 1만7천대를 선박으로 수송한 흥남철수작전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터키군 병사들은 이곳 서해안 지역 북서곳 동토에 조용히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오늘날 서부교육지원청 인근의 공촌동과 갈뚝, 검암동, 시천동 일대다. 김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307번 도로가 지나가는 서인천고등학교 인근 험봉산 중턱에는 추격해오던 중공군과의 비장한 결전을 위해 터키군이 파 놓았던 견고한 참호와 구불구불한 교통호들이 70년대까지도 붉은 상흔처럼 드러나 있었다.

당시 한반도 주요 전선의 전투상황은 대체로 소강상태였다. 양측 모두 상대방과 일전을 치른 후, 부대를 재정비하고 탄약과 장비를 보충하며 새로운 작전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51년 중공군 춘계공세가 시작되자 터키군은 북서곶 지역을 떠나 수원, 용인 방면으로 이동했다. 제공권을 갖지 못해 야간행군으로 몰래 압록강을 건너와 청천강 전투와 개마고원의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미군, 터키군과 교전을 하며 뒤쫓던 중공군 제50군 예하 제149사단 447연대 소속 부대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왔다.* 북서곶 지역에서 용인의 ‘김량장’에서처럼 터키군과 중공군이 마을 중심부에서 주로 백병전으로 맞붙었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천운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점령군이었다.

2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서는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탄약과 장비를 조달하는 보급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병참선이 끊기면 부대의 전투력은 곧바로 상실된다. 그런데 마을 주변 추수를 끝낸 빈 논밭에 야전텐트로 막사를 치고 보급문제도 스스로 해결했던 터키군과는 달리, 중공군은 마을 한가운데 민가들을 함부로 접수하고 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일부 식량도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현지에서 조달했다. 말이 좋아 조달이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거의 그냥 갈취하는 수준이었다. 북서곶은 그렇게 야수적 무법자들의 공간으로 속절없

* 터키군과 중공군은 결국 수개월 후 수리산 전투와 용인의 김량장 전투에서 결전을 벌였다. 미 공군의 폭격과 서해상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의 함포사격 지원을 받은 터키군이 승리한 그 전투는 그야말로 살육전이자 ‘지옥의 묵시록’ 현장이었다. 터키군 병사 한 명당 중공군 40명이 전사했다.

이 추락했다. 국군이나 인민군 의용군 징집연령이 한참 지나,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던 늙수그레한 남자들은 그들이 묶고 있는 방을 덥힐 땀나무를 해 오고, 부녀자들은 그들의 취사를 돕는 부역을 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데자뷰이자, 힘없는 나라 백성들이 그 옛날 겪었을 남루하고 비루했던 술한 고초의 대물림이었다.

민가들을 접수한 중공군은 곧바로 돼지 징발에 나섰다. 돼지고기가 빠진 중국식단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중공군 취사 책임자인 장교와 부관은 마을 이장을 앞세우고 돼지 키우는 집들을 찾아 다녔다. 서툰 우리말로 “돼지 있소? 돼지 있소?”라고 소리치며 민가를 살살이 뒤지는 그 기괴한 행렬을 호기심 많은 마을 조무래기들이 줄곧 따라 다녔다. 거래(?)가 성사되면 장교는 즉시 권총으로 돼지 머리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마을 남자들은 방금 숨이 끊어져 축 들어진 돼지를 수레에 실어 취사병들에게 넘겼다. 돼지를 키운 주민들이 그들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것은 몇 장의 중국 인민폐뿐이었다.

내 할머니는 애써 키운 검정 돼지를 점령군에게 납품하고 받은 그 빛바랜 주황색 지폐들을 60년대 후반까지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 6·25전쟁의 와중에서 인민군과 미군, 터키군과 중공군을 따라다니던 그 동네 조무래기들 나이도 이제 칠십대 중반을 넘어섰다.

5) 인공치하 의용군 탈출기

1

북서곶 심곡동(깊이울)에 임윤순이라는 사내가 있다. 상남자다. 아흔이 넘모레인데도 아직 운전을 하고 다니는 노익장이기도 하다. 풍천 임씨 집성촌인 그 마을에서 13대째 살고 있다. 그의 부친 임흥재는 경성농업학교(서울시립대 전신) 출신으로 서곶지역에 곡물과 화훼 씨앗 배급제를 최초로 시행한 인물이다.

임윤순은 서곶보통학교를 10회로 졸업하고 6년제 인천공립공업중학교(인천기계공고 전신)에 입학했다. 심곡동에서 주안의 학교까지 자전거 통학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걸어서 다녔다. 당시 타이어 품질이 조악하여 등하곳길에 펑크라도 나면 곧장 애물단지로 변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언감생심,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당연히 없던 시절이었다. 새벽 4시반에 집에서 나와도 첫 수업에 늦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쟁이 터지던 그 해는 초여름까지도 몹시 가물었다. 그날은 마침 집에서 뒤늦게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했다. 그런데 아침부터 멀리 북쪽에서 대포소리가 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참을 먹고 점심때쯤 되자 피난민들이 황망히 이불 보따리와 간단한 가재도구만 챙겨 흠뻑 땀을 흘리는 서곶로를 가득 메우고 내려오며 난리소식을 전했다. 마음이 급해진 임윤순 가족들도 그날 밤 부랴부랴 안산 원곡동 친척집으로 피난을 떠났다. 다행히 북서곶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다. 며칠 후 그의 가족들은 집에 그대로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되어 서둘러 귀가했다.

그 사이에 북서곶은 이미 인민공화국 세상이 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발걸음들

은 진득하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인공 치하, 인천에서는 모두 네 번의 의용군 차출이 있었다. 임운순은 나이가 어려 1차 징집 대상에서는 용케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서 병력이 부족해진 북한 인민군은 곧 스무 살 미만 청소년들도 징병하기 시작했다.

1950년 7월의 땡볕 아래 서곶국민학교 운동장에는 4백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끌려와 있었다. 임운순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지역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의용대장도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장정들을 직접 지휘, 통제하고 있는 무리는 붉은 완장을 찬 빨치산들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빨치산 10여명이 운동장에 책걸상들을 내놓고 장정들의 신상을 파악하며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은 듯, 그들의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임운순은 고등학생치고는 키도 크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는지 이기괴한 민병대의 부대장을 맡았다. 부대 편성을 마친 빨치산 대장이 ‘동무가 부대장을 맡으라’고 지명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그렇게 되었다. 북한 인민군은 6·25전쟁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밤에만 은밀하게 이동했다. 싱아고개와 안아지고개를 넘어 부평을 지나 소사쪽으로 행군을 했다. 대열 전방에는 보통 두 명의 첩병이 나가 있었다. 첩병들이 ‘항공’하고 소리치면 대열은 즉시 도로변으로 산개하여 납작 엎드리도록 교육을 받았다.

부천남국민학교에서 하루를 쉬 이들은 밤이 되자 다시 대방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장정들은 무작정 첩병을 따라 걷기만 했는데, 대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방동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4백명 중 거의 절반은 이미 도망을 치고 없었다. 임운순도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부대장을 맡고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

이들은 계속 이동하여 마침내 제1한강교 이남의 넓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병력 재편성을 하던 중, 용산 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미군기들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관악산 쪽에서도 미군 전투기들의 기총소사가 시작되었다. 임윤순은 급한대로 근처 담장 옆으로 몸을 던졌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보니 공터는 아비규환이었다. 처참하게 불에 그을려 죽은 시체들이 즐비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팔, 다리가 찢긴 부상자들의 울부짖는 모습이 목불인견이었다. 지옥의 목시록 현장이 따로 없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임윤순은 그 와중에도 안면이 있는 서쪽 동향 출신 장정들 10여명과 함께 동작동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후 단체행동은 눈에 띄어 위험하므로 각자 명찰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치도록 주선하고 일행과 헤어졌다. 그는 상도동 고개 너머에 사는 사촌 누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귀향을 서둘렀다.

그런데 오류동 고개 근처 지금의 유한공고 입구에 왔을 때 진풍경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비료가 귀해 거름으로 대부분 분뇨를 농사에 사용했는데, 길가에 세워져 있던 검은 색 분뇨마차들을 숨겨진 무기고로 착각한 미군 전투기들이 그곳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로에 범벅이 되어 쏟아져 내린 분뇨와 코를 찌르는 인분 냄새가 장관(?)이었다.

2

요즘 개고기 먹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막상 전쟁이 터져 지역이 고립되고 시장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고기가 사람들의 생존에 큰 기여를 했다. 전쟁통에는 밥 인심 보다 개고기 인심이 더 좋았다. 임윤순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러 주로 개

고기를 얻어먹으며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여 마침내 효성동에 당도했다. 안도했다. 이제 고개만 넘으면 고향집이었다. 그러나 그곳 친지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가 한 밤중 그 집을 급습한 치안대원들에게 다시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누군가 밀고를 한 모양이었다. 임윤순은 다시 인근 부평국민학교로 끌려갔다. 넓은 운동장에는 이미 천여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편성을 마친 이들은 행군대열을 구성하여 주안국민학교로 이동했다가 다시 폭격을 맞은 신흥시장을 지나 신흥국민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집결했다.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부대 편성을 마치게 되면 곧 바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될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운이 따르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충치가 악화돼 잇몸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얼굴까지 일그러졌다. 인민군 간이 진료소에 가니 천막 안에는 7,8명의 여자들이 책상을 놓고 간호 업무를 보고 있었다. 환자등록을 하고 상태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뒷줄에 앉아 있던 책임자급 여성이 그를 보고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전쟁 전 신흥국민학교 노천강당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본 처녀였는데, 아마도 그에게 호감을 가졌던 모양이다.

외출증을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외출증이 아닌 귀가증이 나왔다. 생사의 중요한 길목에서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신흥동에서 심곡동 집으로 가는 도중에는 10여곳의 검문소가 있었다. 백마를 탄 인민군 장교들이 순찰을 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귀가증을 내민 그는 인민군 초병들로부터 ‘동무, 수고 많으셨소.’라는 격려 인사까지 받으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전쟁통에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는 9월 중순이 되자 갑자기 인천 쪽에서 우뢰와 같은 함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임윤순 가족과 심곡동 마을 사람들은 심곡천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심곡천은 싱아고개와 철마산의 북쪽 가파른 후사면 아래를 흐르는 개천으로 월미도 앞바다에서 쏘는 함포의 피폭 위험에서 벗어나기 좋은 곳이었다.

마침내 점령군이 물러나고 수복이 되자. 임윤순은 서곶국민학교 출신 인천공고 동창생들과 함께 축현국민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대한민국 정부의 학도의용대 모집에 응했기 때문이다. 이때 모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3천명이라고 했다. 인천의 학도병들은 그 먼 마산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마산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는 해병대로 분류가 되었다. 나머지 병력은 다시 부산으로 가 육군에 편성되었다. 공고생이었던 임윤순은 기술병과인 통신학교로 배속되었다. 3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그는 제517통신대대로 배치되었다. 이후 1956년 전역할 때까지 강원도 잔비 소탕작전에 참가하는 등 군복무를 하다가 그 부대에서 소대 선임하사로 제대를 했다.

이후 임윤순은 고향인 북서곶과 부평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영위했다. 오랫동안 큰 규모의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기도 했다.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 고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고문 등을 맡고 있다.

Chapter V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북서곶 연표

VII. 북서곶 연표

● B.C.18년

비류(沸流)가 인천 문학산에 미추홀국을 세움. 서곶과 부평도 그 권역에 들어감

● B.C. 5년

비류가 자결하여 인천과 부평, 김포 일대가 백제국 영토로 들어감

● 470년

고구려 장수왕이 김포와 부평 일대를 확보하고 주부토군(主夫土郡)을 설치함
북서곶은 주부토군에 포함됨

● 757년

신라 문무왕에 의해 주부토군이 통일신라 권역으로 들어갔으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함
신라 왕국의 주부토군의 일부가 됨

● 846년

신라 경덕왕이 주부토군을 장제군(長堤郡)으로 명칭을 바꿈

● 896년

부평과 김포 일대가 궁예에게 점령당함
후고구려의 영토, 뒷날 태봉국의 영토가 됨

● 922년

고려 태조가 건국하고 고을 이름을 수주(樹州)로 바꿈

● 1150년

고려 의종,
수주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함

● 1215년

고려 고종,
안남도호부를 계양도호부로 개칭함

● 1272년

이 해 가을 고려 충렬왕이 왕비 제국(齊國)공주와 함께 계양산 경명현에 매 사냥을 옴

● 1308년

고려 충렬왕이 계양도호부를 길주목(吉州牧)으로 바꿈

● 1310년

고을 명칭이 부평부(富平府)로 바뀜

● 1360년

2월·3월: 왜구가 서곶에 침입함

● 1375년

3월: 왜구가 침입하여 서곶을 노략질함

● 1413년

부평부가 부평도호부로 바뀜

● 1418년

6월: 양녕대군이 계양산 경명현에서 매사냥을 하고 현재의 경서동 난지도 앞 바다에서 낚시하며 3일을 놀고 돌아감

● 1560년

이 해에 부평도호부 부사로 부임한 신건(申健), 계양산 경명현의 군도(群盜) 토벌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1636년

이 해에 검암동 출신 낙향인사 송윤(宋琿)이 항리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다가 병자호란이 발생하고 부평향교가 불타자 공자 위패를 꺼내 계양산 경명현 바위 아래 숨겨 보존함

1710년

이 해에 금위영제조(禁衛營提調) 민진후(閔鎭厚), 석곶(납서곶) 해안에 방어진 설치

1741년

이 해에 조정에서 새 궁궐을 지으려고 좋은 목재가 많은 경서동에 관리를 파견하고, 벌목인력으로 인근 백성 수백 명을 동원, 주로 북서곶 백성들이 물력에 동원되어 노역을 함

1783년

6월 18일: 충청도 결성현(結城縣)에서 수곡한 세곡미 1,039석을 싣고 세어도에 정박한 운반선이 폭풍으로 침몰함
침수되지 않은 벼 582석과 콩 53석은 국고에 납부, 나머지 400석은 침몰로 인한 결손으로 처리함. 북서곶 주민들이 침몰한 곡식을 앞 다투어 건져 식량으로 사용해 배불리 먹음

1789년

이해 간행된 『호구총수』에 모월곶면 방리로 공촌리, 연희리, 고잔리, 검암리, 시천리, 백서리, 청라도, 난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됨

1831년

이 해에 세어도가 개척됨

1866년

이 해에 외국함대의 해안 침입을 막기 위해 경서동 과기평 마을에 군사기지인 계우정(桂虞亭)을 설치함
9월: 프리모호 등 프랑스 함대 3척, 경서동 난지도 앞바다에 출현해 정박하여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함
병인양요의 전초가 됨

1871년

5월 25일: 미국 탐측(探測)함대가 물치도(현 영종도)를 지나 북서곶 앞바다로 들어와 정박하며 침략할 기회를 노림
5월 28일: 미국 아시아 함대 군함 5척이 서곶의 호도(虎島)에 정박
신미양요의 전초가 됨
6월 3일: 울도 백사장에서 두 달여에 걸쳐 부평도호부사 이기조와 미국 측 드루(F. J. Drew)서기관이 교섭

1879년

7월: 연희동에 연희진을 설치하고 용의머리산에 용두포대를 배치함
가능포 2기를 가동함

1882년

6월 28일: 연희동 연희진이 훈련도감에 예속되었다가 혁파됨

1883년

12월: 연희동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고 민영목(閔泳穆)이 지휘관으로 부임하여 해안경비에 나섬

1883년

이 해에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북서곶 백성들을 동원하여 계양산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함. 연희리 주둔 기연해방영에서 해안감시병 모병을 하며 무거운 모래가마니 나르기, 돌 멀리던지기 등 시험을 통해 장정 500명을 선발 배치함

1887년

11월 25일 : 청라도와 난지도의 전조창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세곡의 분실과 도난이 빈발하자 조정은 부평부사 조병하(趙秉河)를 토포사(討捕使)로 임명함

1890년

이 해에 연희진을 폐지함

1895년

3월 : 기연해방영이 연희동을 떠나 서울 용산 만리창지(萬里倉址)로 이동함
이 해 검암동 출신 정지석, 관립한성 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 이듬해 강화공립소교 교원으로 임명, 판임관 6등 직급을 받음

1898년

이해 시천동 출신 유완무,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 감리서 감옥에 갇혀있던 백범 김구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 백범과 간담상조하며 교류함

1899년

3월 15일 : 부평공립소학교 개교 (현 계산동 162번지). 북서곶 학동들도 경명현을 넘어 학교에 다니게 됨
9월 : 정지석 평안남도 삼화항(三和港) 공립소학교 교원으로 가고 동년 12월 30일 강화공립소학교로 복귀함

1901년

이 해에 가뭄으로 인한 부평과 북서곶 대참상. 종북이 지나서야 비가 내려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었으나 수확이 거의 전무함
경기도 일대와 부평 전체에 아사자가 속출했으나 북서곶은 갯벌에서 굴조개를 잡아 굶주림을 이김

1903년

12월 : 연희동 거주 김윤하, 기독교 복음을 받아 신자가 됨
집에 기도처를 만들고 첫 예배를 올림
이것이 연희교회의 시원이 됨

1904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중이던 류완무, 간도감계(間島勘界) 지리서인 『북여요선(北興要選)』의 간행사업을 주도함

1905년

류완무,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성태영(成泰英) 등과 독립운동 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함

1906년

경서동 포수 오강산, 경서동 금산에서 큰 호랑이를 잡음

1907년

9월 : 검암동 정홍석이 심상덕, 정태현과 더불어 보명학교를 열고 애국계몽운동을 펼침. 이해 전국적으로 펼쳐진 국채보상운동에 공촌동(모월곶면 공촌리) 최창근이 성금 60전을 냄

1908년

류완무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 신문 간행사업에 참여하여 장지연(張志淵)을 영입하고 교육사업에도 적극 나섬

1909년

12월 : 시천동 류희태, 한일 강제합병 조짐이 떠오를 때 류경무와 더불어 풍습과 규율이 다른 두 나라의 합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발언을 함
이해 시천동 류희진, 약관 24세에 압록강 국경지역인 평안북도 용천의 용암포 세무 서장으로 부임함

1911년

이 해에 권신일 목사와 김윤화 신도가
연희교회를 설립
이 해에 서예가 류희강(柳熙綱), 시천동
진주 류씨 가문에서 출생함

1913년

이 해에 친일 자산가 송병준(宋秉峻)이
백석동 한들방죽 축조에 성공함

1914년

3월 1일 : 부천군이 신설되며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묶여짐
모월곶면이던 북서곶이 서곶면에 들어감.
정훈석 초대 서곶면장으로 부임,
동년 4월 1일부터 1920년 2월 7일까지
일함
이 해에 검암동에 일본의 개척회사
황해사(黃海社)가 2층 건물을 짓고
들어왔으나 곧 철수함

1915년

연희동 샘말 출신 정구영,
부평향교 전교를 맡음

1916년

시천동 류희태, 부평향교 전교를 맡음

1919년

3월 24일 : 백석동 출신 심혁성(沈赫誠),
황어장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여
일경에 체포되고, 다음날 서대문형무소로
이감(移監)됨. 황어장 장날은 북서곶 주민들
로 다수 이용했으므로 만세시위에 가담함
10월 12일 : 심혁성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1920년

2월 28일 : 정태국 서곶면장 부임
1935년 10월 27일까지 15년간 일함

1923년

11월 29일 : 인천과 서곶에 폭풍우,
방파제가 터져 큰 피해가 남

1929년

3월 24일 : 서곶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30년

1월 20일 : 서곶면 연희동에서
서곶공립보통학교 개교

1933년

연희동 이용덕, 중국에서 귀국해 농지개혁
사업을 펼침. 김포 홍두평 별판 개척과
한강수리조합 공사에 참여해 큰 기술과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중국인
쿠리(苦力)들을 끌어다 쓰기도 함

1935년

10월 28일 : 이경응 서곶면장에 부임.
1940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부천군
서곶면장으로 일함

1938년

4월 1일 : 서곶보통학교가
서곶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됨.
이 해에 연희동 출신으로 구한말에
하와이에 이민 갔던 김기선이 거부가 되어
귀향, 기부금으로 연희교회를 이전 신축함

1939년

이 해에 서예가 류희강, 중국 베이징(北京)
에 유학하여 동방학회에서 서예와 금석문
수업 시작. 연희동 장범록, 경기도청
공작부 공작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41년

4월 1일 : 서곶공립심상소학교가
인천정상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됨
이 해에 현 가좌동, 석남동 일대에
국민총력연맹의 지도로 국방도로 공사에
서곶 청장년들 수백 명이 노력동원됨

1943년

경서동 과기평 마을에 도기(陶器)장이
천주교인들이 이주해 와서 도기 가마를
만들고 천주교 공소를 옴

1945년

7월 : 이상호 서곶출장소장 부임
광복의 날인 동년 8월 15일까지 일함
8월 : 연희동 김옥돈, 학병열차에
실렸으나 평양역에 이르렀을 때 일본이
항복해 가
8월 15일 : 이경응, 서곶출장소장으로
취임
9월 24일 : 인천정상공립심상소학교가
인천서곶공립국민학교로 개명
10월 : 해방 전 만주지역에 거주하던
3백여 명의 패잔 일본인들이 굶주리고
남루한 차림으로 목선을 타고 경서동
해안에 상륙, 서곶지청이 구출에 나섬
10월 10일 : 미군정청,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하고 시장에 임흥재
(任鴻宰), 서곶 지구장에 정원용(鄭元容)을
임명
11월 15일 : 인천부 서곶출장소를
서곶지청으로 개칭

1947년

10월 15일 : 인천과 부평에서 좌우익
투쟁이 강렬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극우파의 대동청년단 부평지단이 결성되고
서곶지구책에 이창재(李昌在)가 선임됨
이 해 시천동 류희진, 탐사 끝에 속의문씨
묘와 묘비를 찾아내어 봉분을 모으고
비를 다시 세움. 백자에 쓴 문숙의
묘지명이 발견되어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

1948년

1월 말 : 대한청년단 부평지구단일
결성되고 서곶지구책에 이창재, 간부로
김두하(金斗河)와 김양한(金良漢)이 선임됨
5월 10일 : 북서곶이 포함된 인천 을구
제헌의회 의원 선거에서 조봉암이 당선됨
8월 15일 : 인천부 서곶지청을 다시
출장소로 개칭. 경서동 출산 교사 허정
서곶국민학교 교감으로 임명, 1960년까지
19년간 근무

1949년

6월 : 서곶 일대에서 토탄(土炭)이
생산됨
7월 25일 : 좌익 김포야산대, 검단지서
습격과 우익인사 암살을 기도하다 사전에
발각, 행동대장 김영봉(金永奉)은 당하리
자택에서 체포됨
12월 : 《부평읍지(富平邑誌)》가 시천동
류씨(柳氏) 문중에서 발견됨

1950년

7월 4일 : 북한군이 서곶지구를 점령함

1951년

백석동 심덕기, 최초 지방자치제 실시 때
민선 시의원에 서곶대표로 당선됨

1952년

류희진, 65세 나이에 인천시
부평출장소장에 부임해서 일하다가 별세.
류희강, 인천문총회관에서 박세림·장인식
등과 함께 대동서화동인회를 결성

1953년

류희강, 국전에서 입선

1954년

류희강, 국전에서 다시 입선. 연희동 장범록
인천시청의 총무과장 승진
연희동 이현신, 부평향교 전교가 됨

1955년

류희강, 국전 특선 및 문교부장관상을 연이어 수상. 이후 1958년까지 계속 4회에 걸쳐 특선을 차지함
8월 22일: 서곶 선거구 제2대 시의원
으로 당선된 심덕기, 인천시의회의장으로
피선됨
11월: 가좌동에 영창악기(주)가 들어섬.
이 해 경서동 허용 서곶출장소장에 취임.
이 해 해주 출신 의사 이가삼, 의료혜택이
전무한 연회동에 정착, 진료 시작함

1956년

2월 16일: 심덕기가 검암동에 사유지
3만여 평을 쾌척하여 현 서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인 영화중학교 분교 개교. 이 학교는
이후 서인천중, 고려중, 인광중으로 교명을
변경해 오다가 서인천고등학교로 이어짐

1957년

6월 1일: 연희동 출신 김옥둔(金玉敦),
이광수 원작 『사랑』을 인천에서 극영화로
촬영 제작해 애관극장에서 상영
6월: 검암동의 정계섭, 북서곶
230가구에 라디오 유선방송 실시

1958년

이 해 이민제 울도분교장에 부임
이 해 류희강, 국전 추천작가가 됨

1959년

류희강, 국전 초대작가가 되고
『향토 인천의 안내』 출간
김기선 재산을 헌납해 연희동
산 71번지에 새 회당을 건립

1960년

검암동 송병기, 서곶 대표로 인천시의회
의원에 당선됨

1961년

이 해에 도화동과 가좌동 사이 해협에
인천교가 놓이면서 보도진 나루가
폐지되고, 서곶에서 인천 다운타운까지
버스 주행시간이 1/3로 단축

1962년

이 해에 시천동 출신 류성규(柳聖圭),
『자유문학』 신인상 시조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등단함
이 해에 서예가 류희강, 경기도 문화상
미술부문 수상

1963년

이해 김기선, 연희동 고향집에서 사망
고래잡이 개척자 김옥창, 천해개발공사대표
설립하고 청라도 앞바다 매립사업권을
따냄

1964년

5월 11일: 미군부대 식당 찌꺼기로
만든 꿀꿀이죽의 식용과 판매 금지를 발표.
북서곶 주민들도 먹지 않게 됨
이 해 이명수, 천해개발공사(대표 김옥창)이
신청한 청라도매립사업권을 놓고 동업
계약을 맺고 회사대표가 됨. 경서동의
금산-장도-일도-청라도-문점도-장금도-
소도를 잇는 7,800미터의 방조제를 쌓는
공사에 착수함

1965년

8월 13일: 부평우체국 서곶분국이
문을 열
12월 17일: 문화재관리국,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 조사 시작

1967년

연희동 정태준, 부평 향교 전교를 맡음
12월 13일: 인천서곶국민학교
백석분교장 개교

1968년

12월 22일 : 경인고속도로 개통,
일제강점기 국방도로를 타고 가좌·신현·
가정동을 관통해 나감. 이 해에 인천시가
구제를 실시, 서곶출장소는 복구에 편입

1970년

5월 19일 : 울도의 인천화력발전소 1호기
완공(시설용량 25만 kw)
6월 10일 :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가 국가
지정사적 211호로 지정됨
이 해에 연희동 용의머리 마을의 용두산
해변에 인천시의 분유처리장이 들어섬
이 해에 연희동 용의머리에 인천 시립
양묘장이 들어섬

1971년

인천서곶초등학교 백석분교장
백석국민학교로 승격 설립
이 해 정광근 서곶 유지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고려중학교 유지재단을 인수, 교명을
인광중학교로 개칭하고 이사장으로 취임
6월 8일 : 류희강, 중풍을 극복하고 서울
신세계 화랑에서 좌수(左手)서예전 개최

1972년

8월 23일 : 서인천농협 창립
초대조합장 이훈익

1973년

9월 28일 : 경서동에 극동요업(주) 설립

1974년

7월 1일 : 인천화력발전소 3,4호기
착공(시설용량 각 32만 6천 kw)
8월 5일 : 인천시, 청라도에 선착장 신축

1975년

이 해에 『검여 류희강 서예집』 출간

1976년

4월 1일 : 인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 서곶에 제3지대가 편성됨
10월 18일 : 서예가 류희강 별세
(향년 66세)

1977년

7월 8일 : 집중호우가 내림
12월 22일 : 연희동 용두산 앞 두루미
도래지를 천연기념물 257호로 지정

1979년

4월 28일 : 울도의 인천화력발전소
3,4호기 준공

1980년

1월 : 동아건설(주), 서곶 앞바다 대부분
을 매입하는 공사 착수. 이후 이 곳은 일명
'서북부 매립지', '동아 매립지' 또는 '김포
매립지'로 불리움
이 해 연희교회가 심곡동 352-4번지로
증축 이전. 김기선의 자녀들이 내놓은
토지였음

1982년

2월 14일 : 중부지방에 진도 3의 지진
발생 서곶에서도 감지됨
9월 27일 : 심곡동 이기문, 서곶 출신
최초로 사법고시에 당선됨
11월 18일 : 낙도 연탄 가공 운반선
제2, 제3 해민호 취항, 북서곶 앞바다의
섬들도 혜택을 받음

1983년

11월 16일 : 경서동 해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인주물공단 사업
협동조합 실천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음
으로써 공업 지역으로 예정됨
이해 흥성한, 검암동의 인광중학교 재단
(이사장 정광근)을 인수해 교명을
서인천고등학교로 바꿈

1984년

2월 4일 : 석남동에 거북시장이 개설됨
 4월 19일 : 경서동에 경인주물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됨
 4월 30일 : 인천직할시가 백석동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 발표.
 8월 1일 : 연희동 출신 이원규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등단

1985년

8월 15일 : 태풍 '리'호가 서해안에 상륙.
 12월 1일 : 이원규, 『현대문학』 창간
 3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훈장과 굴레』가 당선됨

1986년

4월 1일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문화 연구소를 개설하고 『인천총료록』 출간
 12월 15일 : 가좌 인터체인지 입체고가도로 개통
 이 해에 경서동 과기평 마을의 천주교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함

1987년

5월 1일 : 이훈익 『인천지지』 출간
 이 해에 연희동 용의머리 마을 용두산 해변의 인천시 분뇨 처리장이 폐쇄됨
 12월 : 심곡동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연수원 개원

1988년

1월 1일 : 대통령령 12367호에 의해 서곶지역이 북구에서 분리되어 서구가 개설되고 서구청장으로 송인호가 취임
 이로써 서곶이라는 유서 깊은 지명은 내무행정의 지명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짐
 이 해에 정부가 한강과 서구 시천동을 잇는 경인운하 사업 가능성을 제기
 4월 26일 : 13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처음으로 독립 선거구가 된 서구에서 민주정의당의 조영장이 당선됨

1989년

1월 4일 : 서구보건소 개소
 3월 : 인천 공영개발사업단이 개청되면서, 연희 1·2·3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 발표

1990년

3월 1일 : 심혁성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됨
 6월 20일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담』 출간
 10월 5일 : 서부경찰서가 개청되고 초대서장 김규원이 취임. 가좌동 474번지 현 3기동대 청사에 임시청사에서 업무 시작

1991년

1월 : 북서곶 앞바다 서북부 매립지 완공 (총면적 1,126만평)
 3월 2일 : 검암동에 대인종합고등학교 개교
 4월 20일 : 이훈익 『인천의 성씨 인물고』 출간
 6월 18일 : 검암동에서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됨
 11월 8일 : 계양산 살리기 인천시민운동본부 결성
 이 해에 연희동 출신 이훈갑 『서구신문』을 창간함(주간 8면 1만 부)
 이 해에 서부 경찰서가 청사 신축이 끝나 현재의 장소로 이전

1992년

2월 28일: 서구 청사 및 의회청사가 준공됨
3월 6일: 서인천-서울간 직행버스 노선 개설
3월 24일: 14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에서 민주자유당 조영장이 당선
8월 19일: 경서동 일대 93만 8천 63평 방미터를 인천주물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함
10월 15일: 서부소방서 개서
11월 17일: 일도(一島)에 서인천복합 화력발전소 준공(국내 최대 화력 발전 188만 kw).이 해에 서곶과 검단 앞바다에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준공됨 (630만 평)

1993년

9월 1일: 경서동 주물공단 조성사업 착공
11월 30일: 이훈익 『인천지명고』 출간
9월 28일: 인천시,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및 고시

1994년

1월 10일: 환경처, 김포 수도권매립지 2곳 등 3개 지역을 특정폐기물 매립지로 확정
3월 4일: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개교 (10학급)
3월: 서인천종합유선방송주식회사 설립
4월 20일: 정부, 경인운하 민자 유치 계획 발표
4월 27일: 연희동 동 청사 증축
10월 18일: 서구청장 박수목 취임

1995년

3월 1일: 강화군과 옹진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되고 서구 검단 출장소를 개설함
3월 29일: 서구청장 유정복 취임
6월 27일: 인천광역시 및 시의회의원 선거 실시, 서구에서는 구청장에 권중광, 시의원으로 백석두와 이영호가 당선됨
7월 1일: 민선 서구청장 권중광 취임
11월 17일: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1996년

2월 5일: 이훈익 『인천금석비명집』 출간
3월 15일: 서인천우체국 개국 (심곡동 278-7번지)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선거구에서 국민의회의 조철구가 당선됨
계양 선거구에서 심곡동 출신 이기문이 당선되어 처음으로 서곶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함
7월 1일: 일도(一島)에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준공
8월 30일: 공촌정수장 준공
12월 30일: 검암1·2지구 토목 공사 착공
이 해에 이훈익, 인천광역시문화상 학술부문 수상

1997년

3월 5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심곡동으로 이사옴
12월 31일: 서구, 서곶공원 내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 (물썰매장, 눈썰매장 운영)
이 해에 건설교통부,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시천동을 잇는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 착수

1998년

6월 4일 : 지방의회 선거에서 박현양이
구청장에 당선되고, 민우홍과 박균열이
시의원에 당선됨
7월 1일 : 서구청장 박현양 취임
8월 25일 : 이훈익 『근세 인천지방의
전란사』 출간
12월 : 이원규 인천광역시문화상
문학부문 수상

1999년

9월 : 서북부 매립지를 농림부가
동아건설(주)로부터 6,300억원에 매입,
농업기반공사와 관리를 맡음

2000년

3월 22일 :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으로 경인운하 건설
저지 성명 발표
4월 13일 : 16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
강화갑에서 민주당 조한천이 당선되고,
서구·강화을에서 민주당 박용호가 당선됨
5월 24일 : 인천환경운동연합, 서북부
매립지 용도 변경 반대성명 발표
10월 26일 : 인천환경운동연합, 서북부
매립지 농경지 고수 촉구 성명 발표
10월 29일 : 농림부, '서북부 매립지의
바람직한 토지 이용 구상계획' 발표
(50%는 농경지로, 나머지는 주거, 관광,
물류, 관광, 국제 업무, 첨단연구 단지로 전용)
11월 12일 :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 경인운하 반대 공공시위 돌입
11월 20일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
서곶의 시천동과 경서동을 관통해 나감

2001년

3월 1일 : 연희동 소재 인천여자공업고등
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3월 5일 : 검암중학교 개교(369명 입학)
4월 10일 : 경서지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령 도면 고시

2002년

2월 : 서인천전화국 개국
(심곡동 252번지)
7월 1일 : 서구청장 이학재 취임
7월 15일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개원
9월 1일 : 인천양지초등학교,
인천서곶초등학교에서 분리 심곡동에서
개교(25학급). 10월 25일 : 농청자 전시관
개관(경서동 197-6 소재)

2003년

1월 1일 :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서동북청자도요지사료관 수탁
4월 : 심곡동에 인천기독교종합사회
복지관 이전해 옴
10월 17일 : 검암 경서동 청사 신축
10월 22일 : 서구의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복인천IC 개명 및 양방향 개설
축구 결의안 가결

2004년

3월 1일 : 공촌동에 인천서구교육지원청
개청함

2005년

1월 31일 : 심곡동 이기문 인천광역시
변호사회 회장에 취임

2007년

4월 6일 : 경서지구 토목공사 준공
10월 10일 : 경서동에 국립생물자원관
개원

2008년

6월 16일 : 연희동 출신 이훈국 민선
제5대 서구청장에 취임
12월 1일 : 허암 정희량 유해지,
시 지정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됨
(검암동 산 61-5)

2009년

1월 : 심곡동에 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연수원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3월 : 경인운하(아라뱃길) 기공

2010년

1월 : 경서동에 한국환경 개설회
2월 7일 : 연희 노인문화센터 공사 착공
3월 2일 : 인천청라고등학교
개교(8학급)
3월 31일 : 서구, '정서진' 지정 계획을
발표(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인근)
4월 4일 : '정서진' 명칭,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신청
4월 7일 : 경서동 서부상업단지 경관
조형건물 준공
5월 29일 : 청라국제도시, 1단계지역
주민 입주 시작
5월 : 심곡동에 심곡어린이도서관
들어섬
7월 1일 : 전년성 제10대 서구청장 취임
11월 19일 :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개관(경서동 209-3번지)

2011년

3월 2일 : 청라고등학교 개교
3월 1일 : 청라초등학교 개교
3월 1일 : 인천초은초등학교 개교 (10학급)
7월 : 인천체육고등학교가 경서동으로
이사 옴
9월 21일 : 서구청 정서진 지정 선포
12월 31일 : 정서진 표지석 제막식 및
2011 정서진 해넘이 축제 개최
(정서진 광장)

2012년

4월 2일 : 연희 노인문화센터 개원
5월 22일 : 아라뱃길 개통
시천동을 관통해 나감

2013년

3월 : 청라 IC 개설

2014년

1월 19일 : 경서동 아라뱃길 투기장을
복원복합단지로 명칭을 변경함
2월 10일 : 심곡동에 국제성모병원
개원
4월 5일 : 수도권매립공사 드림파크
간이체육시설 개장.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을 갖춘
5월 : 연희동에 아시아드경기장 준공
7월 : 강범석 구청장 취임
9월 19일~10월 4일 : 연희동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아시안 게임 열림
45개국 13,000여명 참가

2015년

4월 28일 : 서구 리틀야구단 전국
저학년대회 준우승
12월 30일 : 정서진 해넘이 축제

2016년

7월 10일 : 연희동 폐자제 방치지역에
개설한 연희자연마당 완공됨
69,442 평방미터
7월 30일 : 인천2호선 지하철개통으로
북서곶 지역이 교통이 원활해짐. 서구청역,
검암역, 검바위역 개설

2017년

4월 : 경서동에 지식 생산 상담소 설치
6월 7일 : 검암동에 서구도서관 개관
11월 25일 :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2020년 건설 확정 발표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①

북서곶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6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인 | 정군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기 획 | 서덕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강덕우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강옥엽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덕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윤식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정군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편 집 | 서덕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윤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ISBN 979-11-952675-5-2

ISBN 979-11-952675-4-5 (세트)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